

동 창 회 보

# 인·행

2016 Spring  
vol 109

- 03 동창회 소식
- 04 동창회장 인사말
- 06 임원 이사 소개

Special Issue

- 08 제14회 안행대상
- 16 제27회 등반대회
- 20 제29회 테니스대회
- 26 제19회 행운의 밤
- 32 34회 졸업 50주년 행사



- 38 장학금 소고

동문탐방

- 40 장년부 강창수 동문
- 42 청년부 황정한 동문

2016 Spring

통권 제109호

발행인 동창회장 송중원

편집인 간행이사 안병철

발행일 2016년 5월 30일

편집대행 e-포럼 (053)744-8416

e-mail kpmedal77@hanmail.net

- 45 지부 소식
- 49 동기회 소식
- 54 모교 소식
- 57 개인 동정
- 60 경조사

동문문예

- 61 가정의학과의원에서의 환자진료
- 63 뜻 平山 申英湜 文
- 66 나의 부친(송명도 1회)과 어린 시절
- 77 아이들 보는 데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 78 54회, 졸업 30주년 기념여행
- 84 859 우정의 합창 여정
- 87 성산 이씨 3대 백두산 유람기

- 90 동문이 펴낸 책

경북의대 동창회 기금 현황

- 91 장학기금 모금 현황
- 92 장학금 1인1계좌 명단
- 98 기수별 전체 기금 납부 현황
- 112 북미주지부 장학기금 납부 현황
- 114 동창회비 납부 현황

- 120 동창회 기수별 회장단
- 123 송금안내 및 동창회 임원

이사회 소식

제7차 상임이사회

일시 2015년 10월 5일(월) 오후 7시

장소 의대본관 2층 제2교수회의실

참석 지용철 회장 외 14명

토의안건 등반대회 준비 보고, 전체이사회 준비, 명부 발간에 관한 토의

제8차 상임이사회

일시 2015년 11월 2일(월) 오후 7시

장소 의대본관 2층 제2교수회의실

참석 지용철 회장 외 12명

토의안건 등반대회 보고, 전체이사회 준비 및 참석독려

제9차 상임이사회

일시 2015년 12월 7일(월) 오후 7시

장소 동심각

참석 지용철 회장 외 21명

토의안건 정기총회 준비, 동창회 명부 발간준비

제10차 상임이사회

일시 2016년 1월 4일(월) 오후 7시

장소 의대본관 2층 제2교수회의실

참석 지용철 회장 외 12명

토의안건 동창회비 납부 독려방법, 동창회 회칙개정 수정

제11차 상임이사회

일시 2016년 2월 1일(월) 오후 7시

장소 의대본관 2층 제2교수회의실

참석 지용철 회장 외 17명

토의안건 정기총회, 안행대상 준비, 동창회 명부 발간준비

제1차 상임이사회

일시 2016년 3월 7일(월) 오후 7시

장소 자금성

참석 송중원 회장 외 33명

토의안건 정기총회 보고, 테니스대회 준비

제2차 상임이사회

일시 2016년 3월 31일(목) 오후 7시

장소 의대본관 2층 제2교수회의실

참석 송중원 회장 외 16명

토의안건 테니스대회 준비, 행운의 밤 및 졸업 50주년 준비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24일 그랜드호텔에서 제72회 경북의대 동창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구지역 및 각 시도지부에서 20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였으며, 이동수 경북대학교 동창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셨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2년간 수고한 지용철 회장에 이어 송중원(49회) 동문이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안행대상 시상식도 겸하였다. 의대동창회에서 매년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으신 분께 수상하는 안행대상은 올해로 14회째를 맞고 있으며, 이날 학술부문 33회 윤징자 동문, 의료봉사부문 29회 심재훈 동문, 사회공헌부문 33회 인주철 동문이 각각 수상하였다. 2부 행사에서는 학생동아리 공연과 함께 전 국회의원인 박찬중 변호사의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초청강연이 있었다.

## 존경하는 경북의대 동문 선배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기들과 후배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이번 2016년 2월 정기총회에서 제28대 동창회장을 맡게 된 49회 송중원입니다. 많은 훌륭한 선배님들께서 계시는데 제가 맡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고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젊은 후배들이 동창회를 한번 혁신해 보라는 선배님들의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큰아버님이신 모교 1회 송명도 박사님의 뒤를 이어 모교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의대는 93년이 넘는 역사와 8,4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국내 3대 명문 의과대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밀려 과거의 화려한 명성보다는 못한 위상을 마주하는 것이 지금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창회와 학교, 병원이 더욱 합심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대 동창회 임원진들은 우선 젊은 후배들의 동창회 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피의 수혈이 없으면 우리 동창회는 앞으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임 동창회장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훌륭한 업적을 바탕으로 젊은 후배들의 패기가 어울려 동창회가 보다 활기차고 발전적으로 굴러가도록 하나씩 개선하겠습니다. 경북의대 동창회는 선배님들께서는 후배들에게 무한 사랑을 베푸시고 후배들은 선배님들을 존경하며 따르는 진정한 명문 의대 동창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자 합니다.

우리 동창회에 희망적인 소식은 새로운 젊은 임원진들이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기꺼이 봉사하겠다고 다들 자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28대 임원진은 71회까지 이사진으로 참여하여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동창회의 얼굴인 정기총회에는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220명의 동문들이 참여하여 위로는 19회 김익동 원로 선배님부터 아래로는 갓 입학한 학생들까지 3~4대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분위기로 치렀습니다. 앞으로 다른 행사들도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는 발전적이고 활기찬 행사로 바뀌어나가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나 하나 동창회 나가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브라질에서의 나비 날개짓이 미국 중서부에 허리케인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나비효과란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동창회 발전의 기본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모든 동창회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동문 여러분, 봄을 맞아 환절기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올해 하시는 일들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동창회장 송중원 드림



# 2016 새로운 임원단

제28대 경북의대 동창회 임원이사



회장  
송중원 49회



감사  
김원섭 48회



감사  
박문흠 50회



부회장  
이정철 50회



부회장  
권오춘 50회



부회장  
권중혁 51회



부회장  
조병채 52회



부회장  
박재용 52회



부회장  
허동명 55회



부회장  
이상락 50회



부회장  
강인구 51회



부회장  
고삼규 51회



부회장  
김승선 52회



부회장  
박재울 52회



부회장  
김숙영 53회



부회장  
손수준 53회



부회장  
이민석 53회



부회장  
김인겸 54회



부회장  
이상민 54회



기획이사  
최동호 5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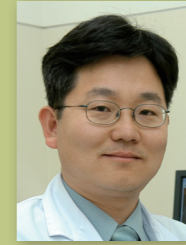
총무이사  
김문규 57회



장학이사  
정현주 55회



조직이사  
김성중 57회



간행이사  
안병철 58회



학술이사  
김정민 59회



홍보이사  
민복기 61회



재무이사  
제석준 61회



정보이사  
김경호 62회



사업이사  
이우근 64회



정책이사  
최귀애 55회



정책이사  
김동윤 56회



정책이사  
이응배 60회



정책이사  
이수형 62회



정책이사  
박선희 64회



정책이사  
이창재 65회



정책이사  
장성만 서울의대



정책이사  
이성만 66회



정책이사  
이정엽 69회



정책이사  
이용현 71회

# 2016

# 특집이 제14회 안행대상

글 \_ 학술이사 김정민(59회)

## 제14회 안행대상 시상 및 각명식

2016년 2월 24일 오후 2시, 제14회 안행대상 시상식 및 각명식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강당과 교정에서 거행되었다. 안행대상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에서 평생을 학술연구,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에 이바지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의료계 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에게 드리기 위하여 2003년부터 제정한 상이다.

금년, 제14회 안행대상은 학술연구 부문에는 윤징자(33회) 동문, 사회공헌 부문에는 인주철(33회) 동문, 의료봉사 부문에는 심재훈(29회) 동문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가족, 친구들, 학생들, 동문들과 함께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안행대상 시상식에 이어 모교 교정에 설치된 안행대상 조형물에 수상자의 이름을 새기는 각명식도 거행되었다.



## 역대 안행대상 수상자

	학술연구 부문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 부문
제1회	박희명(13회)	조운해(18회)
제2회	서순봉(13회)	이주결(5회)
제3회	여용연(28회)	지성해(18회)
제4회	손태중(24회)	신장곤(24회)
제5회	오창열(20회)	김명호(14회)
제6회	김재호(27회)	임학권(22회)
제7회	최중식(28회)	정창근(27회)
제8회	이동식(10회)	김 집(16회)
제9회	강 반(31회)	신학진(2회)
제10회	김익동(19회)	이철상(27회)
제11회	전성균(25회)	이근후(29회)

	학술연구 부문	의료봉사 부문	사회공헌 부문
제12회	이규청(34회)	유덕종(52회)	이대부(12회)
제13회	정태호(26회)	우석정(54회)	전재규(30회)
제14회	윤징자(33회)	심재훈(29회)	인주철(33회)



안행대상 학술연구 부문

윤징자 33회



학력 및 주요 경력

1965. 2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사  
 1965~1966 경북대학교 병원, 인턴  
 1966~1967 경북대학교 병원, 내과, 전공의  
 1967~1970 뉴욕 Maimonides Medical Center, 소아과, 전공의  
 1970~1972 뉴욕 DMC & Kings County Hospital, 소아과, Fellow  
 1972~1976 뉴욕 DMC & Kings County Hospital, 소아과, Attending Neonatology, Director, Program Director 뉴욕주립대학교 소아과 조교수  
 1977~2009 뉴욕 Bronx-Lebanon Hospital center, 소아과, Attending Neonatology, Director 미국 Albert Einstein 의과대학 소아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10~현재 뉴욕 Bronx-Lebanon Hospital center, 산부인과, Attending Neonatology, Director 미국 Albert Einstein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

주요 포상

1990 A witness for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on Hearing "Beyond the Stereotypes: Women, Addition and Perinatal substance Abuse"  
 1993 The First Annual Woman's Month Award by Alpha Kappa alpha sorority of the Bronx  
 2006 The Deborah Elkins Foundation Trust Award to BLHC NICU

활동 내역

1) 신생아 care 지침서 및 교과서 저술

1971년, 소아과 전공의 2년차 시절에 쓴 'Guidance note book to help the resident and house-staff to recognize, prevent and treat emerging neonatal problems before an infant becomes seriously ill'은 신생아 care에 획기적인 지침서로, 후에 스페인어 판이 나올 만큼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간호사들의 신생아 care를 위한 필수 참고서로 꾸준히 개정 발간되고 있음.

2) Two first observational original articles noted in the literature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의 기전 연구에 초석이 되는 주요 연구 결과 2편을 포함하여 17편의 논문을 국제저명학술지에 발표함.

3) 소아과 의사이자 교수로 탁월한 활동

1977년부터 미국 뉴욕 주의 Bronx Lebanon Hospital Center(BLHC)의 신생아과 과장을 역임하면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과의 level status를 승격시키고, Albert Einstein 의대 소아과 교수로 임명(1994년)받아 후진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2006년에 Deborah Elkins Foundation Trust Award를 수상하였으며, 현재까지도 BLHC 신생아과(5 attending physicians, 4 NP & 4 HP) 과장과 Albert Einstein 의대 소아과 교수로 재직하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와 모교의 명예를 드높임.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제가 감히 '안행대상'을 받는다는 게 꿈만 같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선배님들의 축하의 전화, 이메일, 카드, 동기들의 화분을 받으니 겨우 실감이 났습니다.

저를 어릴 때부터 '우리 윤박사' 하시면서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과대학 선생님들의 가르치심과 인턴, 레지던트 때 내과 과장 박희명 선생님 이하 선배 선생님들, 특히 김상완, 최중식, 이만희 선생님의 좋은 가르침과 조언이 제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의 2년 4개월의 인턴 레지던트 경험 덕분에 미국 과장님과 여러 attending 선생님들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어저께만 같습니다.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신 저의 의과대학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남편의 이해와 사랑과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이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남편, 2년 선배 김재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천직으로 여기면서 보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안행대상까지 받으니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윤징자 드림



안행대상 의료봉사 부문

# 심재훈 29회



**학력 및 주요 경력**

- 1961. 2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사
- 1961~1963 대구 동산병원 근무
- 1963~1967 군의관 복무
- 1968~1973 도미 후 인턴, 레지던트 수료
- 1973~1992 심재훈 가정의학과 개원
- 1992~2003 미 법무부 형무소 의무부장
- 2005~2007 미국 한의과대학 졸업

**주요 포상**

- 1993 미 법무장관 사회봉사상(미국 법무부)
- 2010 재경 경북대학교 동창회 자랑스런 동문상(의료부문)
- 2012 재미 한인 연합감리교 선교 대상 (재미 한인 연합감리교 선교협의회)
- 2014 카톨릭 사회복지회 요셉의원 10년 근무상 (서울 카톨릭 사회복지회)

**활동 내역**

1) 11년간 미국 형무소 수감자에 의술과 인술 베풀어

1992년 미국 법무부 형무소 의무부장으로 취임하여, 11년간 재직하는 동안 수감자들을 위한 다양한 의술과 인술을 베풀어 한국인의 정과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의 선봉장이 되었으며, 1993년에 미국 법무부에서 매년 수여하는 자원봉사상을 수상함.

2) 서울 영등포구 소재 요셉의원에서 행려자, 외국인 노동자 자비 의료봉사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30개월 동안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요셉의원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국내 취약 계층,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의료봉사 및 지원에 지속적으로 헌신하여 사회정의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였음. 10년 동안 매년 자비로 서울을 방문하여 영등포 요셉의원에서 여름동안 노숙자를 섬기었고, 할아버지 의사로 KTX 잡지와 다양한 방송사에서 소개. 2010년 북한 동문회에서 수여하는 의료부문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함.

3) 해외 오지에서의 의료 봉사

2000년부터는 북한을 비롯하여, 멕시코 유카탄, 볼리비아, 산티아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무료진료소 책임자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80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티의 가장 열악한 지역인 '시티 솔레'에 2016년부터 상시 운영될 의료 선교센터의 개원과 운영을 위한 의료진(20여 명)으로 참여하여 헌신하고 있음.

## 수상 소감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상을 주신 동창회장님과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어느 날 주간한국에 실린,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쪽방촌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보는故 선우경식 요셉의원 원장님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순간, 50여 년 전 의대생 때 가졌던 꿈이 되살아났습니다. 33세에 3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서 힘들고 고된 생활에 지쳐 까맣게 잊고 살아온 나의 젊은 시절의 파란 꿈-훗날 의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이었습니다.

그때 이후 매년 휴가를 얻어서 멕시코 유카탄 반도,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북한 등지로 다니면서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2003년 3월 31일자로 42년의 의사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해서 2014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3개월씩 한국에 나와 자비로 봉사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길에서 자는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IMF 때 거리로 나와 주민등록에 없는 무국적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는 피와 살을 나눈 동포형제들이요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였습니다. 48년간 외국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제2 모국어로 진료를 해 오다가 우리 모국어로 치료를 하면서 나누는 관계는 아주 납득했습니다. 나로부터 진료를 받는 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마다 저를 의사가 되도록 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봉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007년 미국에 있는 3년제 한의과대학에 입학하여 만 72세에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정식 한의사 면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근에 살고 있는 교포들을 대상으로 무료봉사하는 것이 저의 큰 낙이요 보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사가 되도록 해 주신 것은 제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살도록 함이 아니라 이웃에 사는 소외된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라는 소명으로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만 81세가 지난 나이에 불구하고 건강을 주셔서 힘이 닿는 날까지 의료봉사를 계속 할 것입니다. 지금은 뜻이 맞는 20명의 의사들이 힘을 모아 아이티에 금년 1월 1일부터 영구적인 clinic을 개원해서 순번제로 지속적인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안행대상 봉사상의 영광을 지난 58년간 곁에서 묵묵히 내조해 준 사랑하는 아내 김인향(55학번 경대사대 졸업)에게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심재훈 드림

안행대상 사회공헌 부문

# 인주철 33회



**학력 및 주요 경력**

- 1965. 2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사
- 1969~1972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 의학박사
- 1971~1983/1991~2004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1983~1991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1996~2002 경북대학교병원 병원장(법인 제2,3대)
- 2003~2004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 2004~2010 대구보훈병원장
- 2008~2012 (사)대구보건의료협회의 회장
- 2012~2015 (사)메디시티 대구협의회의 회장

**주요 포상**

- 1993 노동부장관 표창장(노동부)
- 1997 대구광역시장 표창장(대구광역시)
- 2001 적십자은행(대한적십자사)
- 2005 옥조근정훈장(교육부)
- 2013 자랑스런 시민상(대구광역시)

**활동 내역**

1) 경북대학교병원 법인화 후 개혁과 발전의 초석 마련

1993년 3월 경북대학교병원이 법인화 된 후 초대 기획실장, 이후 6년간 제2대 및 3대 병원장을 역임하며 조직문화 개혁, 낙후시설 개선, 인력 및 장비 총원 및 제2병원 부지 마련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모교병원이 현대화로 도약 발전하는 데 발판을 마련하였음.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유치에 크게 기여

대구의 차세대 신성장동력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2008년 12월 지역 보건의료인, 의료기관, 보건의료단체를 아우르는 "(사)대구보건의료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장으로서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노력과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2009년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3) '의료특별시 메디시티대구' 구현에 적극 기여

2009년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후, (사)메디시티 대구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여 회장을 맡아 대구의료의 새로운 도약과 의료산업 부활을 위하여 2015년까지 7년 동안 헌신의 노력으로 지역보건의료계의 단합을 이끌어내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개발 업무를 추진하였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의료 관광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음.

## 수상 소감

동창회 '안행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동창회 관계자분들과 동창회 선배, 후배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래 비재박학(非才薄學)하고 아둔하여 뛰어난 일을 할 인물이 못됩니다.

저보다 훌륭한 기라성 같은 선배, 후배님들의 뛰어난 업적들이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조그만 저의 치적을 높이 평가해 주시어 큰 상을 주셨습니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이는 아마도 앞으로 더 모교와 동창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남은 여생을 모교와 동창회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저 자신의 영광은 물론이고 가문의 큰 영광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이 영광을, 저의 하는 일을 불평 없이 내조해 준 아내와 가족들, 메디시티대구 관계자 여러분, 지역 보건의료계의 단체장님들, 그리고 의료기관장님들, 의료계의 원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인주철 드림





# 제27회 경북의대 동창회 등반대회

2015년 10월 25일, 제27회 경북의대 동창회 등반대회가 모교가 위치한 대구의 청룡산에서 1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위로는 28회 김재식, 김희교, 노수열 선배 동문으로부터, 멀리 북미주 지부에서 참석한 동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어우러져 각자 체력에 맞게 상중하 코스로 나뉘어 등반을 시작하였다. 행사를 도와주듯이 화창한 가을하늘 아래, 정상까지 오른 동문들은 정이 담긴 도시락으로 점심을 나누신다. 나무 그늘그늘 모여 식사를 하며 반가움의 목소리를 높이는 동문들의 즐거운 모습 속에서 청룡산이 경북의대의 진산(鎭山)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글 \_ 이우근(64회) 사업이사

경북의대 동창회 등반대회의 날이 밝았다. 하늘은 역시나 화창한 날씨와 따사로운 햇살로 이날을 축하해준다.

동창회 일을 맡고 처음으로 진행해 보는 행사다 보니 긴장이 많이 된다. 혹시라도 산행을 놓치는 사람이 있을까 1주 전 산악반 후배들과 두 차례나 답사 산행을 했던만 혹시 하는 마음에 일찍 도착해 오늘도 미리 길을 다시 짚어 본다.

150여 명의 동창들이 청룡산을 향해 출발한다. 길은 3갈래다. 각자의 체력에 맞는 상, 중, 하 코스를 선택해 즐기면 된다. 등반대회라고 해서 꼭 정상등반을 목표로 함은 아니다. 모처럼 만난 선후배들이 산을 매개로 그 반가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눔이 목적이니 말이다.

화창한 날이라 부부등반으로 오신 분들도 많다. 쉬엄쉬엄 걸어 30분이면 닿는 평안동산에서 자리를 잡고 쉬었다 내려가실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정상에 대한 욕심으로 강력하게 산을 치고 오르는 동창들도 꽤 많아 보인다. 하기사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겐 정상이 아니면 의미가 없음이라.

1시간쯤 지나니 인원이 많이 분산되기 시작한다. 정상 방향으로 올라오는 동창들의 수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줄을 잇고 있다. 정상을 오르시는 동문들을 반기고자 먼저 정상을 향해 달려 올라간다.





정상에 도착해 10여 분 지나니, 부산에서 오신 54회 선배님이 선등으로 정상에 올라오신다. 잠시 기다리니 여든에 가까우신 30회 선배님께서 최고령 정상 등반을 하신다. 반갑게 사진을 찍어 드리고 나니 계속해서 20여 분이 정상에 이르셔서 정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준비해 오신 식사를 주변에서 하신다. 51회 선배님들은 네 분이 함께 정상에 도착하신 후 산행코스와는 다른 길로 하산을 하신다. 맛난 막걸리가 준비된 식당을 가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아마도 학창시절 수업시간에 당구장으로 술집으로 다니시던 습관이 아직 남아서일 거라 생각해 본다.

나무 그늘마다 모여 식사를 하며 반가움의 목소리를 높이는 동문들의 즐거운 모습 속에서 오늘, 청룡산은 경북의대의 진산(鎭山)으로 거듭나는 영광을 안음이다.

가을이다 보니 산행로에는 낙엽이 가득하다. 하산길이 많이 미끄러울 수밖에 없으니 주의 하산을 당부 드리고 뒤를 정리하며 내려오자니 중턱쯤에 지용철 회장님께서 자리를 펴고 북미주에서 오신 선배님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다. 인사를 드리니 막걸리 한 잔으로 행사진행을 격려해 주신다. 아, 맛있다. 오늘은 청룡산의 구석구석이 동문들의 반가움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하산 후 모교 중간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뒷풀이 행사가 진행된다. 동창회에서 준비한 음식들과 선물들로 흥을 돋우며 오고 가는 술잔 속에 즐거움과 반가움은 그 극을 향해 달려간다.

모교에서의 뒷풀이 행사는 동문의 이름으로 다시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되기에 모두에게 다시 한번 반가움의 기회를 주는 것 같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끝자락이라 아쉽게도 해가 짧다. 짧은 만남 긴 이별이라. 타지에서 온 동문들은 돌아갈 길이 멀어 아쉬움을 뒤로 하고 버스에 오른다.

동문들이 떠나고 난 중간마당은 뉘엿뉘엿 붉어져가는 태양빛 속에서 추억으로 변해간다. 다시 또 내년을 기약하며 긴 하루 아름다운 추억의 편린을 가슴속에 고이 접어본다.

# 제29회 경북의대 동창회 테니스대회

1987년 제1회 대회를 치른 경북의대 동창회 테니스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려 29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 역시 30회 소원영 동문부터 75회까지 폭넓은 기수가 참석하여 열띤 시합을 펼쳤다.  
 기수와 관계없이 4개 조로 나뉘어 단체전만 하였는데,  
 한 조에 6명의 선수가 배정되고 각 조에서 복식 3팀을 만들어 경기를 펼쳤다.  
 우승은 멀리 포항에서 원정을 온 C조가 하였다.  
 테니스대회의 산 증인이신 김철수 동문이 속한 42회와 신예 60회의 대결에서는  
 18년 선배 조가 이기면서 저력을 보여주었고,  
 후배들은 선배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몸에 밴 예의에 존경을 보내는,  
 동창회 행사 본연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다.

이번 대회에는 30회 소원영 선배님으로부터 75회 백성욱 후배까지 23명이 참석하였다.  
 무려 45년 세월의 차이를 뛰어넘어 선후배가 테니스를 통해 함께 어울렸다. 옛날에는 테니스를 즐기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기수별 경기를 하였다고 들었다. 그때는 우승기를 타기 위해 동기들끼리 서로 연락하여 참석을 종용하고 경기도 치열하였다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테니스 인구도 줄고 참석자도 줄었다 한다. 작년과 올해는 참석자가 적어 기수에 관계없이 4개 조로 나뉘어 단체전만 하였는데, 한 조에 6명의 선수가 배정되고 각 조에서 복식 3팀을 만들어 경기를 하였다. 우승은 멀리 포항에서 원정을 온 C조가 하였다. 포항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여 테니스를 치고 단합도 잘된다 한다. 멀리 대구까지 8명이나 되는 회원들이 참가한 것을 보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의사 테니스회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재미있었던 동창회 테니스대회

글 \_ 김태석(60회) 동문

작년부터 2년 연속으로 동창회 테니스대회에 참가하였다. 매년 4월 말에 있는 동창회 테니스대회는 올해로 29회 째를 맞는 전통의 행사이다. 나는 테니스를 새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실력에 자신이 없어 작년에는 망설이면서 첫 출전을 하였다. 그러나 막상 참가하여 보니 아는 얼굴도 있었고, 처음 뵈는 선배님들도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다. 실력 차이가 너무 나서 패를 끼치면 어쩌나 했던 걱정도 실력에 맞추어 대진표를 짜주니 마음 편하게 하루를 즐거운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다.

올해도 작년처럼 60회 동기인 양동렬 선생님(마디편한 정형외과)과 한 팀으로 출전을 하였다. 이번에는 두 번째 출전이라 친근한 얼굴들도 많았다. 멀리 포항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비슷한 또래들도 있어 더욱 반가웠다. 오랜만에 찾은 학교 교정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날씨는 눈이 부시도록 좋았다. 마음도 몸도 젊어지는 것 같았다. 학창시절 힘든 하루 수업을 마치고 잠시 앉아 쉬던 느티나무 아래 벤치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시합이 없는 시간에는 나무그늘 아래 둘러 앉아 돼지고기 수육을 먹으며 선후배 간에 담소도 나누었다.



나는 3번째 시합을 영광스럽게도 동창회 테니스대회의 산 증인이신 김철수 선생님과 치루었다. 42회와 60회의 대전인지라 묘한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칠십을 바라보시는 대선배님과 경기를 하게 되어 조심스럽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젊은 우리가 이기겠지 싶었다. 포항 선생님들로 구성된 C조와의 경기에서 첫 번째 경기는 6:3, 두 번째 경기는 6:2로 이겨서 자신감도 있었다. 그러나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시는 대선배님들을 이기지는 못했다. 우리가 강하게 치는 포핸드 스트로크는 부드럽지만 예측 못한 코스로 받아치셨고, 공이 조금만 느리거나 방향이 좋지 않으면 전위의 포칭에 걸렸다. 오랜 시합에서 익힌 노련함에 시간이 갈수록 주눅이 든 우리는 6:3으로 패했다. 또 시합을 하며 절실히 느낀 것은 이십 년 가까이 선배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의 바르게 경기를 하셔서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공을 넘겨주시면서 조금만 옆으로 벗어나도 미안하다고 인사를 하시고, 시종일관 밝은 얼굴로 경기를 하셨다. 그러나 경기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최선을 다하셨다. 한 번의 시합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시합 후에는 김철수 선생님 옆에서 다른 경기를 관전하면서 귀동냥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지만 마음에 깊이 새기는 좋은 공부가 되었다. 전위가 욕심을 내어 무리하게 공을 받다가 실수를 하면 “아니야 후위 공이다” 또는 “마음이 조급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내 실수가 깊이 각인되었다. 젊은 후배인 백성욱 선생님이 강한 공을 치며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흐뭇한 표정으로 보시면서 “한창때 내가 전국 4연패를 할 때 생각난다”고 하실 때는 세월의 무상함을 같이 느끼기도 하였다.



나도 이제 나이 오십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생각해보았다. 오늘 함께 땀을 흘리시는 선배님들처럼 칠십이 되어서도 건강하게 테니스를 칠 수 있고, 후배들에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어떤 테니스 모임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존경스러운 인생의 가르침을 얻었다.

경기를 다 마치고 점심을 하러 가야 할 시간이 되었지만 아쉬움이 남아 포항 선생님들과 번외 경기를 하였다. 사업이사인 이우근 선생님의 재촉 전화를 받고서야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는 또 헤어지기가 아쉬워 다시 테니스장에 와서 저녁 6시까지 포항팀 선생님들 모두와 돌아가며 시합을 하고 헤어졌다. 헤어지면서도 포항으로 언제 한번 원정을 오라고 하여 꼭 가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목요일마다 모여 테니스를 치는 우리 클럽 동료들과 함께 포항으로 가서 운동도 하고 회도 먹고 올 생각이다.



나는 40대 중반을 넘기면서 환자를 보는데 힘이 들기 시작했다. 체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졌다. 하루에 많은 환자를 봐야하고 대부분 비슷한 환자를 반복해서 봐야하는 개원의 사로서 환자에게 소홀해지고 있다는 반성을 하였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테니스이다. 지금은 의사 15명 정도가 모이는 테니스클럽을 만들어 목요일 밤마다 운동을 한다. 모이는 의사들의 테니스 실력은 천차만별이다. 몇몇 실력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울려 운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어떤 선생님은 나와 복식시합 중에 오른쪽 어깨가 빠졌다. 이미 과거에도 탈골이 된 적이 있어 그 후로는 왼손으로 테니스를 친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시합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못 친다고 불평하지 않고 같이 즐긴다.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모임의 목적이다.

나는 테니스를 치면서 많은 것을 얻는다. 첫째는 체력 관리이다. 매주 한 번의 시합이지만 잘 해보고 싶어서 생활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월요일 밤에는 야간 등산을 하고, 주말이나 자투리 시간에는 달리기를 한다. 4~5Km 정도 달리고 나면 다리도 튼튼해지고 순발력도 좋아지는 것 같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는 운동을 하고 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어 규칙적인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번 동창회 테니스대회를 앞두고도 전날 밤에 달리기를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두 번째는 집중력이다. 테니스는 잠시 마음을 느슨하게 먹으면 우세하던 시합도 지기 십상이다. 또 스코어가 많이 뒤져 있어도 끝까지 집중하고 파트너와 마음을 맞추면 예상 외의 승리를 할 수도 있다. 설령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상대방을 긴장시켜 흥미로운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이런 최선을 다하는 습관은 매일 반복되는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친화력을 높여준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서로 높고 낮은 것을 다투다가 마음 상할 수 있는 자리가 싫어졌다. 그러나 테니스나 등산 같은 운동으로 만나는 모임에서는 이런 일이 적어서 좋다. 특히 테니스를 칠 때는 누구라도 잘하면 큰 소리로 칭찬해주고 나의 작은 실수에도 기꺼이 사과한다. 이렇게 파트너와 상대팀까지 서로를 격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일련의 과정은 삶에 지친 심신의 치유를 돕는다.

네 번째는 겸손과 배려를 배운다. 테니스 시합 중에 내 실력이 모자랄 때는 상대방 선수의 몸 움직임과 공에 철저히 집중하면서 내가 맡은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 내가 나서지 않아야 할 때는 나서지 않고 내가 책임져야 할 때는 과감하게 공을 받아넘겨야 한다. 그리고 상대가 실력이 좋든지 못하든지 간에 정성을 다해 시합에 임하는 것이 예의이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인생을 바르게 사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운동을 통해 배우고 있다.

내가 나이 들면서 하였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각자에게 맞는 운동을 하나씩 시작하고 동창회에서 주최하는 테니스나 등산 모임에 적극 참여하면 좋겠다. 내가 참가해 본 동창회 테니스대회는 경북의대를 졸업한 의사라면 누구라도 채 하나 들고 오기만 하면 환영받고 즐거울 수 있는 자리이다. 곳곳에서 테니스를 즐기고 있는 많은 동문들이 다음에는 더 많이 동창회 테니스대회에 참석하여 오랜만의 인사도 나누고 교류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주시느라 고생하신 동창회 회장님과 임원들, 또 경기 진행을 돕기 위해 수고해준 정우회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사진 오른쪽이 김태석 동문

# 동문 화합의 장, 제19회 행운의 밤

글 \_ 김경호(62회) 정보이사



2016년 5월 6일 모교 중간마당에서 19회 행운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sleepless in 경북의대,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는 34회 선배님들의 졸업 50주년, 59회 동문들의 졸업 25주년 홈커밍데이를 겸하였습니다. 행운의 밤 행사에 앞서, 이날 오후 북미주 동창회의 27회 김재호 선배님, 34회 박내홍 선배님의 특강과 34회 육정혜 북미주 회장님의 북미주 역사에 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북미주에서 오신 선배님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 운집했고, 이에 화답하듯 선배님들의 강의 또한 열의가 넘쳤습니다. 이번 행운의 밤 행사는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이날을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의 날로 선포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 제19회 행운의 밤

니다. 원로 선배님들, 송중원 동창회장님, 박매자 의전원장님, 박재용 칠곡 경북대병원장님, 박성민 대구시의사회장님, 박내홍 34회 북미주 회장님, 34회 김유문 동기회장님, 59회 황동하 동기회장님, 김부겸 국회의원 당선자 등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셨고, 중간마당이 비좁을 정도로 많은 재학생들이 참석하여 더욱 더 멋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1부 행사는 축하의 시간으로 김정민 동문(59회, 동창회 학술이사,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교수)의 사회로 축하, 34회와 59회 동문의 졸업 50주년 및 25주년 축하,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의 날 선포식, 34회와 59회 동기회의 장학기금 및 의대발전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뷔페로 준비된 식사와 함께 진행된 2부에서는 재학생 동아리와 졸업생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우리하나, 난타, CPR 등 재학생 동아리의 춤과 노래에, 졸업생의 합창 공연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3부는 동문 화합 한마당으로 최동호(54회, 동창회 기획이사) 동문과 김민수(분과 1학년) 학생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사회자들은 사전에 의상을 맞춰 입고 등장하여 무대 시작 전부터 시선을 집중시키더니 관전 모드로 편안히 있던 동문들을 무대 위로 끌어올려 장기자랑을 강요(?)하여 시끌벅적한 잔치 한마당을 만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바탕 노래판, 춤판이 시작되었고, 체면 따지지 않



# 제19회 행운의 밤

고 춤추고 몸 바쳐 노래하는데 선후배가 따로 없었습니다. 좌석에선 선후배가 자연스럽게 섞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난 선후배간에, 오랜만에 만난 동기간에는 할 이야기가 참으로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중간마당의 끝자락에는 무대에서 나오는 노랫소리에 맞춰 삼삼오오 춤추며 흥을 돋우는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상품이 걸린 것도 아닌데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인 춤판을 벌여 열정적인 젊음을 맘껏 뽐냈습니다. 밤이 깊어 행사는 파했지만, 동문들의 흥은 식지 않았습니다. 삼삼오오 무리지어 2차로 향하는 동문들에게 행운의 밤은 현재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편, 수성호텔에서는 행운의 밤 행사에서 1부를 마치고 자리를 옮긴

34회 선배님들의 졸업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1부에서는 동기회장님, 동창회장님, 칠곡 경북대병원장님의 축사에 이어 장학금 전달과 축가가 이어졌고, 유호열, 함덕상, 서성탁, 서치균 은사님을 모시고 만찬과 같이 진행된 2부에서는 은사님들의 회고담과 추억의 사진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졸업 50주년을 맞은 뜻 깊은 자리는 학창시절의 은사님들의 이야기와 후배들의 축하로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교 교정과 수성못가 두 군데서 진행된 행사는 시공을 초월하여 선후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교정에서, 불빛 아름다운 수성호반에서, 경북의대 동문들의 화합의 밤은 이렇게 아름답게 깊어만 갔습니다.





# 34회 졸업 50주년 기념 행사

경북의대 34회는 1960년 4월 84명이 입학하여 1966년 2월 78명이 졸업했다. 학창시절에 4.19, 5.16 등 정치적 격동기를 겪었으며, 졸업 후 한국에 33명이 남고 미국에 45명이 진출하여 가장 많은 동기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북미주 동창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글 \_ 정영식(34회) 동문

20주년 기념 모임을 시작으로 10회에 걸쳐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오가며 우리들은 자주 만났다. 멋지고 감동 있는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2년 전(2014년) 미국 유타주에서 졸업 48주년 기념여행을 함께하며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한국과 미국의 준비위원들이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2016년 5월 5일부터 10일까지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갖게 되었다. 행사에 참석했던 동기생 모두는 세월의 간격을 잊고 그 만남에서 진한 우정과 멋진 추억을 쌓고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과연 1966년 졸업, 34회 동기들은 멋있었고 자랑스러웠다.

우리 모두 정성껏 준비했고 뜨겁게 만나 하나가 되었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오감(감사, 감동, 감격, 감탄, 감명)을 품고 2년 후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첫째 날** : 5월 5일에는 옛 추억이 서린 수성못가 수성관광호텔에서 환영행사가 열렸다. 친구이야기 노래가 흐르는 가운데 개인별 사진촬영을 하고, 김유문 회장이 준비한 학창시절 이후 지금까지 700여 장의 추억사진 영상을 감상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례 시간,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작고회원 17분의 영상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과 재미회장의 환영사와 감사, 축시와 축가, 자녀들로 구성된 현악 4중주, 의미 있는 6분의 축하케익 커팅, 만찬으로 이어졌다.

만찬시간에는 각자의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고, 부인들의 합창메들리와 유명가수 뽑치는 여성 솔로들의 활약으로 흥을 북돋우었다. 마지막으로, 늘 불렀던 교가와 응원가를 함께 부르며 옛 학창시절로 되돌아간 기분으로 첫째 날을 마쳤다. 그냥 헤어지기 싫어서 전망 좋은 야외 연회장서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환영만찬에서 단체사진



은사들과 여학생 트리오



자녀들의 현악 4중주 모습



케이크 커팅



의생명과학관 앞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모교 앞에서 기념촬영



행운제에서 장학금 전달



신사임당 동상 앞

**둘째 날** : 5월 6일 모교 방문행사, 50주년 기념행사. 오전 10시에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 학장과 병원장의 따뜻하고 정성 어린 환영을 받았다. 대강당에서 병원 현황보고와 의과대학과 전문 대학원 현황 보고를 듣고 발전된 병원모습을 직접 관람하였다. 오후에는 모교를 방문하여 병원역사박물관을 관람하였다. 동기들이 기증한 물품과 4층 전시장에 34회에서 기증한 조명등을 둘러보며 감개무량하였다. 행운의 밤에는 우리 모두(61명 중 52명이 모교) 힘써 모은, 의미 있는 6,666만 원(66년 졸업의 의미를 담은 금액)의 장학기금을 전달하였다. 오후 7시부터는 은사님과 내빈을 모시고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생존 5분 은사님들 중 3분(유호열, 서성탁, 서치균 선생님)이 참석하여 회고담을 해주셨고, 특별히 서울에 계시는 함덕상 은사님은 영상편지를 보내주셨다. 동창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고, 축사를 해주셨다. 축사와 축가, 노래 '친구'를 제창했다. 즐거운 만찬시간에는 추억의 사진영상 순서가 이어졌다.

**동해안 행복여행 (5월 7일~5월 10일)**

5월 7일(土) 안동 하회마을 : 한국의 역사 마을인 안동 하회마을은 전통 건축물들의 조화와 그 배치 방법 및 전통적 주거 문화가 조선시대의 사회 구조와 독특한 유교적 양반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유명한 방아향정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동하면서 EDPS로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었을 때 사건이 발생하였다. 회원 중 한 분이 급성 복부통증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너무 웃다가 발생한 요절복통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2시간 동안 사건 발생에 대한 열띤 청문회가 열렸다. 영주 부석사 : 백두대간 소백산 중턱에 자리 잡은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가람이다. 또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며 국보 제18호로, 소백산 영봉을 바라보는 산과 하늘과 절집의 조화로운, 유물들의 어우러짐은 참으로 기막힌 조화였다. 밤늦게 속초까지 가서 늦은 저녁을 먹고 마레이 몬즈호텔에 투숙해서 휴식했다. 5월 8일(日) : 이른 아침(7시) 마레이 몬즈호텔 소연회실에서 주일예배(미사)에 25명이 참석하였다. 찬양, 기도, 말씀(신철야 부제)으로 경건한 시간을 가졌다. 통일 전망대 : DMZ와 남방 한계선이 만나는 통일 전망대에 오르면 잃어버린 북녘땅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이국땅에서 고향을 그리던 친구들은 멀리 보이는 잃어버린 우리 땅을 바라보며 아! 저곳--조금이라도 더 많이 오랫동안 가슴에 간직하고자 했다. 금강산의 구선봉과 해금강이 지척에 보이고, 우리가 간 날은 날이 맑아 신선대, 옥녀봉 등 천하 절경의 금강산도 저 멀리 좀 볼 수 있었다. 지금은 아무도 오고 갈 수 없는 길, 언제나 다시 뚫릴런지! DMZ 박물관,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과 김일성 화진포 별장도 둘러보았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은 폐허로 철거된 것을 1999년 육군에서 본래 모습대로 복원하고 유가족들로부터 유품 53점을 기증 받아 전시관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청간정 : 관동팔경 중 한 곳이며 동해 일출의 최고 명소인 청간정. 설악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청간천과 만경창과가 넘실거리는 해안, 기암괴석 절벽 위에 세워진 청간정에 올라 마음에 남은 아픈 역사의 기록들을 저 넘실대는 파도 위에 띄워 보냈다. 낙산사와 의상대 관광 : 강원도 양양군 오봉산에 있는 통일 신라의 사찰인 이곳은 몽골 항쟁,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모든 전각이 소실되고 몇몇 유물을 제외하곤 2005년 큰 불로 대부분 소실되었

으나 단원의 낙산사도를 기초로 하여 새로 세운 것이다. 그러나 의상대와 더불어 우리에게 현대의 큰 유산이다. 밤엔 양양의 스페인 풍의 아름다운 호텔 쓸비치에 투숙하여 휴식을 취하다.

5월 9일(月) 오죽헌, 허균 허난설헌 기념공원

오죽헌 : 보물 제165호로 조선 초기에 지어진 별당 건물로써 조선전기 건축을 볼 수 있으며, 신사임당과 울곡 이이가 태어난 집으로 더 유서 깊은 곳이었다.

허균, 허난설헌 기념공원; 조선 중기 개혁을 펼친 사상가이며,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과 그의 5살 위 누이로써 당대 뛰어난 시재와 문재를 발휘했던 난설헌(허초희) 생가터와 시비, 유적지와 기념관을 방문했다.

경포대 : 관동팔경 중 으뜸인 경포대는 하늘, 호수, 바다, 숲, 잔디, 님의 눈동자의 5개의 달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그곳 마루에 앉아 쉬어 가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이곳 명물인 초당 순두부를 맛있게 점심으로 먹고 목호로 향했다.

목호 등대 : 빙글빙글 돌아서 꼭대기 전망대에 서니 한 폭의 그림 같은 탁 트인 넓고 아름다운 쪽빛 바다와 동해시 전체를 볼 수 있었다. 내려와서는 아름다운 해변 카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차도 마시고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 참 즐겁고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삼척 레일 바이크; 동해바다 바로 옆, 노래 가사 그대로 '명사10리 해당화' 그 아름다운 해변 철로에서 레일 바이크를 탔다. 아! 이런 신나는 일이, 출발하자마자 펼쳐진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에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소리 높여 노래를 불렀다. 다시 양양 쓸비치로 돌아와 친구들과 정답게 마지막 밤을 보냈다.

5월 10일(火) 영월 청령포 : 비운의 단종 유배지를 배를 타고 서강을 건너 방문했다 우리의 마음처럼 비까지 추적추적 내린다. 참 슬픈 역사의 현장이었다. 영월 선암마을 : 아! 대한민국-언덕 위에서 본 대한민국 지형.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불렀다. 역시 멋진 동기들!

계천 의림지 :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3대 저수지로 호수 둘레 약 2km,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100여 그루의 수백 년 된 소나무는 정말 일품이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반백, 어깨는 휘어졌지만 오랜만에 짧은 일정으로 만난 반가운 친구들, 모국에서 또 이국땅에서 힘든 수련생활과 언어, 인종차별 등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가치 있는 삶과 훌륭한 가정들을 이루고, 자녀들을 세계시민으로 멋지게 키워내고 모두들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34회 동기들 모두가 자랑스럽다. 마지막 시간, 버스 안에서 서로간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며 2년 후 뉴질랜드에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친구 내 친구 어찌 이별할 거냐, 친구 내 친구 잊지 마세요!- 목이 아픈 친구까지 목소리를 내서 온 힘을 다해 소리 높여 부른다. 그렇게 우리의 50주년 Golden Reunion은 끝을 맺었다.

창조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오죽헌 앞마당



목호등대 앞



부용대에서



영월 선암마을

# 장학금 소고(小考)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장학기금 조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많은 선후배 동문님들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의대 동창회는 전국의 의과대학 동창회 중 가장 많은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의전원생 55명, 의예과생 8명, 박사과정 2명, 총 65명에게 3억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 장학기금 수입이 줄어 2억 5천만 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 장학금 기부 방법

가장 간편하고 대표적인 장학금 기부방법은 1인1계좌 방법입니다. 매월 1만 원을 납부하는 방식인데 1인이 여러 계좌로 전환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1인1계좌 모금운동에 참여를 원하시거나 1인 여러 계좌로 증자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행지 마지막 페이지의 약정서나 편지에 동봉한 약정서를 작성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동창회 사무실로 송부하시거나 접어서 우체통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이 액수에 관계없이 직접 기부금을 납부하시는 방법인데 납부하는 곳이 경북대 발전기금 사무실과 경북의대 동창회 사무실로 이원화 되어 있고, 관리하는 곳과 사용용도, 기부금 적립 방법이 달라서 간혹 기부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곳과는 다른 곳으로 기부금이 들어가 의대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적립되지 않는 일이 생겨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1. 경북대학교 발전기금 사무실을 통해 내시는 경우

가.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지 않고 일반기금으로 내면 100% 경북대 사업에 사용되고 경북대 발전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의과대학에 쓰이길 원하시면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나. 의과대학이나 각 교실로 지정하면 10% 공제해서 경북대 발전기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90%가 의과대학이나 각 교실에서 사용되고 의대발전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다. 의대장학기금으로 지정하면 100% 경북대에서 관리하면서 경북대가 의과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의대 발전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나, 다 의대발전기금은 과거의 경북대 자료가 부정확하여 일단은 동창회 장학기금 액수에 합산되었으나 일부가 정확하지 않아 계속 수정 중임)

### 2. 의과대학 동창회 사무실을 통해 내시는 경우

가. 장학기금으로 내시면 동창회 장학회에서 관리하며 장학금과 의과대학 지원금 등으로 사용되고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나.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내시면 동창회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각종 동창회 사업에 사용되고 장학기금으로 적립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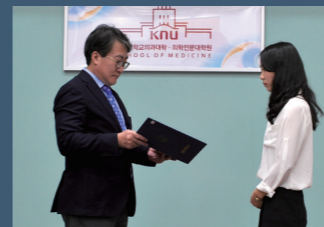
## 장학금 수여 방법

2015년까지는 모든 장학금이 경북의대 동창회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수여되었으나 올해부터는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장학금을 내신 분은 원하시는 경우 이름을 붙여 수여할 예정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5회 정현주가 1,000만 원을 냈을 때

1. 2명에게 한 번에 ; 경북의대 동창회 55회 정현주 장학금으로 2명에게 수여
2. 매년 1명에게 ; 경북의대 동창회 55회 정현주 장학금으로 매년 1명에게 2년간 수여
3. 1,000만 원을 다 지급하고도 이어서 매년 500만 원을 계속 내면 55회 정현주의 이름으로 매년 수여됩니다.
4. 지정기탁 ; 본과 1학년 자기 아들과 또 한 명의 학생을 지정하면 그 두 명에게 수여

(장학기금은 장학회에서 예산을 짜서 장학금과 의과대학 지원금 등으로 쓰이므로 올해는 1,000만 원 내시면 실제로는 800만 원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상당액의 장학금을 북미주동창회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 인원 수의 학생들에게 경북의대 북미주동창회 명의로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미주동창회에서 특별히 그동안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을 선정해 주시면 그분들의 성함을 붙여 수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의대 북미주동창회 28회 여용연 장학금, 경북의대 북미주동창회 31회 강 반 장학금 같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은 경북의대 동창회 2016년 학부모 000 장학금으로 수여하겠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봄, 가을로 두 차례 있습니다. 납부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이 발급되고,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장학금을 내신 분은 의과대학 현관에 명패 부착, 동창회장 감사패 증정, 장학금을 받은 학생과의 mentoring system을 통한 감사 편지, 안행지 동창회 장학기금 현황에 합산 등 다양한 예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을 위한 현관 명패 부착 장소와 안행지 장학기금 현황 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의대 동문 여러분, 대한민국 3대 명문 의과대학의 하나인 경북의대가 계속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모교가 계속 발전하고 우수한 후배들이 배출되어야 우리의 자존심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크든 작든 십시일반으로 장학기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동문 선후배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경북의대 동창회 장학이사 정현주  
 장학회 재무이사 김숙영  
 동창회장 송중원 드림



## 장년부 강창수 동문

1962년 모교를 졸업한 후 동산병원 정형외과 과장,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한고관절학회 회장, 대한정형외과 학회장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다가 2000년 8월 퇴임 후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강창수(30회) 동문을 찾아 졸업 50주년 방문의 후속 사업으로 재학생 후배들에게 노벨의학상에 대한 꿈과 도전을 유도하기 위해 '창조적 아이디어와 논문 시상식'을 제안하고 추진하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안녕하십니까? 요즘 근황부터 여쭙어도 되겠습니까?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학회에 참석하며, 논문을 찾아보는 일상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졸업 50주년 방문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재학생 후배들에게 노벨의학상에 대한 꿈과 도전을 유도하기 위해 '창조적 아이디어와 논문 시상식'을 제안하고 추진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당시 제안 취지와 경과를 한 번 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매년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첫 노벨상이 나올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졸업 50주년 기념 문집 발간을 위해 동기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의 일부를 더 귀하고 값진 곳에 쓰고자 고민을 하던 중, 재학생들의 미래의 꿈을 격려하기 위해 아이디어와 논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논문과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도 놀랐고 노벨상의 꿈을 심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도 갖게 되었지요.

### 모교에서 좀 더 빨리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나 교과과정이 필요할까요?

노벨 의학상 수상은 결코 뛰어난 개인이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와 패기가 있는 젊은 교수들이 함께 조를 이루어 연구하고 분석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총명한 학생들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미래를 위한 더 좋은 투자가 되겠지요. 일본의 경우, 노벨상 수상이 나온 동경대를 교토대가 추월했고 뒤이어 나고야 대학까지 교토대를 추월하여 세 번의 역전 수상 상황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치밀하고 분석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여 한의사가 개똥속 약초에서 말라리아 약을 개발하여 노벨 의학상을 받은 예를 보면 우리에게도 분명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초의학을 더 디테일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선생님께서도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가까이서 보면 학자로서 기품과 열정이 넘치십니다. 새로 교수생활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FOCUSING, 자신의 방향을 정했다면 정확하게 과녁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건전한 사고와 단단한 마음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 건강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일찍 자고(10:00 pm), 일찍 일어나고(4:00 am), 성경말씀 묵상과 새벽기도, 새벽의 냉수 한 컵, 사과 하나, 30분간 보행, 식사는 적게.  
(영국 속담 An apple a day, Keeps doctor away.)

### 동창회 차원에서 원로 선생님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까?

동창회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후배들이 잘 성장해서 훌륭한 거목들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한 것 외에 수상자 8명의 칼라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창조적 우수 논문상 2명, 창조적 아이디어상 6명, 총 8명의 자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 약력

- 1935년 3월 27일생
- 1962년 2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71년 8월 대구 동산병원 정형외과 과장
- 1981년 3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1992년 5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 1994년 11월 대한고관절학회 회장
- 1999년 10월 대한정형외과 학회장
- 2000년 8월 정년퇴임
- 2012년 1월 여수 애양병원 재단이사(현)





## 청년부 황정한 동문

고향 상주에서 지역을 대표할 만한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사랑과 정성을 바탕으로 건강장수 100년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만들어가는 황정한(54회) 동문을 찾아 그의 경영철학과 고액의 장학금을 모교에 기부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의사로서 그의 삶의 철학을 들어봅니다.

취재 \_ 김인겸 직전 공보이사

태어난 고향 상주에서 지역 대표 종합병원의 이사장이 되셨습니다.

감회가 어떠신가요?

고등학교 졸업 후 잠시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작은 연탄광에서 자취를 했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주인 아주머니가 연탄광을 비우고 제게 그 장소를 내어 주었지요. 바닥이 흙이라 그 위로 냉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송판과 각기목을 사서 바닥에 5cm 높이의 송판 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비닐 장판을 깔아서 잘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 위에 전기장판을 깔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탄광의 크기는 1×2m 넓이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후 기침이 지속되고 식은땀이 많이 흘러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라고 했습니다. 약 9개월 간의 요양을 했고 그 기간 중에 의과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으며, 의사가 되어 병원을 만들고 장학사업을 해야겠다는 꿈을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지요.

지역 종합병원 이사장이란 직책이

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에 대한 봉사과 병원의 경영 양 측면을 잘 조율해야 할 것 같은데,

이사장으로서 '경영 철학'을 좀 말씀해주세요.

상주성모병원의 경영이념을 200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바탕으로 건강장수 100년을 선도하는 병원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좀 더 심플하게 제가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상주시민에게는 삶의 안식처가 되고, 우리직원 모두에게는 삶의 터전이 되고 동시에 상주성모병원이 상주시민에게 좋은 이웃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이웃이란 경제적 독립(병원의 재정적 건전성), 병원의 자원을 지역민의 치료가능 향상과 진단가능 향상을 위해 쓰는 것, 지역민들의 질병치료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경제적(적은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응급환자의 처치능력과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 등입니다.

36년 전 의예과에 입학할 때가 너무나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동기 140명 대부분이 대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고,

약 5명 정도가 지금의 경북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선생님이 김천고, 제가 문경중고 출신으로, 둘 다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하여 학교에 많은 액수의 장학금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지금의 학생들은 잘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 당시는 자취도 2~3명이 한 방에 자취를 하던 시절이었지요. 대구에 처음가서 방을 얻기 위해 다니는데 좀 괜찮은 곳은 10달에 40~50만 원, 보통은 30만 원 정도했지요. 방값을 1년에 10만 원 정도 목표로 방을 찾고 있었고, 다행히 조야동에 부엌 딸린 방을 1년에 20만 원에 얻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와 그곳에서 자취를 2년 했습니다. 본과 1학년까지는 어느 정도 성적이 괜찮은 편이었지요. 제가 본과 1학년 다니던 그때 특히 시골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어 본과 2학년부턴다 수업을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3학년 초부터는 수업을 거의 듣지 않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중간고사도 반 정도를 아예 시험을 치지도 않았습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를 포기하고픈 심정이었습니다. 좋은 의사, 실력있는 의사가 꿈이었는데 친구들과 허송세월하다가 조금씩 자신감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상실한 상태-절망감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흘러보내고 있었습니다. 반 총대가 저를 찾아와서 학교 좀 나오라고 하고 지도교수 전재복 선생님이 저를 직접 찾으시고, 만나보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공부해도 늦은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지 않은 것은 추시를 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 모교의 그런 정신이 없었다면 저는 의사의 꿈도, 병원의 꿈도, 장학사업의 꿈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저의 경험이 모교에 작은 정성이나마 기여했다면 하는 마음으로 이어졌고, 또 그 돈이 저처럼 방황할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객 장학금을 기부하신 동문에 대한 예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 의견은 제가 마땅히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동창회가 동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경북의대 졸업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의대 교육과정 중에 경북의대의 전통과 가치를 좀 더 보강하는 방식은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좀 더 존경받고**

**사회지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환자에 대해 그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문적으로 계속 배워야 하는 것과 동료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내가 치료하는 것이 그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같은 구성원이 그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전문화된 집단이 치료하는 것이 좋은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의사는 공평하지 않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주요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교육으로 인해 경제, 저출산, 노인빈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하여 건전한 사회관과 국가관, 그리고 인생관이나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탐욕과 증오를 키워 범죄가 일상적인 사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약력**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
-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 상주경찰장학회 이사
-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전국중소병원협의회 학술이사
- 남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현 의료법인 삼백의료재단 이사장

**서울지부**

제공\_재경 경북의대 동창회 박민해(53회) 부회장

2016년 2월 20일, 재경 경북의대 동창회 정기총회를 프레지던트 호텔 모쥬트룸에서 여러 선배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 대구본부에서 지용철 회장님과 송중원 수석부회장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고, 재경 경북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전 사무총장이셨던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과 현 김성준 사무총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배수동(19회(졸업기수)), 최수년(27회), 나진훈(29회), 이상석(29회), 김규호(30회), 이태열(34회), 도종웅(35회), 이창수(36회), 안영규(37회) 동문 등 많은 선배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1부 정기행사와 석찬 후 2부행사로는 각 지역별, 병원별 동창모임의 대표가 서로 각자 모임들의 소개와 인사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이어졌고, 내년모임을 기약하며 아쉬운 이별을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의 25개구 중 3개구에서 각 지역 의사회장을 저희 경북대 동문들이 맡아 열심히 의사회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이영환(46회), 동대문구 허성욱(48회), 서대문구 임영섭(49회))  
\*최근 파악된 바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우리 의대 동문들이 약 1,000여 명(졸업생, 수련의 포함)이 있어 더 열심히 지속적으로 조직을 잘 관리하고, 관심과 참석을 독려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재경) 동창회 소모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단은 모임 회장, 총무님)

- 여의사회 : 이향주(56회), 서문정(64회)
- 강서, 양천 : 정수영(51회), 이형욱(53회)
- 인천 : 김동철(54회), 홍성표(55회)
- 강동, 송파 : 최원준(60회), 조경자(61회)
- 일화회(영등포, 구로, 광명) : 남성지(47회)
- 이월회(강북, 도봉, 노원, 상계) : 최원철(58회)

강남, 서초 : 이정국(49회)  
동대문, 중랑(서북모임) : 박치구(48회), 라환도(65회)  
은평, 서대문, 마포 : 임영섭(49회), 황장용(51회)



**부산지부**

2016년 2월 23일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제72차 부산동창회 정기총회, 제42차 경의금고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제35대 김성학(41회) 회장 집행부가 물러나고, 제36대 새 집행부의 회장으로 박재우(43회) 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본부동창회 지용철(43회) 회장님과 송중원(49회) 차기 회장님도 참석하시어 총회를 빛내주셨습니다. 각 회원에 대한 공로상, 표창장 수여, 또 금년에 회갑을 맞은 회원에 대한 기념품 증정이 있었습니다. 2부 진행에 있어서는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고 경품 추첨으로 한층 분위기는 고무되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전체 회원 수가 늘지 않고 있다는 사

실입니다.  
과거에 부부 동반으로 총회장 가득했던 활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동창회도 고향사회로 진입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상황을 따라가니 피할 수는 없을 일입니다.

**새 집행부의 각 임원을 소개합니다.**

- 제36대 부산동창회 임원(2016~2018)
- 회장 : 박재우(43회) 010-7222-8275
- 부회장 : 김재도(44회) 010-6650-6239
- 부회장 : 석광호(45회) 010-3247-3301
- 총무이사 : 이영택(48회) 010-9372-7294
- 부총무 : 이재성(49회) 010-3571-6238
- 부총무 : 조정현(49회) 010-3861-7566
- 재무이사 : 이용석(48회) 010-3592-4430
- 공보이사 : 손혜경(48회) 010-3558-5408
- 경의금고 이사장 : 박재우(43회)
- 경의금고 부이사장 : 김재도(44회)
- 경의금고 재무이사 : 정순용(48회) 010-8980-0726
- 감사 : 최광호(47회) 010-3885-3116
- 감사 : 이대운(47회) 010-9544-3632
- 카페관리 위원장 : 김인영(51회) 010-8423-1397
- 카페지기 : 김상귀(59회) 010-3808-5369

**부산동창회 각 분구 임원 명단**

- 서, 사하, 강서구 : 회장 김재홍(52회) 010-9314-2288, 총무 최경희(55회) 010-8984-9240
- 중, 영도구 : 회장 이용석(48회) 010-3592-4430, 총무 강성희(51회) 010-3860-9088
- 동구 : 회장 백총기(26회), 총무 최정옥(56회) 010-2577-2534
- 부산진구 : 회장 고병구(46회) 010-3874-1133, 총무 김태무(61회) 010-3814-6018
- 동래, 연제, 금정구 : 회장 김재도(44회) 010-6650-6239, 총무 하정환(56회) 010-5068-8275
- 남, 수영구 : 회장 천만희(49회) 010-9733-7712,

- 총무 손성대(59회) 010-9049-4023
- 북, 사상구 : 회장 남상승(49회) 010-7196-8399, 총무 정석호(57회) 010-6258-0825
- 해운대, 기장 : 회장 김종규(53회) 010-3867-3528, 총무 정진욱(57회) 010-6555-4210
- 고신의대 : 회장 류현열(46회) 010-4567-6259, 총무 허정호(63회) 010-2501-2896
- 침례병원 : 회장 김광렬(48회) 010-3867-5436, 총무 정민희(60회) 010-2571-0462



**울산지부**

제공 \_ 김규호(61회) 총무

경북의대 동창회 울산지부는 2015년 10월 13일 남구 분회 모임을 삼산동 가연횃집에서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으며, 10월 16일에는 중구, 북구 울주군 동강병원 분회 모임을 중구 정원식당에서 십여 명의 회원들과 가졌습니다. 이어서 10월 20일 동구 울산대병원 분회 모임을 동구 하림각에서 십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의 막바지인 12월 15일 송년회 모임은 펠리체웨딩 컨벤션에서 50여 명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016년 2월 16일 정기이사회 모임에서는 3월 15일에 2016년도 정기총회 개최를 준비하기로 하는 등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동해지부**

제공 \_ 송준화(57회) 총무

**1. 정기총회**



2016년 2월 16일 저녁, 영일대해수욕장(구,북부해수욕장)에 위치한 베스트웨스턴 포항호텔 6층에서 경북의대 동창회 동해지부의 정기총회가 열려,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애를 나누었으며 신임 집행부도 선출하였습니다.  
권세일(49회) 회장을 위시하여 최고 원로이신 이경수(29회) 동문, 신은식(30회) 동문, 김세현(30회) 동문, 이날 제일 먼저 행사장에 도착하는 열의를 보이신 김형우(33회) 동문, 최호섭(34회) 동문 등 기라성같은 선배 동문님들과 이날의 막내인 장유석(69회), 이경근(71회) 동문 등 총 47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본부동창회 회장단 지용철(43회) 회장, 송중원(49회) 부회장, 강인규(51회) 부회장께서 총회 시작 30분 전에 도착하여 동해지부 정기총회를 축하해 주셨으며, 김광만(51회)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께서도 참석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포항시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배성곤(58회) 동문도 참석하였습니다.  
맛있는 뷔페식사를 하며 우애를 나누었고, 이인태(56회) 총무

의 사회로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권세일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지용철 총동창회 회장께서 격려사를 하셨으며, 이인태 동문에게 총동창회로부터의 공로패를 전달하셨습니다. 송중원 부회장에서부터 동창회 사업에 대한 관심과 장학기금 참여에 대한 당부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회장님 주제로 2015년 정기총회 회의보고가 있었으며, 감사, 회무 및 결산 보고가 별다른 의의없이 유인물대로 통과되었고,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임원개선 순서로 넘어가 전형위원회에서 선임한 신임회장 이경민(51회), 총무 송준화(57회), 감사 이인태(56회)가 추천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권세일 회장님, 이인태 총무님의 헌신과 도움 덕분에 동문회가 잘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임집행부도 이를 본받아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는 동문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경조사**

- 박송훈(46회) 장남 결혼
- 정병기(56회) 부친상, 박혜경(57회) 시부상
- 최호섭(34회) 모친상
- 김종연(53회) 부친상
- 박주성(45회) 부인상

**3. 동해지부 카페운영**

다음 주소로 경북의대 동창회 동해지부의 카페를 운영하오며 방문을 환영합니다.

<http://cafe.daum.net/knumedeastsea>



### 재경주 동문회

제공 \_ 정석현(59회) 총무

유경재 새천년병원장이 재경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신임회장에 선출되었다.

재경주 경북의대 동창회는 2016년 1월 18일 경주 백미항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유경재 동문(제51회)을 재경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 경북 북부지부 창립

제공 \_ 최영환(56회) 회장



총동창회장 축하



북부지부 회장에 선출된 최영환 동문

지난 4월 5일(화) 안동에서 경북의대 북부지부 동창회 창립 총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대구 총동창회에서 송중원 회장님과 이사님들이 참석해서 축하와 격려를 해주셨고, 북부지역에서는 31회 최중두 동문부터 75회 김지훈 동문까지 안동, 영주, 예천

에서 45명의 동문들이 참가하여 동창회 창립을 축하하였다. 32회 신현수 동문과 51회 김재왕 동문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회에 참석한 내외빈과 모든 동문들은 경북의대 북부지부 동창회 출발을 축하하며 앞으로 모교와 동창회의 상호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다짐했다.

이어 회장으로 피선된 최영환(56회, 안동 최영환내과) 동문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경북의대 북부지부 동창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모든 일정을 끝낸 뒤에도 동문들은 짧은 만남을 아쉬워했으며 동창회 창립총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쁨과 축하 속에 발족된 것에 대해 뿌듯한 감회를 느끼는 환한 표정이었다.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총동창회와 긴밀하게 연락해서 모교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신현수 동문 축하



경상북도지사회장 김재왕 동문의 축하

### 28회

제공 \_ 김재식 동문



2015년 10월 동창회 등반대회에 김희교, 노수열, 김재식 동기 3총사가 참가하여 노익장을 과시하였다.

슬픈 소식은 2015년에 우리 곁을 떠나간 미국 피츠버그의 김성규, 우리 동기 중 유일점이자 만인의 연인이었던 오덕희 동기, 마산의 한근섭 동기의 서거이다. 남은 동기 모두가 정중히 명복을 기원한다. 최근 유명을 달리한 동기들의 부음도 있다. 부산의 정웅국 동기의 부인상 그리고 부산의 김창배와 영주의 김해진, 민종기 동기이다. 이제는 늙어서 소식도 없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세상을 떠났다. 인생은 무상하다고 했던가?

그밖에는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대부분의 동기들은 늙어서 표는 안 나지만 비교적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대구의 윤영길 동기는 동기 김재식 모교 명예교수에게 특별 위로격려 쪽지를 전하는 여유도 보여 큰 힘을 주었다.

김재식 동기는 제4회 대한민국 독도문예대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5년 대한민국 춘계 기초의학학술대회에서 포스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두 번째 수필집 '사랑과 낭만과, 자유 그리고 건강'을 출간한 그는 정년퇴임 후에도 계속했던 학생강의(의사학) 본강의를 금년으로 종강하고, 교지(雁杳) 편집부(학생) 고문지도교수로 그리고 동창저서전시회를 13차에 이르기까지 주관하고 있어서 죽을 여가가 없다고 한다. 금년에도 전국기초의학종합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할 준비도 하고 있다. 회복한 교지 제명과 관계있는 '행운'의 모체 삼영(衫影, 프린트판-등사)지를 찾고 있다. 제보를 계속 간청하고 있다.

미국의 이상국 동기의 헌신적인 기여로 3월에 세계졸업동기

회지를 주간하며, 대구의 부인동기회를 통하여 중단된 본 동기회(회장 박진홍, 총무 이재규)를 대체하는 현실이 되었다. 살아있는 28동기들의 행복한 여생과 가정의 막바지 행복을 축원하는 바이다.

### 36회

제공 \_ 박도수 총무

2015년 12월 4일 저녁 영남별장에서 동기회 총회를 가졌고, 전년도 회장 장기용, 총무 강병조 동기가 수고했으며 2016년은 회장 강병조, 총무 박도수가 회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총회에는 장기용, 강병조, 권국현, 조석재, 염덕준, 정수광, 백용현, 박도수 총 8명이 참석해서 여느 해보다 좋은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막상 회무를 인계 받고 보니 걱정이 앞서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다름이 아니라 전통으로 내려오는 졸업 50주년 행사가 불과 2년 후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선배기수에서는 미주회원과 국내회원 다수가 참여하여 거액을 모교에 기증하고 기념행사 및 여행을 하는 등 활발히 행사를 치렀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36회 동기회는 졸업동기가 62명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거기에다가 또 그중 반 정도는 미국에서 거주하여 불리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현황은 졸업 후 62명 중 미주에 27명, 국내에 35명이었다가 현재는 미주에 22명, 국내에 30명, 작고회원 9명, 행방 1명인 실정입니다.

현재 고향인 대구에는 12명이 고작이니 총회를 한다 해도 6~8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동기생 30명 중 지역별 현황은 대구가 12명, 경북지역 7명, 서울 경기지역 6명, 부산 경남지역 5명입니다. 국내 동기생 중에도 최근 연락이 두절된 동기가 여러 명이 있어 총무가 파악하고 연락하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주에 22명의 동기생들이 있으나 서로 지역이 다르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몇몇 회원들은 아예 연락이 끊어진 동기도 있는데, 그나마 장세환, 박상태, 최연일, 최송자, 박찬훈, 김병



옥 등 동부에 거주하는 동기들은 매년 정초에 따뜻한 플로리다로 골프 원정도 가고 연례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LA에서는 송수일 동기가 개원도 잘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여 지역 유지로 유명하며, 많은 한국 친구들에게 환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나 아직 동기회에는 연락이 되지 않아 소식을 기다립니다. 동기생들 중 김주록과 문종천 동기는 캘리포니아주 서부 베이커스 필드에서 이웃으로 개업하여 재미있게 지내고 있고, 보스턴에 있는 최연일, 최송자 부부는 딸이 사는 근처로 집을 장만하여 외손자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희 동기는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이사를 했다고 들었고, 홍대순 동기는 선교사업 때문에 외유 중에 지난해 대구에 들러 동기생들과 만찬을 갖고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 외에 미국에 있는 동기 중에 한국에 한두 번 다녀간 사람도 있으나 아직 한 번도 오지 못한 동기생들도 있어 다들 많이 보고 싶어하니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장세환 동기는 E-mail로 미국과 한국의 동기생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하는 사람이 없어 흥미를 잃었다고 합니다. 한편 고향인 대구에서 아직 개원하고 있는 동기는 정수광, 엄덕준, 심청택, 박도수이고, 이영하 동기는 효성병원, 장기용 동기는 왜관병원 원장으로, 강병조 동기는 배성병원 원장으로, 권국현 동기는 한패밀리병원 원장으로, 이정범 동기는 경대 보건진료소 소장으로, 노관식, 백철홍, 이규오, 조석재 동기도 요양병원 등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송풍호 동기가 경산에 늘푸른 요양병원(법인)을 개원하여 성업 중에 있으며, 최근 늦둥이 막내의 혼례를 서울에서 갖게되어 동기생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서울에는 이창수, 이동행 동기가 개원을 계속하고 있고, 정희

자 동기는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연락이 없어 찾고 있습니다. 정영기 동기는 한림대 교수와 대한정형외과학회장도 역임을 했는데 동기회에는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홍 동기는 경기도에서 내과로, 김무룡 동기는 경북 영주에서 외과로 개원 중이고, 경북 울진에서는 백용현 동기가 울진의료원장직을 마치고 울진요양병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포항에는 견일수 동기가 송라요양병원장으로, 문시연 동기는 로템요양병원장으로, 장신형 동기는 고려요양병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부산에는 박형규, 박노춘, 손건부 동기가 여전히 개원 중이고, 최근에 손연우 동기가 경남의 요양병원으로 근무를 위해 내려갔고, 거창 적십자병원 명예원장 허진철 동기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36회 동기는 주로 미주 회원들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그 빌미로 동기회를 자주 가지니 미주의 많은 동기들은 좀더 자주 방문을 하여 동기들이 자주 만남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는 동부지구 재미 36회 동기들이 금년 2월 4일 플로리다에 모여서 골프도 치고 즐겁게 놀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은퇴하고 골프로 건강을 유지하고 즐겁게 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던 동기들의 연락을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가내 행복을 기원하며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합니다.

### 43회

제공 \_ 조영철 총무

2015년 10월 24일 정덕수 동기 장녀의 결혼식이 있었으며, 10월 25일 개최된 의과대학 동창회 등반대회 행사에는 우리 동기회에서 가족 포함 16명이 참석하여 건강도 도모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2월 19일에는 한해를 보내는 동기회 연말 모임을 열어 타 지역 동기들까지 참석하여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명의대(흉부외과 이광숙, 피부과 이규석, 방사선과 우성구), 경북의대(생화학 박재식, 산부인과 전상식)에서 여러 동기가 정년퇴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동기회의 자랑이던 지용철 총동창회장이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습니다.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 51회

제공 \_ 강인구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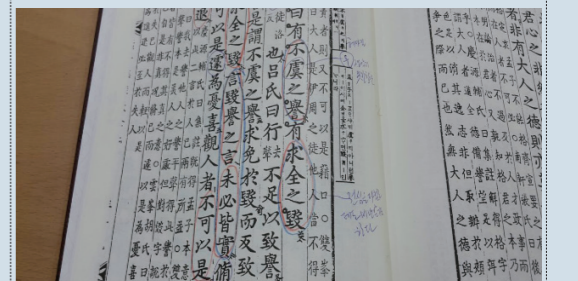
1. 2015년 10월 25일 동창회 등반대회 : 청룡산 7명 참가
2. 2015년 11월 23일 훌네월 정기모임 : 어담 29명
3. 2016년 1월 5일 네이버 밴드 시작 <http://band.naver.com/n/afa509yf19m3Q>  
현재멤버 83명
4. 2016년 1월 16일 정기총회 : 자금성 27명 참석, 회장 손희철, 총무 강인구
5. 결혼 : 박성민/한금주 장녀(2016.1.23)



- 이성희 장녀(2016.1.24)  
손희철 딸(2016.2.19)  
6. 부고 : 장내원 모친상(2016.3.3)  
7. 인사 : 권중혁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2016.2.1)  
이경민 동창회 동해지부장(2016.2.16)  
8. 異色 취미  
김동석 : 수십 년간 해외학회 때 모은 목공도구로 가득찬 소공방



강구정 : 서양의 고전이라면 그리스 로마신화와 성경, 동양의 고전이라면 사서삼경이 그 근처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근수년 동안 4서3경 공부하는 데가 있는지 찾다가 가까이 좋은 곳이 있음을 알고 관심있는 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장소 - 향교  
일시 - 매주 월, 화 오후 7시~8시 30분  
내용 -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한 권씩 계속 강독해나갑니다. 수십 년째, 지인의 소개로 저는 지난해 5월부터 나가게 되었는데 이번주까지 맹자 2권 중 전권을 마쳤어요. 좀 어렵긴 한데 유익한 지혜를 많이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60여명의 학생들 평균 연령이 70은 될 듯.  
관심있는 동기들 함 와보이소.



54회



제공 \_ 손효돈 회장

지난해 12월 19일 범어동 라온제나 호텔에서 약 60여 명의 동기 및 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54회 졸업동기회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회무 및 재무 감사보고와 신임 회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식전 행사로는 오성열, 김수동, 이상민 세 명의 동기들의 성악 공연이 있었습니다

신임회장으로는 손효돈 동기(효경산부인과의원), 총무는 김건오 동기(로즈마리여성병원), 그리고 감사는 박순원 동기(박순원 S&B의원)가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레스토랑 '작은 프랑스'에서 첫 이사회 모임을 가졌으며, 3월 5일에는 웰빙 한정식 '안압정'에서 동기 20여 명이 첫 동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5월 5일부터 4일간의 연휴기간 동안 일본 교토와 오사카로 졸업 30주년 기념 부부동반 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조사 부친상 : 김병근, 김동훈, 정홍우, 김건오, 지용대 동기



58회



제공 \_ 박남일 회장

작년 5월 홈커밍 행사 이후 동기회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열기가 때마침 불어닥친 전국적인 메르스사태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뜻있는 동기들이 지난 10월부터 야간 등반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이기 시작한 58회 동기회 야간등반은 매월 1회씩, 3번째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의 첫 번째 행사는 갑작스런 우천으로 인해 막걸리 집에서 인증샷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불운도 있었으나 오히려 2회째부터 등산활동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11월의 앞산전망대, 30년만의 강추위 속에 강행한 12월의 고산골, 올 1월의 범어뒷산에 이어 2월의 다시 앞산전망대 등으로 이어진 행사에서 진료를 마치고 한정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동기들의 모습에서 잠시나마 20~30년 전 학창시절의 순수했던 한때를 떠올리며 오늘의 삶에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60회



제공\_ 김대혁 동문

2015년 12월 5일 경북의대 60회 동기회 정기총회가 대구광역시 지금성 중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40여 명의 동기회원들이 모여 정담을 나누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고, 홈커밍행사를 준비하게 되는 신임 동기회장으로 이태현 회원(사랑모아통증의학과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고 김길동 동기의 외동딸 김지은 양의 장학사업에 대한 보고도 있었는데, 많은 동기회원들의 성원으로 지금까지 5,837만 원이 모금되었고, 총 10회에 걸쳐 3,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학금 모금은 2010년 12월부터 시작되었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한 학기에 300만 원씩 보내고 있으며, 장학금은 대학 졸업 때까지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016년 1월 18일에는 홈커밍행사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동기회 회장단과 59회 총무 정재균 선배님과 저녁모임이 동보성 중식당에서 있었습니다. 2016년 1월 22일에는 재경 8660동기회 신년모임이 있었고,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동기들이 모여 화합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식

제공 \_ 교무부원장 **최제용**

## 의예과/의전원 신입생 입학 및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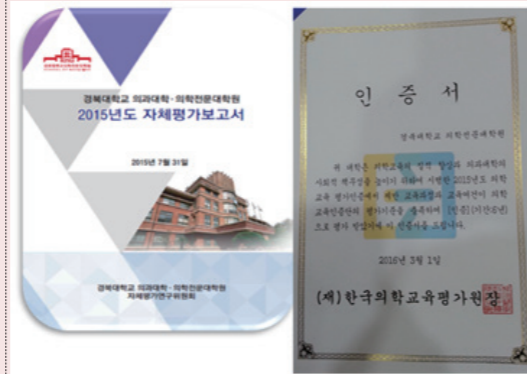
2016년도 전년대와 같이 의전원생과 의예과생을 함께 선발하기 때문에 2월의 찬 날씨에도 대학 교정은 분주해진다. 2016년도 의예과는 동점자 때문에 한 명 더 늘어 78명, 의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전형 1명 포함, 110명을 선발하였다. 올해 의전원 선발은 마지막으로, 학생 110명 중 대구경북지역 대학 졸업자가 24명(22%)이었고, 2015년(32명, 29%)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의예과 오리엔테이션(2.27~28)과 의전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2.15), 골학캠프(2.16~19) 그리고 새터 행사(2.20~21)가 있었다. 그 외 교학간담회(2.16) 및 3학년 PK 진입식(2.19)이 있었다.

2015년 학생 국제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버드 의대(3명), 오사카시립대(1명), Metropolitan Medical center(1명), Penn State Hershey(1명), 브리지포이트 병원(1명), 하마마츠의대(4명), 마히돌의대(8명)로 학생들을 파견하였다. 마히돌 의과대학의 학생 5명이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경북대병원에서 4주간의 clerkship을 마치고 돌아갔다.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실사 및 최우수 인증 획득

2015년은 우리 대학이 5년 주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의학 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는 해이다. 2015년 초부터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만들어 많은 회의와 자료 수집, 분석, 평가를 하여 '대학운영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등 6개 영역에 97개 평가 문항에 대한 답을 자체평가보고서(200페이지) 형태로 만들어 7월 말에 제출하였다. 평가원에서는 6명으로 구성된 평가인증실사팀을 파견하여 2015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의대에 머물면서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평가받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함을 모두 공감하였다. 그리고 올 1월 말에 좋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최우수, 6년 인증'을 얻었다.



## 서민규 의사국가고시 전국 수석

2016년 1월 14일에 치른 제80회 의사국가고시에서 서민규(84회 졸업생) 군이 전국 수석을 차지하여 교수, 학생 및 동문들 모두를 기쁘게 하였다. 박매자 원장님의 칭찬과 격려금, 그리고 손동철 총장(대행)께서 그동안의 수고에 대하여 격려와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나 우리대학은 110명 중 6명이 불합격하였다(94.5%). 전국 평균(93.5%)보다는 조금 나았으나 실기에서 4명이 불합격한 것은 다소 충격이었다. 자세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 84회 졸업생 110명 중 52명이 경북대 병원을 택했고, 파티마(2명), 공중보건의(12명), 휴식(3명), 개인병원(2명) 그 외는 수도권과 기타 지역으로 인턴을 결정하였다.

## 2015년 동계의학교육 세미나

2015년 동계의학교육 세미나(2016.2.4, 인터불고 호텔)에서는 2015년 하반기에 있었던 학교 일들을 보고 점검하고, 2016년의 주요 학교교육의 추진계획을 토의하였다. 교수업적 평가 결과, 평가인증 내용 중 미충족 항목, 대학원 운영, 의생명과학관 활용 계획, 중개연구센터 설립, 의학교육관련 규정집 정리 등을 소개하였고, 전체교수회의로 성적 사정과 기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의결하였다.



## KNU 의생명융복합 창의인재양성 사업단,

2015 BK21 플러스 단계평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 교육부가 수행하는 우수 대학원 인력양성 사업으로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어 인건비를 제공하는데, 전국 대학이 과제를 수주를 위해 사활을 걸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이 과제를 받지 못하면 교수 개개인의 연구비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의 연구력에 큰 차질이 생긴다. 우리 대학은 권태환(단장, 생화학세포생물학 교실) 교수를 중심으로 참여 교수들의 연구 실적과 참여 학생들의 교육 실적을 잘 준비하여 2015 BK21플러스 단계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2단계(2015.9.1.~2020.8.31)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주하였다. 이 과제로 2016년 1학기 기준, 참여 대학원생들 총 97명 중 67명(의과학과 석사과정 50명 중 35명, 박사과정 47명 중 32명)의 인건비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4년간 의과대학 기초교실의 연구력 증진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1,295,280(천원)이며, 총 26명의 기초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 학술행사

경북의대-하마마츠 의대 공동학술대회 (2015.10.5~7)가 우리대학 중앙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하마마츠 의대에서 26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진행하였다.



2015년도 교원성과급적 연봉제 시행

2015년은 기성회계 부분이 없어지고 대학회계로 전환되면서 연봉제로 바뀌는 원년이다. 또한 교수들의 기존 월급 중 기성회계 부분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라는 항목으로 교수업적 평가를 한 후 차등 지급하게 되었다.

인사

- 퇴임교수(2016.2.29) : 박재식(생리학), 전상식(산부인과), 함인석(신경외과)
- 면직교수(2016.3.3) : 장정훈(이비인후과)
- 신임교수(2015.9.1) : 강민규(방사선 중앙학), 김기수(예방의학), 김지윤(소아과학), 신민상(미생물학), 이재만(생화학-세포생물학), 정진형(외과학), 허성재(이비인후과학)
- 신임교수(2016.3.1) : 홍장원(생리학), 오지원(육안해부학), 이정현(의공학), 장세영(간장학), 장세용(심장학), 김은수(위장관외과학), 이수정(혈액중양학), 권형준(간담췌외과학), 이승수(위장관외과학), 이지연(유방갑상선외과학), 김준우(근골격계외상학), 이현주(수부상지외과학), 이정우(성형외과학), 황수경(소아신경학), 박숙현(신생아학), 김미주(산과학), 이준녕(소아비뇨기과학), 이소미(소아영상의학), 임재광(흉부영상의학), 함지연(임상병리학), 김세용(마취통증의학), 서종근(뇌전증학), 안재윤(소생의학), 민유선(재활의학) (24명)

기타

2016년부터 의예과 2학년들이 동인동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예과 2학년들을 위하여 학생회관 건물 옆 5층에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다. 그 외 학생 복지를 위해 학생회관에 '학생 건강관리-보건실'이 설치되어 필요한 경우 휴식과 간단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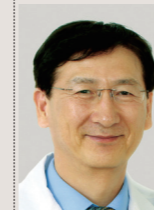
- 2015.10.24 의·치·간호대학 합동위령제
- 2015.11.2 의과대학 학생 체육대회
- 2015.11.4 교학간담회/교직원 체육대회
- 2015.11.6~7 의전원 입시
- 2015.11.21 2016년도 대학 논술(AAT) 고사
- 2016.1.13/18/20 KNU 오픈 캠퍼스 및 교학간담회
- 2016.1.19 졸업식, 제80회 국가시험 결과(1.20)
- 2016.2.19 PK 진입식 및 박사학위 수여식

김재식(28회) 동문 최우수포스터상 등 수상



2015년 5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3차 대한기초의학학술대회(기초 의학을 중심으로 한 융합연구 활성화)에서 대한의사학회 소속의 김재식 경북의대 명예교수가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와 한국의학' 포스터를 발표하여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김재식 경북의대 명예교수는 다산이 현대의학에 있어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평소 의사학강의를 통하여 발견하고, 다방면으로 연구하여 왔다. 또 김재식 명예교수는 제4회 대한민국 독도문제대전에 응모한 '독도는 죽어도 한국 땅이다'로 특별상도 수상하여, 평소 항일사상이 투철했던 애국자로서의 문학활동도 주목을 받았다.

박대환(48회) 동문, 세계미용성형외과학회 한국 대표 취임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성형외과 박대환 교수가 3월 1일 세계미용성형외과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이하 ISAPS) 한국 대표로 취임했다. ISAPS는 1970년 설립된 단체로 멤버십 간 최상의 표준 지침을 세우고, 전 세계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미션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다.

김재왕(51회) 동문, 경북 50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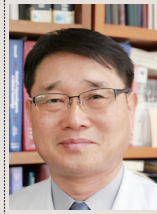
경상북도의회 김재왕 회장이 지난 4월 6일(수),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인 경북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50번째 회원에 가입했다. 이날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에는 경상북도의회 김재왕 회장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현수 회장,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안동시의사회 최경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왕 회장은 향후 5년 안에 1억 원 기부를 약속하는 회원 가입서에



서명했다. 김재왕 회장은 "나눔은 나와 이웃이 모두 행복해지는 인류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진료실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소외 이웃들을 만나오면서 그분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잘 알고 있기에 기부금이 지역 소외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찬 사회변화를 위해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왕 동문은 1983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경북대학교 의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1년부터 안동시 동부동 소재 김재왕내과외원을 개원하여 환자 중심 진료와 지역사회와 소외 계층들에게 따뜻한 의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인 7,000여 명을 진료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그 공로로 지난해 10월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사하메트레이 훈장 모하세나장'을 받았다. 2015년 4월 1일 제43대 경상북도의회사회장에 취임한 이래 도내 의료인들의 의료윤리 강화와 국민건강은 물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동국(52회) 동문,**

**대한신경과학회 35대 회장으로 선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경과 이동국 교수가 4월 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대한신경과학회 2016년 35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1982년 창설되어 현재(2016년 기준) 2,06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춘계/추계로 2년회의 공식적인 학술대회를 진행해 국민들의 신경 질병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정운(53회) 동문,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최정운 교수는 1월 28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13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정회원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기초 및 임상 분야를 포함한 의학 분야에서 현저한

업적이 있는 의학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석학단체로써, 현재 416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의학한림원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및 관련 분야 대학을 졸업하고 25년이 경과한 자이며, 해당 전문 영역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이 된 경우, SCI(또는 SSCI, A&HCI) 논문의 점수가 있는 자로서 심사항목의 총점이 250점 이상인 자에게 그 자격이 주어진다.

**박순원(54회) 동문, 대구법원 시민사법 위원 위촉**



중구의회 감사인 박순원 동문(박순원 에스앤비의원)이 평소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에 대구고등법원장으로부터 임기 2년의 대구법원 시민사법 위원으로 위촉받았다. 시민 사법위원회는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국민의 편익과 신뢰 제고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김대현(55회) 동문,**

**대한임상노인의학회 학술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가정의학과 김대현 교수는 4월 10일 열린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 노인에서 인지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 연구논문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대현 교수는 노동부가 실시한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에 참여해 2006년~2012년까지 전국 고령자 1만 254명의 인지기능을 조사 분석했다.

**안병철(58회) 동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2016년 9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 방사선진흥협회가 방사선 기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사선 진흥대회와 창립 3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경북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안병철 교수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에 탁월한 창의력과 숭선수범으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민복기(61회) 동문,**

**행자부 국민추천포상·중구청 쌀 전달**



민복기 올포스킨피부과의원 대표원장이 3월 2일 윤순영 중구청장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쌀 20kg 100포대를 전달했다.

2006년부터 10년간 22이 넘는 쌀을 지원해 온 올포스킨피부과는 저소득 자녀 흥터 재건술, 군 장병 무료 문신제거술, 장학금 전달, 경북대 발전기금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복기 대표원장은 2016년 행자부 국민추천포상,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행복나눔인상과 함께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보호에 이바지한 공으로 대구지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민 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이사,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이사, 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대한피부과의사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의료기술력 수출사업, 메디시티 대구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진용(61회) 동문, KJA 학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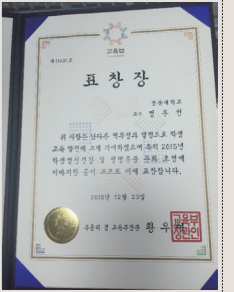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정진용 교수팀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제92차 종합학술대회에서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학술상'을 수상했다.

'Volume-controlled versus pressure-controlled ventilation-volume guaranteed mode during one-lung ventilation'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은 폐암이나 폐기종환자에서 수술을 위해 한쪽 폐로만 환기를 할 때 인공호흡기 종류에 따른 환자의 산소화 개선 정도에 대해 보고한 논문이다.

**정운선(67회) 동문,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여**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운선 교수는 교육부 지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센터장을 맡아 2015년 17건의 학생자살사건에 대해 전국 초, 중,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13,000여개의 전국 초중고 교장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 예방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연수 실시로 2014년 118건이던 학생 자살을 93건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여 '학생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2015년 12월 23일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 결혼

## 2015년

- 10월 24일 강동기(50회) 장남
- 11월 14일 서연경(49회) 장녀
- 11월 14일 황윤진(52회) 장녀
- 11월 15일 송광익(51회) 장녀
- 11월 9일 문중원(75회) 본인
- 11월 21일 배성일(52회) 차녀
- 11월 22일 장명익(41회) 차남
- 12월 12일 한기환(46회) 차녀

## 2016년

- 2월 14일 장세영(76회) 본인
- 2월 14일 백상현(44회) 삼녀
- 3월 12일 이관식(49회) 장남
- 4월 9일 손익경(46회) 차남
- 4월 10일 김성조(47회) 장녀



# 부고

## 2015년

- 10월 12일 권민재(69회) 장인상
- 10월 27일 안두홍(17회) 본인상
- 10월 28일 이승철(49회) 부친상
- 10월 28일 이준혁(68회) 부친상
- 10월 31일 장내원(51회) 장인상
- 11월 5일 곽동훈(63회) 부친상
- 11월 17일 신중원(57회) 장인상
- 11월 21일 조창민(60회) 부친상
- 11월 21일 전성우(64회) 부친상
- 11월 28일 문성두(55회) 장모상
- 12월 9일 이수형(62회) 부친상
- 12월 9일 이정호(64회) 장인상
- 12월 22일 김문섭(41회) 모친상
- 12월 30일 소원영(30회) 부인상
- 12월 31일 백인화(59회) 부친상

## 2016년

- 1월 4일 김병곤(54회) 부친상
- 1월 23일 이득국(52회) 부친상
- 1월 24일 이재창(28회) 부인상
- 1월 26일 금수미(61회) 부친상
- 1월 26일 장병희(35회) 모친상
- 1월 26일 권정희(72회) 부친상
- 1월 29일 안병준(65회) 부친상
- 2월 3일 정홍우(54회) 부친상
- 2월 4일 동상진(70회) 장인상
- 2월 8일 이성구(53회) 장인상
- 2월 11일 김동익(52회) 장인상
- 2월 12일 박범준(60회) 부친상
- 2월 14일 장원표(52회) 장모상
- 2월 19일 김승미(56회) 모친상
- 2월 20일 김건오(54회) 부친상
- 2월 29일 강경호(56회) 부친상
- 2월 29일 차승익(59회) 부친상
- 3월 3일 정진용(61회) 부친상
- 3월 3일 장내원(51회) 모친상
- 3월 13일 이순규(59회) 부친상
- 3월 17일 채의업(17회) 본인상
- 3월 26일 변진석(47회) 모친상
- 3월 29일 김인택(46회) 모친상
- 4월 6일 조호철(39회) 본인상



# 가정의학과위원에서의 환자진료 - 이미 많이 지친 환자들이

글 \_ 김재식(28회) 동문

우리 내외는 의사이다. 이젠 둘 다 늙어서 노의사가 되었다. 나는 조부 때부터 의(醫) 3대이다. 어른 때부터의 Y의원은 역사가 70년이 넘는다. 나는 대학병원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2차의료기관인 G병원의 과장을 거쳐 중소도시인 밀양의 Y종합병원의 과장 겸 명예원장직을 맡아 왔었다. 무궁화열차로 통근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 근무처로 생각하고 십수 년 개근을 하던 중 최근에 백세 노익장의 이사장이 취임 중 침대에서 낙상을 당하여 가료 중 합병증인 폐렴으로 작고하였다. 가족인 이사진이 뒤 수습을 못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판결과정에 있으나 이사진의 난립으로 폐쇄상태라 무한정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터이다.

2001년 2월 정년한 후 모교의 시간강사로서 강의는 그대로 하고 있다가 금년으로 종강을 하고, 자원 봉사로 관여하고 있는 2차병원인 G병원의 자문교수역을 맡고 있고, 외부활동으로 정년한 경북대 동료 과학교수들과 과우회의 초중고과학 특강을 주로 하고 있고 틈틈이 수필가로서 세 번째 수필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던 차에 아내가 간 종양으로 간 색전술을 받게 되어 할 수 없이 Y가정의학과위원의 진료를 보조하기에 이르러 결국 진료까지 하게 되었다.

현대는 컴퓨터진료를 하기 때문에 틈틈이 아내로부터 진료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환자들과도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루하루를 진료에 적응하고 있다. 가정의학과와 진료는 대부분 계절에 따른 감기, 몸살, 독감, 소화불량, 복통, 설사, 알러지성 피부염 등이어서 대체로 모든 임상과의 간단한 기본질환이다. 외과, 비뇨기과,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과와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등도 포함해서 일차적인 종합 내지 총괄진료를 해야 하는 다양성 때문에 골고루 전 과목을 효율적으로 진료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척 힘이 드는 진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임상병리과 전문의로서 필수 임상병리검사를 하면서 과학적 진료를 하고 있다. 근거 중심의 과학적 진료는 정확하고, 신약은 즉효성으로 정확하고 빠른 효과가 특징이라는 것을 체감하였다. 내가 근래 중국의 춘절(음력 설) 때 시안과 하얼빈의대와의 자매대학 체결시 흑한으로 재발된 기관지천식 때문에 그들이 준 치료약 만 가지가 모두가 무효였다(웃음).

조부 때부터 삼대의가로서 역사적으로 오랜 경험을 토대로 진료를 하는 경력이 풍부하고 대체로 이력이 나 있어서 잘 대처하고 있다. 정도가 다소 심한 환자는 가까이 있는 2차기관인 G병원이나 3차기관인

대학병원에 신속하게 의뢰를 하고 있다. 의식불명 환자나 초를 다루는 응급환자는 지급으로 구급차를 불러 3차기관인 응급의료센터에 황급히 후송을 하고 있다. 이런 때는 식은땀을 흘린다. 환자나 보호자보다 더 간이 탄다.

나는 대학에서 교육하던 습관 때문에 가정의학과와 특성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 위에서 진료의 내용을 나열해 본 만큼 진료의 실제에 있어서 필요에 따른 가정의학과 전문의 수련을 강화확대하고, 각 과별 전문진료에 대하여 골고루 깊이가 있는 세부수련을 잘 받아야 하고, 다방면으로 능통한 상태로까지 엄격한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련 후에 무의존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전의 각 과별 다수 전문의를 보내야 하던 것을 유능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두 사람만 보내도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가적으로도 인력수급에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환자진료에 임하여 환자들을 관찰하고 경험해 보니 1차기관의 수준에 맞게 환자들이 알아서 비교적 잘 이용해 주는 것 같아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미 심하게 지쳐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옛날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같이 일상 생활현장에서 일 때문에 이미 많이 지쳐 있고, 여기에 감기와 몸살이 겹쳐 있어서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환자를 통하여 우리의 사회상을 볼 수 있다. 결국 환자들의 대부분이 과로를 겪고 있어서 병도 잘 생기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그러므로 환자의 진료에 진찰과 검사 후 치료하는 과정이 단순하지만은 않고, 환자의 신상 문제도 곁들여 종합적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는 전인적인 통합진료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관계요소에 민생고 문제도 반영을 해주는 의사의 노력도 절실하고 환자를 내 몸같이 애정을 가지고 지극정성을 다하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성경에서처럼 '네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지당하고, 공자(孔子)의 인(仁) 사상은 실로 의는 인술(醫 = 仁術)이 아직도 통하는 것 같다.

환자를 전인적으로 진료하고 충분히 쉬도록 배려를 하고, 준응급 내지 준중환자 상태로 진료를 하는 여유도 필수적이라고 재인식을 한다. 지친 환자는 기본치료와 영양제주사도 필요하다는 것도 체험하였다. 환자가 기운을 차리고 싱긋이 웃으면서 나가는 뒷모습이 아름답기까지 하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진료를 했을 때 환자가 감동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진료실에서 일종의 환희를 경험한다.

이런 때에 나는 내 자신이 무척이나 흡족하고 나도 모르게 감격한다. 이것이 환자와 의사가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마치 수필도 감동을 주는 수필을 쓰라는 충고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진정 나는 나머지 여생을 환자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양질의 진료를 하고 싶다. 아내는 전이가 된 간종양을 이번에는 고주파치료를 받고 다행히 경과가 좋아져서 교대진료도 재개하였다.

나는 '의사의 종착역도 역시 진찰실이다'라는 것도 절감하였다.

## 哭 平山 申英湜 文

글 \_ 김두희(29회) 동문

2015년 4월 20일 월요일, 동기 월례회에서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송문원 군이 김진대 군으로부터 온 이메일을 낭독한다. 아니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바로 자네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거다. 슬립다운이 그만 그렇게 연결되었다니! 입을 다물지 못한다. 어깨가 내려앉는다. 온 몸이 허탈해진다. 어떻게 하면 좋으랴? 송문원 군이 29회 대표로 위로카드를 부인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자네 이름을 불러보지만 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메아리도 없구나! 나는 별도로 편지를 내겠다고 하고는 오늘까지 편지를 쓰지 못하였다.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의 슬픈 이야기를 부인이 읽으면 마음만 더욱 아프게 할 뿐이기에 ~.



신영식 본과3년 때

친구야! 보고 싶다. 내가 갈 때마다 자네가 앞장서서 안내를 하였지! 백만장자가 살던 Albany의 그 그림 같은 언덕의 집을 자택으로 삼았다고 자랑했었지! 그런데 눈이 오면 그게 치워질 때까지 꼼짝 못한다는 것이 흠(欠)이라고 했던가? 또한 지금 살고 있는 보다 따뜻한 Atlanta의 숲 속에 지어진 집으로 이사한 자택이 눈에 선하네! 가을 풍경이! 오색 낙엽이 차곡차곡 내려앉는 아름다운 풍경, 마치 그림 같은 저택이었지! 공연히 나의 어깨까지 으쓱해졌었는데~! 그래요 참으로 꿈에서나 이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저택이었기에~.

자네가 보고 싶네.

나에게 널름 넘겨주던 영국제 Bone china, 자네가 아끼던 것이라 했던가! 그 커다란 쟁반 말일세, 아직도 고이 간직하고 있다네! 자네가 보고 싶으면 그 쟁반을 쳐다보지! 그런데 볼 때마다 자네 얼굴이 겹쳐진다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바로 이웃처럼 여기게 하던 전자통신도 끊어지고 말더니~! 그러다가 오늘 의 슬픈 소식을 다른 친구로부터 들으니 참으로 야박하고 또 황당하구나! 나는 이제 미국에 가도 들릴 데가 없게 됐다.

우리들의 비사(秘史)가 주마등처럼 스치네! 그냥 묻어둬도 좋겠지만 그중 의로운 자네의 품위를 새삼스레 떠올려보네! 자네는 자녀를 두지 못해 더욱 안타까워하며 양자(養子)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우리들의 우의(友誼)를 누가 어찌 다 알겠는가. 그 Albany 언덕의 저택에서였던 가보네! 자네가 우리아이 하나를 양자로 잘 키워주겠다고 제의했을 때 왜 내가 들어주지 못했을까! 비록 자존심이 내려앉더라도 자



네 말을 들어주었다면 오늘과 같은 슬픔을 면하였으리라! 나는 이미 자식 하나를 가슴에 묻었으니 어차피 나의 옳은 자식이 못 되었거늘 ~! 아! 정신이 아득해진다.

친구야! 1967년 전문의시험을 치를 때, 자네의 좁은 셋방에서 함께 유숙(留宿)하고 응시했던 일! 곁에서 우리들의 장래를 속삭였었지! 당시 우석(友石)의대 주인호 교수 지도하에 박사연수생 과정을 밟고 있다며 나를 소개했다고! 당장에 서류를 내달라 했다는 편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네! 그런데 그 후 전문의 면접관이 권이혁, 주인호 양 교수였네.

처음 대면한 주인호 교수가 현장에서 제시하는 논문을 보고 알아보았는지 나를 보더니 “아 그게 어딘고!” 라며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켜올려주더군! “전쟁터에 가서 그런 논문을 주워와 발표를 하다니 ~”, 그러니까 권 교수는 “아니 그런 논문 하나가지고 뭐해? 더 나아갔어야지~!” 하며 눈을 크게 떠시더군! 하여 ‘이것은 주월군의 현증환자 현황이지만 불현성 말라리아의 자료’와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으나 아직 정리하는 중이라고 답을 드리니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구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호 교수 지도하의 자네와 동문이 되지 못한 것은 그 후 어느 날 이성관 교수가 중앙의무시험소 소장실로 오셔서 면회요청이 있었는데! 천장이 떠나가도록 호통을 치셔서 놀랐었네! “싸움을 해가며 자리 하나 마련해놓고 1년을 넘어 기다렸는데 네가 직업군인 지원하면 나는 어찌란 말이고!” 아니 생각도 못한 말씀이거든! 무언가 잘못 아신 것이지만 그분의 진의를 생각하니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주 교수에게 양해를 해달라고 한 일 기억하는가? 그런데 그때 내가 서울로 갔더라면 자네와 운명을 함께 할 수가 있었으리니. 나의 형편이 오늘처럼 고독하지는 않았으리라 ~!

그 뿐이 아니고 자네가 도미 준비를 하며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역시 그러자고 하고는 나는 그만 포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 이유는 공부가 되지 않았어요! 글썄! 책만 들여다보면 등 뒤에서 누가 나의 머리꼬리를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아 돌아보면 아무도 없곤 했었네! 그리고 포기를 하면서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네. 그래서 그만 대한민국의 골동품이 되고 말았는데, 당시 나는 우리 역대 선조 받들 사람이 없게 되면? 하고 걱정한 것뿐인데~! 만약 그때 나도 함께 갔더라면 역시 오늘과 같은 슬픔은 없었으리라~.

아니! 또 그 이전으로 돌아가 생각해보세. 자네를 만난 것이 의예과 1학년 때이지! 내가 한해 놀고 돌아오니 자네가 있었네. 그리고 박수훈, 이근후를 함께 만났었지. 어쩌면 모두 처지가 그렇게 유사했을까? 근후 말고는 결핵(結核)으로 휴학을 하고 복학을 했다고 했네. 그리고 파스(PAS)와 새로 나온 아이나(I-NAH)를 결핵협회에서 타먹는다고! 그리고 나를 소개해서 함께 타먹게 되고 김경수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 결핵공부는 이때 미리 다 한 것이 아니겠는감. 그러나 그놈의 결핵이 잘 나아지지 않아 고민하면서 이제는 죽어도 공부를 하다가 죽겠다는 굳은 각오의 눈빛으로 만난 우리 네 사람이 그룹 스티디를 시작하면서 의형제를 맺었었지! 그 후 백중흠, 박영춘, 이성열, 김해우를 더해 8형제로 늘어 더욱 좋았었네.

그런데 본과 3학년 초에 자네는 수술을 받는다고 했네, 같은 날 나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으니 나는

공연히 미안한 생각을 하며 자네의 쾌치를 축원하며! 집도를 이성행 교수가 하시고 옆에는 근후가 지키고 있기로 했으니 믿었었지만~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그해 토정비결(土亭秘訣)에 자네와 내가 꼭 같은 괘(卦)가 나질 않았던가.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에 하나는 큰 수술을 받고 다른 하나는 혼례를! 자네는 수술을 나의 결혼식과 같이 생각하고 수술이 잘 될 것이라 안심하였다고 했네! 글썄 나는 아직도 그런 괘(卦)를 불가사의(不可思議)하다고 생각하고 이지함 선생을 경외(敬畏)하고 있네! 어쩔 그렇게 운명을 함께 할 수가 있을까 하고 말일세! 이러나저러나 인생의 큰 일이 아니던가!

등등 일련의 일들이 잊히지 않음이라! 오늘에 와서 생각하니 모두 그렇게 적절히 타협을 하였더라면 우리는 친형제(親兄弟)처럼 모두가 즐겁게 살아올 수가 있었으리라 믿어지는데! 팔순을 훨씬 넘긴 오늘에도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병어리가 되어 냉기습만 치니 어쩔 이런 염치없는 인생을 걷는단 말인가! 그리고 졸업 후에 우리는 한곳에 모여 종합병원을 운영하겠다고 했었지만 모두가 헛것이었던!

글썄 어떻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하나둘씩 멀어져 노년이 되면서 영원한 친구를 하나둘 먼저 보내고 나니 모두가 애석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그 누구의 말인지 모르지만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지난날 가까운 친구였다 하여도 이만을 갔다든가 하는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마련이며, 그런 친구는 아무리 많아도 노년에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한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친구야! 그래도 너는 나에게서 산과 같은, 땅과 같은 친구였다. 산은 의지할 곳을 제공하고 땅은 못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길러주지! 이처럼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듯, 한결같은 마음으로 ~. 노년을 함께 하지는 못했으나 아름다운 친구로 계속 남고 싶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어찌다 모질게 나를 떠나간다 해도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그냥 좋은 기억으로만 남고 싶다. 인생에 주어진 한정시간을 의미 없이 고달프게 살다 가는 것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와 함께 오순도순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들을 만들면서 오래 지속한다면 더욱 멋진 인생여정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도 자네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멀리서나마 극락왕생(極樂往生)을 축원한다.

## 나의 부친(송명도 1회)과 어린 시절

글 \_ 송문원(29회) 동문

###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아버지(송명도 1906년생)는 1933년 대구의학전문학교(경북의대 전신)를 제1회로 졸업하셨다. 나의 어머니(이정진 1908년생)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전신인 경성 사범학교를 졸업하신 후, 대구 효성 소학교에 근무하시면서 1930년 부친과 결혼하셨다. 나의 창원형은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월급으로 창원형을 키우시면서 학생 송명도의 학자금도 대드렸다고 한다.

부친은 졸업하셔서 의사면허를 받으시고는 함경북도 혜산진 근처 신가파진이라는 작은 고장에서 개원하셨고, 나(송문원)는 1936년 거기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잠시 개원하시다가 뜻하신 바 있어 개원을 접고 경성으로 가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산부인과학교실에 연구생(지금의 전문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4년의 과정을 마치고 만주로 들어가셨는데 소만국경도시(동녕)에 잠시 개원하셨다가 좀더 북으로 가서 수양에 정착하였다. 나의 동생 계원이는 1937년 경성에서, 여동생 보원은 1939년 동녕에서 각각 태어났다.

‘수양’은 거기서 조금 떨어진 쓰만 국경도시 ‘수분하’와 가깝고 일본제국의 전략도시로서 일본 제8사단이 주둔하여, 일본군대와 그 가족들로 법석거렸다.

나의 막내 여동생 경원이는 이 수양에서 1942년에 태어났다. 나는 약 6년간 이 수양에서 어린시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보았다. 약 2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득실거렸고, 그들을 위한 소위 ‘중군위안부’들이 수백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큰 거리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위안소 건물이 꽤 많이 있었다. 나의 기억으로는 대개가 조선에서 끌려온 젊은 조선여자들이었다.

일본은 1931년, 중국 동북부(만주)를 침략 점령하고, 1937년 중국 본토를 침략하고는, ‘대동아전쟁’이라는 미명하에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세계2차대전을 일으키고, 가상적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관동군을 증강시켜 수십 사단 수백 만의 군인들을 투입시켰다. 아울러 만주개척단이라며 일본 본국에서 많은 일본인들을 데리고 와서 만주의 동북쪽에 정착시켰으며, 허수아비(부의)를 세워 만주국을 만들고 명실공히 일본의 식민지를 만들고 있었다.

태평양쪽 남방전선에서 일본군은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여 드디어는 만주에 주둔하던 관동군을 남쪽으로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그리하여 소련군을 견제할 일본군이 빈약하거나 없는 상태인, 1945년 8월 9일을 기하여 소련군은 소만 국경을 넘어 새벽에 만주 동부로 쳐



들어왔다. 만주 동북부에 와있던 만주개척단 일본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해줄 일본군이 없는 상태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하였다. 이렇게 그 수많은 개척단원들, 특히 노인, 부녀자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그 전쟁의 와중에서 우리 식구들은 기적적으로 피신하여 고향 황해도 황주군 흑교면 흑교리에 들어올 수 있었다.

### 8.15 광복

8.15 해방 이듬해인 1946년 3월 5일 김일성은 소위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당시 대지주였던 우리집은 하루 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소위 부르주아 지주들은 연고자 없는 함경도나 강원도로 강제 이주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숙청당한 지주들은 유배지로 가지 않고 3.8선을 넘어 월남하였다.

그 당시만 해도 3.8선은 경계가 느슨하여 돈을 주면 38선 경비병의 눈을 피해 월남을 도와주는 안내자를 구할 수 있었다. 부친께서도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감지하시고 온 가족이 월남하기로 결심하시고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뜻밖에도 할머니께서는 완강히 반대하셨다. ‘갈테면 너희들이나 가라 ... 나는 할아버지가 묻히신 여기에 남겠다.’하셨다. 아무리 설명하고 애원하셔도 완강히 거절하신다. 효자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부친께서는 하는 수 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나의 짐작컨대 공산당이 싫지만 설마 사람을 잡아먹기야 하겠나? 하면서 자위하며 월남을 포기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아먹고 만다.

이 잘못된 판단 착오가 일생일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어 당신을 평생 괴롭히면서 95세로 생을 마감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뇌리를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일이 벌어진다. 토지개혁으로 소유하던 모든 땅을 빼앗긴 지주들은 숙청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으나 할머니를 위시하여 우리 온 가족은 그 큰 기와집에서 그대로 살 수가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할머니 앞으로 국가에서 토지를 배당받아 농사를 해먹을 수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북조선 어디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8.15 해방 전까지 우리 ‘송가’의 땅을 소작하던 소작민들은 거의가 다 한 동네 사람들이었고, 나의 조부님께서 한 식구처럼 돌보며, 관대하게 해주어 인심을 얻은 덕으로 비록 공산정권이 들어섰지만 박해와 숙청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한 1년은 종교의 자유도 있었다. 고향 흑교에서 약 15리 떨어진 ‘중화’에 카톨릭 성당이 있었다. 주일이면 그 중화성당에 미사 참례를 가곤 하였다. 그런데 당



시 흑교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가톨릭 신자여서 함께 미사를 보러가곤 하였다.

시간이 흘러 종교탄압이 시작되고 천주교 신부, 수녀들에게 체포령이 떨어지자 공산당원 가운데 있던 신자들의 도움으로 많은 신부와 수녀들이 피신하여 월남할 수 있었다. 그때 평양교구 홍 주교도 체포령이 떨어져 공산당원 신자가 홍 주교에게 속히 피신하시라고 간곡히 권고하였으나 '내가 양떼를 두고 어디를 가...'라며 끝까지 피신하기를 거부하였다. 결국 체포되어 순교하였는데 그의 나이 45세였다.

### ‘서북청년단 사건’과 부친(송명도)의 체포

8.15 광복 후 내가 고향 흑교중학교에서 중학생 생활의 바쁜 일과를 즐기던 어느날, ‘서북청년단 사건’이 터졌다. 많은 교직원과 상급 학생들이 내무서에 체포되어 보위부로 송치되었다. 한편 운 좋은 많은 사람들이 사전 정보를 얻어 체포 직전에 피신하여 월남하면서 생명을 건졌다. 그리고 나서 약 3개월 후 부친께 내무서로 출두하라는 통지가 오고, 그후 부친은 ‘해주감옥’으로 송치되었다. 서북청년단 사건의 배후를 캐느라고 혈안이 된 보위부는 뚜렷한 배후 인물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유도심문을 하며 그럼 ‘너희들이 존경하는 고향사람들은 누구냐?’하고 물었다. 잡혀간 학생들이 존경한다고 말한 사람 가운데 부친이 들어있었고, 그리하여 부친은 해주감옥에 구속되어 심문을 받았다. 아무리 캐어봐도 이렇다 할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약 석달 후 어느 날 수염이 덩수룩한 채로 집에 돌아오셨다. 부친을 아끼는 어떤 선배가 찾아와서 ‘송 선생 같은 분은 이런 시골에 있지 말고 평양같은 큰 도시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하였다.

### 부친(송명도)의 평양의과대학 생활

부친이 해주감옥에서 석방되고 얼마 안 되어 부친은 평양에 가서서 평양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허신 교수를 만나셨다. 허신 교수는 부친이 경성제대 의학부 산부인과학교실 연구생 시절 교실 대선배로서 아는 사이였다. 허 교수는 부친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하면서 산부인과 조교수(여기의 부교수에 해당)의 직을 주셨다. 허 교수는 고향이 함경도로서 8.15 해방 후 평양으로 와서 평양의대 산부인과 교수로 자리를 옮기셨다. 허 교수는 노동당원으로서 최고인민위원(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진정한 학자였으며, 국회의원의 감투는 썼으나 소위 빨강무처럼 걸만 빨강고 속은 하얀 사람이었다.

허 교수는 자신이 아끼는 후배이기에 공산당의 무릇 압력으로부터 부친을 보호하여 주었다. 한 번은 부친이 신설 청진의과대학의 산부인과 주임교수로 발령이 나서 평양을 떠나야 할 위기가 왔다. 이때 허 교수가 나서서 ‘송명도 교수는 나의 오른팔인데 송 교수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라며 공산당원 학장의 청진의대로의 발령을 번복시켰다. 6.25전쟁 중인 1950년 10월, UN군이 평양에 입성하자 허신 교수는 체포되어 1.4후퇴 시 서울로 압송되어 서울시 모처에 구금되어 있다가 그 빌딩이 폭격을 받아 불행히도 전쟁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 김일성의 6.25 남침의 징조

내가 흑교중학 3학년생이던 1950년이 되자 세상이 소란스러워졌다. 우리 중학교 앞을 지나가는 신작로(국도)를 중무장한 인민군 병력을 실은 군용 트럭들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남으로 남으로 달리는 탓에 그 비포장도로의 먼지로 앞뒤가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교직원들 가운데 러시아어 교사인 허 선생이 신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봐이나...이쥬드 보이...’(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라며 외치자 그 주위에 있던 선생들이 ‘허 선생, 말 조심하세요’ 하고 주의를 주었다.

### 6.25전쟁 마침내 터지다

나는 장차 의과대학을 가서 아버지의 대를 잇겠다고 일찍이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양의과대학이 있는 평양으로 전학하기로 하고 부모님과 창원형과 의논하여 중학교 3학년 후학기에 평양 제1중으로 전학하였다. 이 제1중은 옛날 사립 광성중학교였던 것을 8.15광복 후 공산정권이 몰수하여 평양 제1중으로 만든 학교였다.

광성중학은 부친에 이어 명신 숙부, 막내 명관 숙부가 졸업하여 나까지 모두 4명이 동창인 셈이다. 1950년 나는 평양 제1중 3학년, 창원형은 평양 제1고급중학교 3학년생이었고, 창원형은 졸업 후 공과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두 형제는 부친의 관사(평양의과대학병원 관사)에서 자취를 하며 공부하고 있었다. 6.25전쟁이 발발한 날은 일요일이어서 나는 남쪽으로 70리의 황주군 흑교 고향집에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동네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웅성거렸다. 나는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렸다. 그간 이들이 그토록 착실히 준비하여 마침내 남조선으로 쳐들어간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밤낮으로 흑교 시내를 관통하는 신작로를 따라 완전무장한 인민군들을 남으로 수송하였으니 김일성 명령으로 이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너무나 분명하였다.

평양방송은 이승만 괴뢰정부의 국방군이 38선을 넘어 우리의 조국 북조선을 침공하였기에 즉각 방위에 나서서 지금 적을 격퇴시키며 남으로 남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떠들어댔다. 평양거리는 인민군의 승전보로 도배를 하였다. 수도(서울) 점령-해방! 천안 점령! 평택 점령! 조치원 점령! ... 파죽지세다. 전쟁이 터지고 밀려 들어오는 부상병 수술 치료로 부친께서는 관사로 퇴근을 못하시고 선교리에 있는 새로 지은 대학병원에서 기거하셨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부상병 치료로 바쁘시다던 부친께서 관사로 우리 형제를 찾아오셨다.

몹시 급한 용무이신 듯, 신을 신은 채로 방으로 들어오셨다. 바로 문밖에는 낫설은 외제 Sedan이 대기하고 있었다. 부친은 체코대사관의 체코대사 부인 왕진을 나오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차를 돌려서 우리 형제에게 하실 이야기가 있어 황급히 관사로 오신 것이었다. 부친께서는 매우 심각한 표정에 나지막한 목

소리로 '창원아, 너 당분간 흑교 시골집에 내려가 있어라. ...' 하셨다. 전쟁 와중이라 창원형(만 18세)이 인민군에 징집당할 것을 염려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우리 형제는 부친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남조선을 점령하여 내려가고 있고 머지않아 이 전쟁이 인민군의 승리로 끝날 텐데... 시골집에 가서 숨어 있으라니... 훗날 병역기피로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인데...하며 우리 형제는 부친이 '제정신이냐고' 밀어붙였다. 우리 형제는 공산당학교로부터 Brain Wash 되어버렸던 것이다. 부친께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신 듯 잠시 할 말을 잊으신 듯 멍하니 계시다가 타고오신 세단으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셨다. 북조선은 부자지간이라도 자식이 부모를 반국가적 반동이라고 고발하면 부모가 체포 구금되는 세상이었다.

### 창원형의 인민군 징집

1950년 7월 5일, 창원형은 평양 제1고급중학교 3학년 졸업반으로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이 어두워져도 창원형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당시는 집에 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나는 기다리다 지쳐 혼자 잠이 들었다.

날이 새고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창원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은 일요일이라 나는 학교에 안가고 집에서 마냥 형을 기다렸다. 그렇게 오전 11시경이 되자 나는 창원형 학교로 찾아가 보기로 하고 집을 나섰다. 관사를 나서서 평양의대 대학병원 운동장을 가로질러 병원 정문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운 좋게 평양 제1고 교복을 입은 안경 낀 학생을 하나 만났다. 그는 창원형의 급우로서 마침 창원형의 부탁을 받고 소식을 알려주려고 오는 길이었다.

이야기인즉, 창원형은 어제 마지막 시험을 치는 도중에 학교에서 인민군에 징집되었고, 그날 밤을 학교에서 자고 지금 제5 인민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기는 폐결핵이 있어 징집에서 면제되었다고 했다. 나는 전차를 타고 달려가서 한 20분가량 걸려서 제5 인민식당에 도달했다. 벌써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다. 나는 평양1고 교모에 흰 Y-Shirt에 까만 즈봉을 입은 창원형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창원형은 비교적 차분한 표정으로 '이 참고서들 집에 가져가라'고 하며, 이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길로 아버지한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절대로 자진해서 경술한 짓 안할 거라고... 그리고 기회 있으면 알아서 한다...'고 말하였다. 평소에 부친께서 만일의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 나누는 적이 있었고, 창원형이 다 잘 알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부친을 안심시키는 전갈이었다. 불과 2~3분 사이 이야기를 나누자마자 집합 호령이 떨어졌고, 형은 대열로 돌아가서 걸어서 어디론가 행진하여 가고 나는 전차를 타고 다리 건너 선교리 평양의대 대학병원에 부친을 찾아갔다.

이윽고 수술 중이신 듯, 핏자국이 선명한 수술복을 입으신 채로 부친이 나타나셨다. 나는 황급히 자초

지종을 보고하였다. 부친은 벼락을 맞은 사람마냥 얼마간 멍~ 하게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나더러 '야 문원아, 어서 빨리 이 길로 창원이한테 가서 내말 전해라. 절대 허튼 짓 하지 말고, 몸조심하라고 전해라. 어서! 가라!' 하셨다.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전차를 타고 그 인민식당에 단숨에 갔다. ... 예측한 대로 거기에는 아무도 안 보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 전 여기 모여있던 학생, 청년들 어디로 갔냐고 물어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같은 고향 흑교 사람인 평양 1중 교사(나의 담임선생) 하 선생님을 월요일 등교하면서 만나서, 창원형이 그 인민식당을 떠나 바로 우리 평양 1중 교사에서 밤을 지내고 어디론지 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인민식당에서 창원형을 본 것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의 만남이 될 줄이야...

때마침 여름방학이고, 또 B29와 기타 미공군의 전투기 전폭기 등 공습이 격화되어 나는 학교 시골집에 와 있었다. 부친의 월급은 요사이처럼 은행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매달 월급날이 되면 흑교 집에서 북으로 약 70리 길을 걸어서 평양에 갔다. 나는 창원형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모시고(모친은 42세, 나는 14세) 평양까지 걸어갔다. 미국 공군의 공습으로 사람이 타고 갈 수 있는 기차나 버스는 없어졌고, 군수송 교통도 거의 마비 상태였다.

평양 근처 대동강변에서 냉면을 사먹고 선교리 병원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한참을 기다리니 부친이 안 나오시고 허신 주임교수님이 직접 나오셨다. 수술 중 잠시 나오신 듯, 피 묻은 수술복 차림이었다. 교수님 말씀이, 부친은 군의관으로 징집되어 지금 '순안육군병원'에 계신다고 하셨다. 그 길로 배급소에 가서 월급으로 나오는 쌀, 잡곡, 비누 등등을 받고 지계꾼을 사서 그것들을 시장에 가져가서 현금으로 바꾸었다. 그 길로 다시 어머니와 나는 순안육군병원까지 걸어갔다. 신작로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B-24 전폭기의 습격을 종종 당한다. 그들은 민간인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혹은 나쁘게 군용차량 근처에 있게 되면 그 공중 습격의 화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피해 다녔다.

'순안육군병원'에 가서 면회를 신청하니, 잠시 후 인민군 소좌 차림으로 부친이 나오셨다. 그곳 육군병원의 병동장이셨다. 부친에게는 당번 하사관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돌봐주어 불편은 없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 당번이라는 것이 그 놈들이 붙여놓은 감시병이다. 면회 중에도 미국 공군의 공습 정보가 나고, 우리들은 방공호로 잠시 피신하곤 하였다.

그날 밤 근처 여관에서 우리 세 식구는 꿈같은 Family Reunion을 즐겼다. 식사를 마치고 그 먼길을 걸어온 나는 바로 피곤에 지쳐 꿈나라로 직행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부모님은 오랜만에 신혼의 단꿈을 꾸셨을 것이다.

부친과의 면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새벽녘이라 지나가는 빈 트럭을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평양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렇게 한참을 타고 가다가 평양 근처에 오니 운전기사가 평양에서는 미군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으니 여기 내려서 걸어가는 편이 안전하다고 하여 고맙다고 인사하고 내려서



걷기 시작하였다. 한참을 걸다가 우리가 평양에 올 때 들렀던 대동강변의 냉면집을 지나다 보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냉면집은 온데간데없고 커다란 폭탄 구덩이가 생겨나 있었다. 대동강 철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B-29의 Bombardier(폭격수)가 실수하여 대동강 철교 대신 엉뚱한 냉면집을 박살낸 듯하였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였다.

**난데없이 날아온 창원형의 엽서**

6.25전쟁이 한창이던 무더운 8월의

어느 날, 시골 흑교집으로 한 장의 엽서가 날아왔다. 연필로 급히 쓴 흔적이 완연한 창원형의 엽서가 틀림 없었다. 대략의 내용은, 평양을 떠나 동쪽 개마고원으로 가서 군사 기초훈련을 받고, 서울 구경을 잠깐 ... 그리고 지금 개성 근처에 있다는. 그리고 몸 건강히 잘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요지로 기억한다.

그 당시 교통망과 통신망이 거의 마비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엽서가 집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물론 답장이란 건 꿈도 못 꾸다. 연필로 몇 자 적은, 어느 전선에서의 그 한 장의 엽서가 창원형의 처음이자 마지막 소식이 될 줄이야...

전쟁이 한창인 1950년의 여름, 우리 시골 동네 흑교면 흑교리 신흥동. 밤낮으로 집 앞을 통과하는 신작로에서 볼 수 있었던 광경들... 하루는 지나가던 Jeep차가 섰다. 앞자리에 당시 예술가들이 잘 쓰고 다니던 '빵모자'를 쓰고 Sunglass를 낀, 50~60대의 근엄한 풍채의 신사가 거기 타고 있었다. 잠시 후 이 Jeep는 떠나갔다. 어린 마음에 겁이 나서 그 차에 접근할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하니 공산 내무서원들이 서울에서 납치하여 평양으로 압송한 그 수많은 저명인사들 중 한 사람이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 당시 남조선의 서울에는 패트릭 번 주교라고 초대 주한 교황사절이 있었는데 공산당은 그를 납치하여 평양으로 압송 후 구금하다가, 10월 19일 UN군이 평양으로 진격하자 납북자 패트릭 번 주교는 북으로 가는 소위 '죽음의 행진'에 끌려갔다. 그 행진 중 잠시 들른 중강진수용소에서 병사하였다. 그 패트릭 번 주교님도 내가 그 신작로에서 목격한 많은 납북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UN군의 복진**

1950년 당시 나는 만 14세여서 인민군 징집에 걸리지 않는 않았으나 같은 Class 가운데 나보다 한두 살 많은 애들은 상당수 끌려갔다. 나는 흑교집에서 약 2Km 떨어진 작은 할아버지 집에 가족과 함께 피난가 있었다. UN군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하여, 하루는 혼자서 논두렁을 따라 살금살금 흑교집으로 가고 있었다. 흑교집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인도 교량이 서 있었는데, 인민군들이 도망가면서 그 다리를 폭파하였다. 그 다리를 복구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것이 보였다. 집에 가는 방향과 같아서 그 다리 가까이를 지나고 있으니 총을 멘 국방군 하사관이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였다. 나는 도리없이 그에게 가니 나더러 복구작업을 도우라고 명령조로 말하였다. 나는 나이도 어리고 부모한테 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으나 그 하사관은 잔소리 말고 빨리 와서 복구작업을 도우라고 명령하였다. 총 들고 명령하는 국군 하사관이 무서워서 나는 그 작업에 합류하였다.

거기에는 머리를 뺍뺍 깎은 20대의 인민군 포로 수십 명과 조금 더 나이 든 노무자들, 도합 30~40명이 교량 복구에 쓸 직경 30cm 정도의 통나무를 나르고 있었다.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 그 무거운 통나무를 밧줄로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중이었다. 만 14살 짜리가 한 조가 되어 움직이지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공산당으로부터 해방되고, UN군과 한국군을 도와준다는 생각에 힘은 들어도 이를 악물고 힘껏 하였다. 아침부터 시작하여 오후가 되니 잠시 휴식시간을 주며, 어른 주먹만한 현미 주먹밥을 나누어 주어 맛있게 먹었다.

곧 작업이 계속되었고, 몸은 지쳐가고 몹시 힘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밤이 되었으나 작업은 계속되었고... 어느덧 날이 훤히 새어 새벽이 왔다. 밤을 새며 작업을 한 뒤라 감독관이나 국군 경비병들도 우리에게 휴식을 넉넉히 주며 조금 편하게 되었다.

나는 경비병에게 '큰 것'을 보러 갔다와야 한다고 하여, 물말은 '논'으로 가서 바지를 내리고 불일 보는 시늉을 하였다.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작업장 쪽을 보니, 상당수의 노무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 나를 감시하던 경비병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때다' 하고 바지를 올리고 논두렁을 옆으로 기어가는 게처럼 슬금슬금 작은 할아버지 집으로 이동하였다. 그러기를 한 200m쯤 가서 그쪽을 보니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뛰기 시작하여 단숨에 작은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아마도 그날이 1950년 10월 중순 15~18일 쯤으로 기억한다.

그리고나서 2~3일 후에 우리 식구들은 흑교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인민군 군의관, 송명도 소좌)의 극적 탈출**

UN군이 북진하여 고향 황해도 황주군 흑교를 해방시키고, 계속 북진하여 중화를 지나 1950년 10월 19일 백선엽 장군의 국군1사단이 선두로 평양에 입성하였다. 그리고 한 1주일쯤 지난 어느 날, 남루한 사

복 차림의 아버지께서 흑교 고향집에 불쑥 나타나셨다. 우리 가족은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듯 기뻐 어쩔 줄 몰랐다. 부친에 의하면 순안육군병원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지나던 어느 날, 그날 저녁 해 지고 북쪽으로 이동하니 모두 대기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아버지는 ‘올 것이 왔다.’ 직감하고… 공산당이 아닌 동료 군의관과 은밀히 상의하였다.

저녁이 되고 사방이 어두워지자 부친과 동료 군의관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둘이서 육군병원을 빠져나와 근처 민가로 숨어들었다. 동료 군의관은 마침 순간 근처가 고향이라서 그곳 지리 사정을 훤히 꿰고 있었다. 얼마를 숨죽이고 숨어 있으니 UN군이 주위를 점령하였고, 부친은 혼자 흑교집을 향하여 걸어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밤이 되면 민가로 숨어들어 잠을 청하며 며칠을 걸어오셨다고 한다. 한 번은 밤중에 누가 와서 깨워 일어나니 국군 헌병이었다. 인민군 패잔병을 수색하고 있다고 했다. 몸 수색 중 부친의 옷에서 월급으로 받은 인민화폐가 다발로 나오자 그 헌병은 전부 압수해 가버렸다. 빈털터리가 된 부친은 그럼에도 건강한 몸으로 고향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부친은 나더러 평양의 관사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의학서적을 가지고 오라 하셨다. UN군이 점령한 평양이지만 아직 치안상태가 불안하여 중학생인 나를 대신 보내기로 하신 것이다.

부친은 나를 혼자 보내기가 좀 불안하셨는지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인 5촌 아저씨(송명철, 20세쯤)를 동행시켰다. 이 명철 아저씨는 약간의 발달장애자로서 인민군 징발을 면제받아 전쟁통에도 살아남았다. 출발 전에 수복 후 결성된 치안대장의 신원확인 증명서를 가지고 걸어서 평양으로 출발하였다.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그 고을 우익 치안대의 검색을 받아야 했다.

우리 일행은 반나절의 도보로 그날 오후에 평양역에서 가까운 평양의과대학병원 관사에 들어가려니 정문에 총을 멘 국군 보초병이 들여보내주지를 않는다. 내가 학생인데 여기 관사에 산다고 하여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였다.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후 부친은 몸이 회복하자 흑교중학교 정비를 위하여 새벽부터 저녁까지 매일 바쁘게 보내셨다.

###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과 1.4후퇴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2월 4일, 아침 일찍 학교 교사 점검차 나가셨던 부친께서 낮 12시경 황급히 집에 들어오셨다. 압록강을 넘어 중공군이 쳐들어와서 UN군이 작전상 후퇴하는데 우리도 UN군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한다 하셨다. 그리고 마침 흑교역에 우리 국군 부상병과 대포, 트럭, 탱크를 싣고 출발하려는 화물차가 있으니 어서 가서 그 기차를 타야 한다고 하셨다.

우선, 겨울용 두툼한 옷을 꺼입고 간단한 소지품과 식량 조금, 취사용 냄비 등을 지참하고 약 15분 거리의 흑교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무개차에 실린 대포, 탱크, 트럭 사이사이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부친이 할머니께 사태를 말씀드리니, 할머니께서 또 ‘너희들이나 가라’ 하셨

다. 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하고 설득하셨다. 그렇게 고향 흑교를 떠난 것이 1950년 12월 4일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기차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움직였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12월 8일 쯤으로 기억한다.

서울 종로 어디쯤 되는 작은 할머니(할아버지의 막내 여동생) 집을 찾아가니, 그 좋은 한옥집은 폭격으로 온데간데없고 텐트 오두막이 있었다. 우리 일행은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에 한강으로 나셨다. 작은 할머니에게 같이 감시다 하니, 당신은 좀 더 사태를 봐서 뒤따라 갈 테니 먼저가라 하셨다. 한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강을 건넌 후 노량진을 지나 영등포까지 가니, 거기에 후퇴하는 탱크, 대포, 트럭을 실은 무개 화물차가 곧 떠날 듯 ‘취…취…’ 하며 서 있었다. 우리 7식구는 째짜게 기차에 타고 자리를 잡았고, 기차는 어둠을 헤치며 남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이윽고 대구역에 도착하여 거기서 내려 걸어서 서문시장을 지나 내당동 1064번지 외숙부(이범신) 집에 도착하여 대문을 두드리니 외숙모님이 문을 열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이때 밤 12시 야간 통행금지를 알리는 사이렌이 ‘웁…’ 하고 울었다. 때는 1950년 12월 11일이었다.

### 6.25가 남긴 고통과 상처들

김일성 도당들의 오판으로 일으킨 6.25 남침은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을 이 한반도의 동포들에게 안겨주었다. 많은 동포들이 비참하게 죽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아직도 이산가족으로 남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1.4후퇴로 그 공산치하를 벗어나 자유 대한민국의 품안에 와서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우리들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들이다. 우리집에는 창원형 한 사람을 잃었으니 이웃의 판 가정에 비하면 운이 좋았다고나 할까. 나머지 직계가족은 모두 1.4후퇴로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으니….

부모님께서는 6.25전쟁으로부터 창원형을 구하려고 두 번씩이나 노력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두 번 모두 실패하여 결국은 창원형을 잃고 말았다.

1946년 막내 숙부(송명관)가 월남할 때 창원형(당시 14세)을 함께 남으로 내려보냈으나 당시 일정한 직업을 못 찾은 숙부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지 다시 38선을 넘어 창원형을 북으로 데리고 와서 두고, 혼자 남으로 가버렸다. 내 생각에 사정이 그렇다면 창원형을 왜 대구의 외가에 맡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크게 장사를 하시던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계셨는데, 그들은 창원형 하나쯤은 충분히 거두어 학교 보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왜 맡기지 않았는지. 나는 부모님 생전에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였다. 내 추측은 부친이 대구의전 학생시절 처가에서 신세를 지면서 공부한 빛이 있으니 다시 창원형을 보내어 신세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하신 듯하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싫어하시는 그 성격이 지나쳐

서 일생 일대의 크나큰 실수를 하여 그 귀한 큰아들을 잃었으니 부친과 모친, 당신의 고통은 어떠하셨을까. 나는 생전에 따져 물어볼 수 없었다.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는 8.15 해방 이듬해인 1946년, 토지개혁으로 우리의 그 많은 땅을 모두 빼앗기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38선을 넘어 월남할 때, 부친께서도 그 길이다 믿고 월남을 결심하셨다. 그러나 '갈려거든 너희들이나 가라'는 할머니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외고집에 부친은 일생일대의 또 다른 치명적인 판단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지금 생각해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시는 노모를 설득하여 왜 월남하지 아니하셨는지... 이것은 효성이 먼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찌하여 그런 명확한 처사에 그런 치명적인 판단착오를 하셨는지... 부친이 타계하신 지 15년이나 지난 오늘에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미칠 것만 같다. 부모님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이 이 세상을 하직하실 때까지 창원형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서 번뇌하셨을 것이다.

1999년 5월 3일 어머니는 한 많은 이 세상을 떠나셨다. 모친께서 생전에 창원형의 유품 하나를 항상 곁에 두시고 만지작거린 것이 있었다. 그것은 창원형이 학생시절 입던 '내의'였는데, 어머니께서 기우시고 또 누비시고 하여 걸레처럼 너털너털한 것을 1,4후퇴하면서도 품속에 간직하며 가지고 오신 것이었다. 우리들은 관을 닫는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의 시신 옆구리에 그 유품을 꼭 끼워드렸다.(92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7개월 후인 2000년 2월 18일, 아버지께서는 대퇴부골절의 후유증으로 어머니를 따라 승천하셨다.(95세)

## 아이들 보는 데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글 \_ 임정규(31회) 동문

아이들은 이해 못할 것 같아 별 주의 없이 어른들이 한 말과 행동을 쉽게 배운다. 자녀교육에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는지 다음 두 아이들의 말을 들어본다.

### 제1화

1967년 어느 날 군의학교에서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골목을 지나가는데 6~7살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둘이 살림살이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다른 아이 보고 꺾고 고함을 질렀는데 다른 아이는 즉시 반사적으로 "야!!! 애 떨어지겠다." 그들은 바로 옆에서 누가 군화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있는데도 관심 없어 보였던 것으로 보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 The 2nd episode

It was a rainy day in April 2016 in rural Pennsylvania, I was taking 2 grand kids to elementary school.

School ground was wet and strewn with earthworms[지렁이] and was difficult to find spots to put foot on.

Then I noticed 2 girls about 6 to 7 years old were walking along while trying to avoid stepping on earthworms. Suddenly one girl said to the other. "I hate these earthworms!!!, it ruins my sex life."

Then both girls laughed loudly and kept going to enter the school building.

# 졸업30주년 기념여행(오사카·교토·니혼)

글 \_ 손호돈(54회) 동문

## 첫날 오사카

1980년에 의예과에 입학해서 1986년에 본과 4년을 마치고 졸업하고, 벌써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때의 스무살 청년학도들은 이제 반백이 훌 넘었다

5년 전에 졸업 25주년 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온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30주년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으니 40주년 여행도 먼 훗날의 일만은 아닐 듯싶다. 졸업 25주년 여행을 총무로서 준비를 했고, 이번 30주년 여행은 동기회장으로 준비를 하였다

처음 여행신청자를 받을 때만 해도 약 30명 이상의 동기들이 참가의사를 밝혔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 수록 여행을 못 갈만한 사정이 생기는 동기들도 늘어나서 결국 14명의 동기 부부만 다녀오게 되었다. 부인들 포함 총 27명이 경북의대 54회 대표로 여행을 다녀온 것.

날씨는 비교적 좋았고 대구에서 출발한 17명과 부산 경남에서 김해공항으로 바로 온 10명의 동기부부 합쳐서 27명 모두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공항에서 만나 발권과 수하물 탁송을 마치고 공항 3층 한식당에서 같이 아침식사를 하였고, 8시 50분 대한항공을 타고 약 1시간 후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공항에 도착 1시간도 더 걸려 입국수속을 마치고 준비된 버스에 올랐다.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후 항공기 계류장에서는 모노레일로 공항 입국장으로 이동하였고, 연휴라서 입국장은 매우 복잡했고 1시간 이상 걸려서야 겨우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준비된 45인승 버스를 타고 오사카 시내로 이동, 난바거리에 있는 회전초밥 식당에서 맛있게 점심식사를 하고 도톤보리와 신사이바시를 구경하였고, 오후 4시에 교토로 이동하여 기모노차림의 여인들이 많이 보이는 기온 거리를 걷고 아사

카 신사를 구경하였다.

저녁식사는 교토 특유의 가이세키요리를 먹고, 예쁘게 꾸며놓은 식당 정원을 구경하였다. 교토는 특히 두부 요리가 많고 두부를 즐긴다고 한다. 그 이유는 두부가 불교와 같이 일찍 전래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교토지역이 물이 좋아서라고 한다.

저녁식사 후 숙소인 오츠시(大津市) 오츠프린스호텔로 가서 여장을 풀고 야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38층의 스카이라운지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둘째 날 교토

이번 여행 계획은 약 1년 전부터 준비하였으며, 단체 관광이라 여행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대구 동서여행사에 연락하여 항공권 및 숙소 예약과 현지의 관광스케줄을 의뢰하였고, 우리가 여행을 하는 5월 5일 연휴가 일본은 물론 중국도 황금연휴라서 오사카나 교토 시내의 숙소는 너무 비싸서 교토에서 30분 거리의 오츠시에 있는 프린스호텔을 좋은 조건에 예약하였다. 오츠프린스호텔은 위치가 시내가 아니라는 점 빼고는 모든 것이 훌륭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텔 주변 호수공원을 산책했는데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아서 정말 멋진 호텔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기들과 같이 맛있게 아침식사를 하고 9시부터 둘째 날 관광을 시작하였다. 여행을 하면 다 그렇지만 동기들과 가족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표정이었으며,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느긋하게 관광을 하기로 하였다.

이 날은 교토 관광.

교토(京都)는 8세기 말부터 사무라이 막부가 에도(동경)에 도읍을 정하기 이전까지 천년 이상 황궁이 있던 일본의 옛 수도이다. 간무천황이 나라에서 교토로 천도를 하면서 중국 장안을 본떠 만든 도시이며, 우리나라의 경주같은 도시이다.







일본 국보의 20%가 교토에 있을 정도로 교토에는 세계문화유산이 즐비하다.

그런 아름답고 고즈넉한 전통의 고도 교토에서도 청수사(키요미즈테라)는 대표적인 불교사찰이고 관광지이고 문화유산이다. 다행히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도 폭격을 맞지 않아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헤이안시대에 만들어진 교토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청수사와 내일 가볼 평등원(보도인)이다.

청수사는 10년 전에 작은 아들이랑 왔을 때 모습 그대로인데 본당 옆에 공사를 하는 곳이 있어 미관이 좀 거슬린다. 오후부터 내린다는 비가 청수사에 도착하니 벌써 부슬부슬 가랑비가 내렸다. 우산을 쓰고 구경을 하는데 조금은 아쉽다. 이 멋진 풍경을 가을 단풍철이나 봄 벚꽃 만발할 때 보면 더 좋을 텐데. 가을에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당을 지나 포토존에서 바라보는 청수사의 모습은 정말 멋진 예술품 같다.

세 갈래 물줄기의 물을 받아 마신다. 사랑, 부귀, 건강의 세 물줄기 중에 한두 가지만 마시면 되는데, 욕심 부려 세 가지 물 다 마시면 도로아미타불 아무 효험이 없다고 한다.

청수사 입구에서 기온거리로 이어지는 골목길이 유명하다.

이 골목길은 미신같은 전설이 깃든 길인데, 임산부가 이 골목에서 넘어지면 3년 안에 죽거나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산넨자카(삼년판)라고 하고, 또 그 옆길인 니넨자카(이년판)는 걷다가 넘어지면 2년간 재수 없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화를 막으려면 근처의 상점에서 부적을 사야 한다. (아무래도 장사치들이 지어낸 말 같은데) 아무튼 골목이 마치 유후인 거리를 연상케 할 정도로 아기자기하고 볼거리 살거리가 많다.

많은 관광객들이 기모노 차림으로 이 거리를 걷는다.

튀김우동 정식으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금각사를 보고나서 아라시야마에 갔다. 비는 점점 더 많이 내렸다. 그래도 비가 내려서 운치 있다. 금박 입힌 지붕과 멋진 연못 조경의 금각사는 10년 만에 다시 봐도 역시 멋지다

아라시야마는 교토의 서쪽에 있는데 교토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을이다.

최고의 조경을 자랑하는 천룡사(텐류지)에서 연못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하고, 신비로운 대나무숲 치쿠린을 걸어보고 유명한 장편소설의 배경인 노노미야 신사도 보았다. 유명한 아치교인 도케츠교를 건너 조그만 카페에 앉아 동기들과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담소는 여행의 여유를 즐기게 해준다.

둘째 날 교토관광 일정이 끝나고 맛있고 푸짐한 고기뷔페로 저녁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가서 쉬는데, 많이 돌아다닌 탓인지 피곤해서 나는 초저녁에 일찍 잠이 들어버렸다.

### 셋째 날 나라현

비는 간밤에 그치고 오늘은 흐린 날씨다

폭 자고 일어나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필요한 짐만 백팩에 넣고 나갔다. 오늘도 역시 9시 출발이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원 정시 탑승이다 어제 지각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렸더니 오늘은 완벽하다.

오늘은 나라현으로 간다. 나라현에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고대의 아스카 불교문화를 간직한 법륭사(호류지)와 헤이안시대의 왕성한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동대사가 있다. 간무천황이 수도를 교토로 옮기기 이전의 고대국가로서의 일본의 유물과 사찰들이 많이 남아있는 유서 깊은 지역이다.

어제는 천년 수도 교토를 돌아보았고, 오늘은 그 이전 시대의 수도를 보게 된다. 어제 본 교토가 경주라면 오늘 보는 나라는 부여 정도 되겠다.

시대 순서적으로 보면 법륭사, 동대사, 평등원을 보고 교토 청수사와 천룡사를 보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최근 지어진 사찰을 먼저 보고 역순으로 고대 사찰을 보게 된다.

교토에서 나라현으로 가는 길에 우지시에 있는 평등원(보도인)을 먼저 보게 되었다. 평등원은 청수사와 더불어 일본인들이 대단히 아끼는 유적이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에 세워진 평등원은 부처의 자비가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다는 의미로 지어진 절이다. 봉황당은 일본 화폐의 10엔짜리 뒷면



에 모델로 나올 정도로 유명하다.

동대사 본당인 금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목조건물로 이름이 나있다. 새로 지어진 것이 이 정도 크기인데 예전에 불타기 전의 금당 크기는 지금의 세 배라고 하니 그 규모에 입이 썩 벌어진다. 청동불상의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높이가 무려 16미터). 그렇게 큰 불상과 절을 짓다보니 나라 시대가 저물었나보다.

사찰도 볼만하지만 먹이를 주면 끝까지 따라오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사슴들을 많이 볼 수 있음도 하나의 즐거움이다.

고구려 출신의 승려화가인 담징이 그렸다는 금당벽화와 비천도가 있는 범룡사(호류지)는 우리나라 불교사찰과 비슷한 점이 많은 절이다. 7세기 초 일본 불교종흥의 시조인 쇼도쿠태자(성덕태자)에 의해 건립된 성덕종의 총본산이다. 당연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금당과 5층탑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고 한다. 서원과 동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복궁보다 더 넓은 것 같다.

금당과 5층석탑 그리고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당벽화 탁본과 비천도 진품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었다가 돌아온 백제관음상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백제관음상에 대해서는 주인공이 백제의 성왕이다. 아좌태자다 등등 설이 많은데 백제인인 것은 틀림 없을 듯하다. 그 오랜 세월 지났음에도 나무로 만든 이 조각상이 썩지 않은 이유는 녹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절 안에 큰 녹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이며, 이후 백제 성왕과 신라 법흥왕 시대에 각각 불교가 공인을 받게 된다. 하루에 가장 인기 있는 나라현의 절 세 군데를 다 돌아보았는데, 패키지 여행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토로 돌아와서 저녁식사 후 멋진 야경이 보이는 호텔 스카이라운지에 모여 색소폰 연주도 듣고, 생맥주와 동창회장님의 하사품 양주를 나눠 마시면서 여행 마지막날 밤을 즐겁게 보냈다. 이제 내일이면 이번 여행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다.

### 마지막 날 오사카성

오늘은 오사카성을 관광하고 점심 먹고 오사카 시내에 있는 우메다 공중정원 전망대를 구경하고 공항으로 가는 일정이다. 오사카성 관광 대신에 9명은 오사카 성당을 찾았다. 오늘이 주일이라.

오사카성 역시도 10년 만에 다시 와본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듯하다.

오사카성은 15세기에 이시야마 혼간지(일본어:石山本願寺)라는 절이 있던 자리에 지어진 성인데 오다 노부나가의 공격으로 사찰이 불타고 수많은 스님들과 인명이 죽었다고 한다. 그 자리에 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성을 축조한다. 그런데 히데요시의 성도 오사카 전투로 인해 불타고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지어졌다.

오사카 시내의 한식집에서 한식뷔페로 점심을 먹고 오사카 신시가지에 있는 우메다 공중정원으로 갔다. 여기는 360도 사방으로 시야가 확 트여서 오사카 전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데 아마 밤에 오면 야경이 매우 멋질 듯하다.

공항으로 오는 길에 링크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에 들러 간단하게 쇼핑을 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수속을 마쳤고, 저녁 7시 비행기에 탑승 약 1시간 정도 후 김해공항으로 귀국하였다.

연휴 끝이라 여러 비행기가 한꺼번에 도착해서 짐 나오는데 1시간이나 걸렸고, 부산 경남의 친구들 먼저 보내고 대구 동기들도 전세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 맥주 준비를 안한 것이 아쉬웠다. 이럴 때 한잔 시원하게 했어야 하는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다. 밤 늦은 시각에 어린이회관 앞에 도착하여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헤어졌다.

졸업 30주년 여행은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났다. 나의 소임도 끝났고 아쉬움만 남았다. 그래도 다음 여행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건강하기만 하자.

다음 동기회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가을 무렵 9월 말에는 부부동반 동기야우회를 1박2일로 사천 남일대 리조트에서 할려고 계획 중이다.

## 859 우정의 합창 여행

글 \_ 박용진(59회) 동문

1. “애ㅇ~ 코~올~~~ 앵~쿨~~”...지휘자는 다시 들어오고 “... 그대 그리고 나 ~~아 ~” “짜짜짜~~와아 앵콜 더 해라 ~” 그렇게 ‘망각, you raise me up, 우정의 노래, 그대 그리고 나’ 4곡의 합창은 끝났다. 이죽내 교수님께서 “잘했어... 훌륭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아주 좋았어 수고했어.”라고 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 교수님” 눈물이 핑 돈다. 다행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 들키지 않았다.

2. “합창곡으로 3곡 이상은 지겨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문합창단도 아니고...” “저도 동감합니다. 3곡 이상은 무리입니다.” “난 3곡도 제대로 소화 못 시키고 있는데... 큰일이네.” “저는 아직 가사도 다 못 외웠어요.”

3. “합창단 생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뜻은 좋은데... 아무리 많이 모여도 15명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다들 마음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다들 바쁘는데 마음은 있어도 오기 힘들 겁니다.” “다 비슷하지. 조금만 마음내면 안될까? 같이 하자! 넌 나보다 노래 잘하잖아~” “아니에요. 난 노래 못해요... 그냥 노래방에서나 하는 거지ㅎㅎ”

“좋은 생각이신데 전 마음만 참석할게요!”

“노래는 좀. 나중에 치킨 사들고 위문 가겠습니다.”

“쌤~~ 고생 많아요... 전 노래는 진짜 자신 없어요!”

“죄송해요 쌤 ... 수고하세요”

4. “도저히 못하겠다...노력했는데... 몇 번 연습해봐도 도무지 늘지가 않는다. 난 안할래.” “야~ 다 비슷해... 나는 뭐 노래 잘해서 하나! 같이 하면서 더 친해지는 거지. 노래 자체가 목적은 아냐. 알잖아.” “정말 미안한데 더는 못하겠다.” “나도 힘들 것 같다. 공연날짜에 한국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미안 ~ 수고해라.” “OO쌤이 이번 주에 안 나왔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네요. 아무래도 지난 수업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내가 전화해 볼게~ ... 뚜뚜뚜...”

5. “휴~~” 고개를 떨군 지휘자님은 다시 힘내어서 “어차피 전문 합창단이 아니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발표를 할려면... 1년 남았으니 어찌 되겠쥬. 하하...”

자 열심히 해 봅시다. 우선 호흡부터... 입 짹짹 벌리고. “아아아아~” ...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 다 일어보세요...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지난번 결석하신 분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휘자님 살살하세요... 다시는 안 나올지 모릅니다.ㅠ ㅠ”

6. 졸업 25주년 기념 홈커밍 행사 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들의 행사인데 우리가 직접 뭔가를 해야 해... 선생님과 동기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야. 단체로 하는 것은 합창이 최고인데, 과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까? 아! 어떻게 말을 꺼내지... 과연 반응이 어떨까? 일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고, 혼자 앞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모든 것은 오픈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의견 조율 후 진행해야 해. 그래도 합창하려면 적어도



왼쪽 박용진, 오른쪽 황동하 동문과 합창단원들

1년 전에는 시작해야 하는데... 일 진행이 늦어도 음악 이전에 우리끼리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해... 不信無立, 동기들의 잠재력을 무한 신뢰해야 한다(약 2년 전 P's brain).

7. 좋은 생각이다. 일단 니가 한다면 나는 찬성이고 밀어 줄게. 나도 참석할게(황동하 회장). 좋은 생각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꼭꼭 밀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단장으로 추천하신 분은 좋은 분이시지만 바쁘고, 합창단 하다보면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단장은 직접 맡아야 할 것 같습니다(정재균 총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총무 하죠. 열심히 도와 드릴게요(권범찬 합창단 총무).

8. 어렵게 시작하게 된 합창단은 카톡으로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첫 만남에서 투표 끝에 만나는 빈도, 요일, 지휘자님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동기 중 음악을 잘 하는 황준구가 좋은 지휘자님을 모셔와 주었고, 활동 내내 악보 및 여러 음악적 부분을 뒷받침해 주어 큰 시름을 덜 수 있었다. 우정가든이라고 명명한 이정우, 이미정 부부 개인저택에서 창단식을 하며 “우리는 무조건 잘 될꺼라”라고 외치며 힘찬 출발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희망과 동시에 엄청난 걱정을 안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감당할 만큼은 성장해 있었습니다.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며 전체를 위해 개인적인 것을 희생할 줄 아는 멋진 면들을 간직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9. 김정민 교수의 제안으로 갑자기 결정된 행운의 밤 행사 참석, 준비가 덜 되어 있지만 실전 연습이라는 핑계로 참석하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중간마당의 잔디, 아... 얼마만에 느껴보는 것인지. 좁아 터진 교실에서 나와 겨우 숨 쉴 공간을 제공해 주었던 그 중간마당은 정말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모교 교수님, 선배님,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홈커밍 행사와는 또 다른 감흥을 주는 좋은 행사였습니다. 우리의 합창에 학생들이 춤을 추면서 동참해 주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창회도 좋고, 학생들도 즐겁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아주 좋은 추억거리를 가지게 된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10. D - 1 : 11시 넘어서까지 리허설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입장, 퇴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까지. 지휘자님의 세심한 배려로 우리는 더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러한 경험을 해 보겠습니까... 아마 평생 하기 힘든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11. D-day : 리허설은 했어도 긴장되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게 준비한 4곡은 우리들의 1년을 뒤로 한 채 그렇게 퍼져 사라져 갔습니다. 많은 교수님들과 동기들이 너무 좋았다는 평가를 해주어 과분한 칭찬에 민망스러웠지만 한편 긴 마라톤을 완주한 느낌이 온몸을 자극하면서 엔돌핀을 분비시켜 우리의 누런 이빨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행사를 마친 지 벌써 2주가 넘었지만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대 그리고 나 ~~”가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들의 25년은 그렇게 흘러가고 또 다른 25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또 같이 갈 것입니다...

12. 그동안 너무 수고한 소프라노 권옥희, 김정민, 예미경, 이미정, 전은주, 최기숙, 최은진, 테너 구혜서, 권범찬, 김철현, 안형수, 이기준, 이정우, 황동하, 베이스 박용진, 봉진구, 손현호, 신동규, 이장규, 정재균, 최성욱, 황준구 모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오늘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많은 은사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같은 길을 오랫동안 같이 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같이 갈 우리 859동기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859는 85학번과 59회 졸업생의 조합입니다.



### 성산이씨 3대 백두산 유람기

글 \_ 이우근(64회) 동문

자칭 백두혈통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북한을 지배합니다. 참 암울한 나라입니다. 대를 거듭할수록 동포들의 상황은 더욱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너무 안쓰럽고 집권군부가 많이 밉습니다.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보려 대구에서 삼대가 떠납니다. 백두산으로... 백두혈통의 사악한 기운을 응와(凝窩)혈통 성산(星山)이씨 삼대가 억눌러 보고자 합니다. 북한 인민들의 21세기식 해방을 위하여 ㅎㅎ 백두산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량강도 삼지연군과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걸쳐 있어 1/3은 중국땅이요, 나머지는 북한땅입니다. 단군 왕검이 태어난 곳이기에 우리 민족의 영산으로 받들어지고 있습니다만 만주족의 영산이기도 합니다. 최고봉인 장군봉(2,750m)을 필두로 2,500m를 넘는 고봉만 16개나 가지고 있어 이 봉우리들이 중앙의 천지(天池)를 감싸고 있는 형상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을 가고 싶었습니다. 여든을 눈앞에 두셨으나 아직은 정정하시기에 한 달 전 백두산을 삼대가 같이 한번 올라보자고 말씀을 드리니 흔쾌히 오케이 하십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매일 훈련 삼아 뒷산을 올라 체력을 든든히 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3박4일의 일정으로 준비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합니다. 백두산을 가는 상품은 도착공항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심양, 장춘, 연길. 이 중 백두산에서 가장 가까운 연길을 택합니다. 버스 이동 시간이 가장 짧아 조금은 덜 피곤한 경로입니다. 연길국제공항에서 백두산 북파코스(北坡코스)의 시작인 이도백하(伊都白河)를 향해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 중 도문시의 두만강가에 내려 맞은편 북한의 남양시를 조망해 봅니다. 20m 폭의 강을 넘으면 북한땅입니다. 간혹 높은 다리 위의 도로를 달리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물리적 거리는 얼마일까? 다리 위에서 5m만 수평이동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아! 5m구나. 도로가를 건다가 1m만 차로로 갑자기 뛰어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 1m인가? 목에 칼을 대고 5cm만 깊이 넣으면 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5cm? 삶과 죽음의 거리는 참 가깝습니다. 폭 좁은 두만강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도 비슷합니다. 행(幸), 불행의 거리가 여기서는 20m구나! 다시 차를 달려 용정으로 갑니다. 윤동주 시인의 모교인 대성중학교(용정중학교)에 들러 시인이 공부하던 교실에서 사진도 한 장 남깁니다. 차창 밖으로 일송정과 해란강을 조망하며 계속 달려갑니다. 북파코스의 베이스캠프인 이도백하에 도착해 짐을 풀니 벌써 밤 9시. 가볍게 맥주 한잔하고 잠을 청합니다.

백두산의 등산로는 4군데가 있습니다. 동파, 서파, 남파, 북파(파는 언덕이란 뜻의 중국식 표현). 이중 동파는 북한 땅에 있고 서파, 남파, 북파는 중국 땅입니다. 우리는 첫날은 서파로, 둘째날은 북파로 천

지에 오를 계획입니다.

등산 1일차 - 6시 모닝콜에 잠을 깨서 버스에 오릅니다. 1시간 차를 타고 서파로 이동합니다. 백두산 산행은 버스 산행입니다. 다시 셔틀버스로 갈아 타 2,200고지로 이동한 후 1,442개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엄청난 인파로 줄을 서서 올라갑니다. 중국 사람들 정말 시끄럽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계단을 올라서니 사위가 탁 트이며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영봉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백록담만 보다가 천지를 접하니 그 크기에 압도가 됩니다. 변덕 심한 날씨로 정상에 올라도 천지를 볼 수 있는 날이 며칠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상님의 음덕과 삼대의 지성이 하늘을 열었나 봅니다. 감개무량합니다.

금강대협곡을 지나 하산을 합니다. 뭔가 신령스런 느낌을 받아야 할텐데 무질서하고 시끄러운 중국인들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호텔로 돌아와 온천물로 몸을 씻고 삼대가 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술 한잔 따라봅니다.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던 것이 아버지와의 맛담배입니다. 아버지 가시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까닭은 좀 더 친해보고 싶은 제스처일 뿐이겠죠. 술이 약간 취해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맛담배 함 하고 싶은데예.”

아버지 왈 “그래, 나도 예전부터 하라카고 싶었는데... 담배 필라꼬 들락날락 함께 대화도 끊기고 안 좋더라꼬. 대신에 넘들 볼 때는 맛담배 하지마래이.”?

“알겠습니다.” 함께 담배를 피우며 부자간의 정도 더 쌓아봅니다. 약간은 더 친해진 느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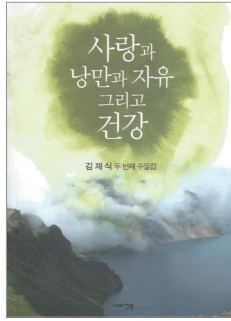
등산 2일차 - 새벽 5시 30분 기상입니다. 주말이라 많은 인파를 피하기 위해 일찍 나섭니다만 벌써 엄청난 인파가 입산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북파코스는 시작부터 천지까지 계속 버스와 승합차로 이동합니다. 한참을 산을 돌아 차를 내리니 바로 앞에 천지가 펼쳐집니다. 어제만한 흥취는 없습니다. 뭐든 반복되는 것은 첫 경험의 짜릿함을 넘을 수는 없나 봅니다. 하산 길에 장백폭포를 보러 갑니다. 천지에서 떨어지는 장쾌한 물줄기가 멀리서도 시원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산 후 다시 연길로 돌아와 북한식당에 들러 고량주로 천지의 감흥을 함께 나눕니다. 북한 아가씨들의 교태로운 공연을 관람하며 술잔을 돌리자니, 북한



여종업원이 다가와서 한마디 합니다. “아니, 남자들끼리 술을 왜 따르십니까? 제가 따라 드리시오.” 술잔을 받자니 신기하기도해서 사진 한 장 찍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안됩니다. 찍으시면 사고납니다.” 무서워서 사진기를 거두니, 술을 다 따르고 난 아가씨 왈, “남자들이 어찌 그래 겁이 많습니까? 찍지 말라한다고 정말 안찍으십니까?” 우리를 가지고 놓니다. 하지만 당하는 놀림에도 우리의 얼굴들은 스마일입니다. 이뿌니까요. 다 용서됩니다.백두대간.

백두산에서 시작한 산의 맥이 지리산까지 이어집니다. 이 맥의 시작점인 천지를 아버지와 함께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종손(宗孫)이신 아버지는 또 차차(次次)종손인 손자 녀석과 함께 천지를 본 게 너무 행복했다 하십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좋은 곳 함께 더 많이 다닐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 사랑과 낭만과 자유 그리고 건강

저자 \_ 김재식(28회) 동문

28회 김재식 동문이 정년퇴임 기념으로 낸 첫 번째 수필집(사랑과 낭만과 자유, 2001)에 이어 15년여 만에 두 번째 수필집(사랑과 낭만과 자유 그리고 건강)을 최근에 출판하였다.

모교 대학과 대학병원에서 학생 강의와 병원활동을 중심으로 국제적, 사회적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보고 느낀 인간생활과 아름다운 자연을 그린 수필집으로, 특히 재학시절과 봉직기간의 사랑과 낭만과 자유 그리고 건강을 다루어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국가를 추구하여 이상향을 목표로 이상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였다.

김 동문은 고 반남수(24회), 박상근(29회)과 김두희(29회) 동문과는 모교 동창수필동인(안행수필, 세계유일의 의학 단과대학 수필문학회) 창립멤버로서 경북수필과 영남수필동인회 활동을 시작으로 수필가로서 한국의사수필협회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김 동문은 재학생 활동에서 학생회 임원(후생부장 등)과 임상병리학교실 교실원 및 재직 중 학생써클 '의향회(MPS 지도교수' 그리고 병원 교육부장, 병원보 공보이사과 대학에서 도서분관장, 동창회 공보이사 등을 맡아 글을 많이 쓰는 역할 때문에 활동범위가 넓었던 연유가 수필 활동력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김 동문은 그의 직속 은사 고 김중명(16회) 선생의 영향이 컸다고 자타가 인정한다.

향후 제3집 발간 또한 준비를 하고 있다니 기대가 크다.

## 종소리, 세상을 바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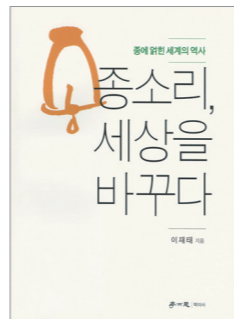
저자 \_ 이재태(50회) 동문

저자는 '종(鐘)'의 매력에 끌려 벼룩시장을 찾아다니던 시절부터 25년 동안 세계를 여행하거나 세상의 종 수집가들로부터 수집한 많은 종들에 담긴 각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 책은 그 중에 우리 인류의 삶과 세계의 역사와 관련된 종들이 전하는 사연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는 오래 전 인간과 하늘이 있고, 그들의 고유한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처음 만들었던 종소리, 인간과 동물이 서로 교감하던 위낭 종소리,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울려 퍼졌던 사랑의 종소리와 이른 아침에 깨운 사람을 깨워주던 탁상종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는 세상을 희망하는 저자의 염원이 담겨있다.

저자 이재태 동문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 종협회 회원이었다.



## 장학기금 모금 현황

구분	성명	기수	납부일자	금액
1	임정훈	63회	15.10.08	5,000,000
2	김덕하	45회	15.11.13	1,000,000
3	정순택	53회	15.11.30	1,000,000
4	지용철	43회	15.12.03	5,000,000
5	윤봉호	58회	15.12.21	1,000,000
6	김지화	58회	15.12.21	1,000,000
7	최경수	54회	15.12.24	1,000,000
8	김동석	51회	15.12.30	1,000,000
9	윤경철	54회	16.01.19	1,000,000
10	성준제	56회	16.01.19	10,000,000
11	이우근	64회	16.01.20	5,030,000
12	김문호	58회	16.02.23	3,000,000
13	심재훈	29회	16.02.26	1,000,000
14	북미주동창회		16.03.07	17,103,900
15	김정호	55회	16.03.16	5,000,000
16	지용철(동창회발전기금)	43회	16.03.18	3,000,000
17	서장수	49회	16.03.24	1,000,000
18	김종서	49회	16.03.24	10,000,000
19	이관식	49회	16.03.24	5,000,000
20	송중원	49회	16.03.24	20,000,000
21	정현주	55회	16.03.24	10,000,000
22	인주철	33회	16.03.28	5,000,000
23	김재연	50회	16.03.29	3,000,000
24	강순병	49회	16.03.29	500,000
25	서노교	50회	16.03.29	3,000,000
26	배홍갑	49회	16.03.30	5,000,000
27	정현대	50회	16.04.01	3,000,000

# 장학금 1인1계좌 명단

\*괄호( )는 계좌수입니다. / 2016년 4월 17일 기준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b>16회</b> 홍선희	성창섭 이재양 이철상	권득기 권용주 김규호 김도상 김병화 김석구 김세현 김의원 박수연 배병원 소원영 신은식 안원호	김수길 김충남 최호섭	최성협
<b>17회</b> 최경달	정승환 정창근 조한제 최수년 황한호	김병화 김석구 김세현 김의원 박수연 배병원 소원영 신은식 안원호	<b>35회</b> 김대조 김무현 김영희 김장환 도종웅 박동술 박영남 이두룡 이원순 장충광	<b>39회</b> 강덕식 곽정식(5) 문정웅 박노삼 박순천 박진현 전의식 조남근
<b>18회</b> 이강수 이성구 전기영 조운해	<b>28회</b> 곽동수 구중수 김선홍(2) 김재식 김형규(2) 김희교 노수열 염우권 윤영길 이재창 정용국	신은식 안원호 이상원 이상화 이웅길 이종길 이종택 이학수 전병석 조세환	<b>40회</b> 곽재영 김성호 김옥동(2) 김완섭(2) 김일경(2) 김재승 김장균(20) 김홍조 도영구 도재욱(2) 박영호 서정규(2) 손승원 유병욱 윤병철 장길동 전석길 정재화(3) 조규홍 한승세	<b>42회</b> 김용탁 김의홍 김종식 김철규 김철수(2) 문덕균 변영우(10) 서석주 송재권 은종대 이광열 이규인(2) 이상호(5) 이정근 임해수(5) 정무달 정제명(2) 최병연 추연만 현성택
<b>19회</b> 김익동 배수동	<b>29회</b> 김두희 박병덕 박영춘 박진상 백영수 송화복 예민해 유병철 이강목 이건화 이경수 이승도 이중수 이진관	이상원 이상화 이웅길 이종길 이종택 이학수 전병석 조세환	<b>36회</b> 견일수 박형규 백용현 손건부 이창수	<b>44회</b> 김성호 김옥동(2) 김완섭(2) 김일경(2) 김재승 김장균(20) 김홍조 도영구 도재욱(2) 박영호 서정규(2) 손승원 유병욱 윤병철 장길동 전석길 정재화(3) 조규홍 한승세
<b>20회</b> 정우	<b>30회</b> 김두희 박병덕 박영춘 박진상 백영수 송화복 예민해 유병철 이강목 이건화 이경수 이승도 이중수 이진관	이상원 이상화 이웅길 이종길 이종택 이학수 전병석 조세환	<b>37회</b> 권광우 김종률 박기호 박노선 박동성 백인기(3) 신홍식 안영규 최용환 하청길	<b>46회</b> 강신수 김경선 김광훈 김법완 김재도 김지홍 박광우 배형일 백상헌 백운이 심일청 오천석 이경화 이석균
<b>23회</b> 김희철	<b>31회</b> 백봉수(2) 안재두 이상원 이재현	이상원 이상화 이웅길 이종길 이종택 이학수 전병석 조세환	<b>38회</b> 김규태 김태곤 이원기 정영복	<b>48회</b> 김홍태(2) 남상재 배선익 백철운 안도환 유성호 유원식 이기호(2) 이병수 이원길 이종태 이호성 정만진 하종섭 허정욱 황성규
<b>24회</b> 정균용 함덕상	<b>32회</b> 신현국	이상원 이상화 이웅길 이종길 이종택 이학수 전병석 조세환	<b>41회</b> 강임주 김경년 김곤홍 김성학 김시열	<b>50회</b> 강동기 곽정호
<b>25회</b> 이정호	<b>33회</b> 김형우 이석강 이학용 인주철 최명부	이상원 이상화 이웅길 이종길 이종택 이학수 전병석 조세환		
<b>26회</b> 곽각순 김재수 박노택(5) 이우홍(2) 황일우	<b>34회</b> 김형우 이석강 이학용 인주철 최명부	이상원 이상화 이웅길 이종길 이종택 이학수 전병석 조세환		
<b>27회</b> 김경수 박근수 박재호	<b>35회</b> 김형우 이석강 이학용 인주철 최명부	이상원 이상화 이웅길 이종길 이종택 이학수 전병석 조세환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박경동 박근목(5) 배재기 배효근 백명규 백옥지 변인수 안성열(10) 윤영국 이상도 이재우 장한기 최광식 최덕현 홍정길 황규홍	김정도 박노문 박동철 박재식 박재우 방용준 방인화 백태원 안대덕 우성구(2) 윤덕구 이진식 장병준 장사상 장운하 전상식 전진곤 정화선 조동규 조병권 조성경(2) 조영철 조원현 지용철(10) 최수한 최시호 하인선 황보백	이웅렬 이윤상 이정권 이정규 임탄식 전명숙 조영래 함인석 홍승근	성주경 오세진 이인결(14) 이재백 이재석 정준현	이동현 이숙희 이왕복 이윤순 조영섭 최성만 탁기식(2) 하정상 홍순도
<b>39회</b> 강덕식 곽정식(5) 문정웅 박노삼 박순천 박진현 전의식 조남근	<b>45회</b> 고봉환 김광우 김도원 김성화 김종훈 김행미 김홍태(2) 남상재 배선익 백철운 안도환 유성호 유원식 이기호(2) 이병수 이원길 이종태 이호성 정만진 하종섭 허정욱 황성규	<b>47회</b> 김용신 김장희 김중호 남복동(5) 신순희(2) 유영구(2) 이재준 이준희 전민 정만홍 정영환(2) 정지윤 최광호	<b>49회</b> 강명수 권세일 김기산(3) 김중서(2) 김진우 김혜영 김호준(6) 박원대 박장환 배홍갑(2) 서장수(3) 손석수 손찬락 송국현 송중원(10) 신제균 안욱 오수희 오영철 이관식(3) 이봉우 이신하(2) 이재경(2) 이정국 임재양 임효덕(2) 천종율 최영철(3) 한창호(2)	<b>50회</b> 강동기 곽정호
<b>40회</b> 곽재영 김성호 김옥동(2) 김완섭(2) 김일경(2) 김재승 김장균(20) 김홍조 도영구 도재욱(2) 박영호 서정규(2) 손승원 유병욱 윤병철 장길동 전석길 정재화(3) 조규홍 한승세	<b>46회</b> 고병구 김석찬 김세웅 김인택 김재룡(3) 김중구 김홍식(3) 박태정(3) 서성조(5)			
<b>41회</b> 강임주 김경년 김곤홍 김성학 김시열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김규상	김재왕	홍영애	이종오	박병규
김금주	김태준	황영목	이택후(2)	박세영
김삼열	박만규		장원표(2)	박세협
김상유	박봉기	<b>52회</b>	장해운(2)	배재용
김재연	박성민	곽동협(5)	전상중(3)	변정환
김재황	박태준(2)	곽시영	전상훈	서경란
김정철	방종경(3)	곽철승	전시열	서중환
김중윤	서순애	구본신(3)	정경희	서창수
김중흥	성후식	권경훈(5)	정명희	손경호
박문흠	손희철(2)	권순환(2)	정용식	손수준
서역수	송광익	기세길(5)	정종철(2)	손윤희
서정옥	양원병	김경식(3)	조병채	손진호
안기영	오동원	김기홍	조완석(2)	송경은
유빈서	유경재	김동익	최병흔	송정흠
이동길	윤여득(2)	김상근	최상호(5)	신창재
이상락(10)	이경민	김순덕	최일석(3)	신현석
이유철(5)	이경수	김승일	최정규	여성우
이의효	이경영	김영조(2)	추진신(2)	오두중
이재태	이기만	김인산	하정희	오연희
이정철(3)	이명우	김재홍	함소희(3)	윤상열
정병욱	이상복(2)	김종일	홍성권	윤창섭
정현대(3)	이성희	김종호(2)	황윤진	이경옥
조현숙	이우녕	김현수(3)		이대원
최영택	이원석(3)	나건연(2)	<b>53회</b>	이명구
추동호	이재구	남문진(2)	강한구	이민석
함희원	이재호(2)	남해주	강희천	이민재
황용순	이현수	도은식(5)	권영식	이성구
	임영미	민병국	권종실	이정기
<b>51회</b>	임청호	박동보	금학조	이창영
강성희	장기호(2)	박승준	김규태	이태규
강인구(3)	장내원	박우용	김동찬	이형욱
고삼규	장대성	박일순(3)	김명성	정순택
권오중	장병원(2)	박재용	김세연	정호영
권일훈	정수영	박재울(3)	김숙영	조현열
권태우	정응표	박창근(2)	김시오	차호(2)
김광만	정진홍(5)	배성일(2)	김영호	최성관
김광석(2)	정철희(3)	손구현(5)	김원태	한승범
김대연	조총래	이기훈(2)	김재선	현향숙
김동석	지성구(3)	이상평	김정란	홍경순
김무원(4)	최성근	이성원(2)	김종원	홍기영
김병화	한금주	이장철(2)	나병천	홍주희
김신윤	한상철	이재동	류형우	황준하
김인영	허달영(2)	이정안	박매자	
김장락	홍성태	이종명	박민하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b>54회</b>	이영석	이충형	박준구	정병룡
강대욱	이은영	장재권(3)	박태인(2)	한영철
경희수	이재흠	장필식	박형근(2)	황정현
권영수(2)	장금미	전일훈	서선교	
권영오	장인석	정세주	서중수	<b>59회</b>
김동철(2)	장현정	정태호(2)	성이경	강원순
김병곤(2)	정동일	최규석	송준화	강준형
김수동	정두선	최병호	우언조	권성우
김시열	정상득	최유제	이덕희	김경환
김영진	정일경	한수일	이병현	김대현
김영환	정창수	현명섭(5)	이승걸	김삼식
김인겸(5)	정홍우(2)	황형식	이양일	김성우
김재홍	지용대		이종민(5)	김정균
김준욱	채영수	<b>56회</b>	정춘식	김정민
김태형	천종욱	강창성	주성진	김종근
김형표	최경수	권태균	천임순	김철현
남윤성	최동호	권태환	최도희(3)	김하균
도용희	최진교	금동윤	최성곤	김학수
류춘욱	최창혁	김병철	허현준	노동우
마도훈	하승우	김익수		류영호
박남운	허용진	김인환	<b>58회</b>	문상웅
박순우	황보근	김정국	구기영	박미영
박순원		김정수	권오수	박용진
박정배		김창희	김문규	백승희
백효종	<b>55회</b>	남창우	김성기(10)	백인화
서강석	구본섭	도황	김준홍	서인경
성기영	권영무	박완섭	김탁관	서종산
성승모	금중명(10)	박재현	류상건	서혁준
손병우	김문수	이국형	박서정	손성대
신영철	김병용	이양수	박용주	안형수
심영보	김상훈	이윤기	박정석	유선오
안중걸	김승업	이종곤	박창열	유진태
양완석	김정수	임동건	배성곤	이강경
여민희	김창호		서영익	이강룡
오승열(3)	김태상	<b>57회</b>	서울주	이기준
오태윤	문성두	김동희	서효숙	이미정
유병애	성영호	김문규(3)	신현수	이상미
유영수	오형호	김성중(2)	안승훈	이원훈
윤경철	윤광명	김수영	윤상흠	이장규
윤정수	이석중	김영애	이대원	이춘대
이경호	이상락	김용태	이상한(10)	장지훈
이상민	이재혁	박병준	이성원	전은주
이승재	이정형	박성식	이주형(2)	전홍배
이영미(2)	이종흔	박성진	이현춘	조영미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차승익 최현곤	윤종수 이영실 이종우 이준화 전영훈 정진용 제석준(2) 하영애 홍순만	<b>64회</b> 권동수 김태엽 민우기 박선희 박성현 박재홍 반정민 서문정 신경순 신무철 심삼도 여원욱 이규엽 이덕현 이명권 이우근 이정호(2) 이호원 전성우 제갈양진 천재민	김영은 김진덕 박지현 백승훈 변승득 손준혁 송선희 심진영 유충목 윤득현 윤창호 이동수 이상철 이진우 이현정 장재호 정보영 정영원(20) 조민현 조영호 최윤석 하경아	장윤환 조민정
<b>60회</b> 강천일 권대구 김경주 김기연 김보미 김소희 김정구 김정근 김정연 김진수 김태권(3) 김태석 김항진 문덕복 박찬정 서현주 신동필 신상훈 신재필 이경림 이광자 이숙희 이응배 이태현 정기재 정동휘 정보우 정재호 조유숙 한정훈	<b>62회</b> 곽선영(5) 권성희(2) 김경호 남근하(5) 박성빈 박진형 손희강 안원일 이건희 이응창 정태균 조병욱	<b>65회</b> 곽경화 김상기(3) 김주경 김찬중 류정임 박대홍 이동규 이상민 이선호 이은호 정원욱 정진향 조준형 조희준	<b>67회</b> 문성수 문준호 송승훈 이승훈 이용직 이정은 전보영 정운선 조지형	<b>70회</b> 김유경 신영아 최희정
<b>61회</b> 강현욱 권도승 김광훈 김수지 민복기 박우상 변재호 송광수	<b>63회</b> 곽경필 구지영 권소정 김건엽 김은경 김종열 김찬덕 나승찬 노현주 손재희 우창근 유은상 윤영묵 윤정보 이정미 이창현 장우호 조재현	<b>66회</b> 강봉구 금윤섭 김상옥 김세영	<b>68회</b> 남순영 성우진 이원채 정병진 하성조	<b>73회</b> 서창우
			<b>69회</b> 권도엽 이학성	<b>74회</b> 권문혁 김수정 김호찬 박가영 서관용 서안나 서원우 신미선 신수정 임재광 조윤정 조인지 지성근 최연경 최재혁 현효진 홍영기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정원 이현정	<b>82회</b> 김상원 김재경 김현 나동희 박지은 박현진 서영진 은효정 이주갑 이지선 이효재 이효정 정나리 지찬희 추윤주 홍원기	남민우 도종호 류호완 박경민 백경룡 서민규 우시형 이상은 이승제 이지운 전영동 제환주 진보현 진중화 최형준 황성현		
<b>78회</b> 권영기 김도훈 김병철 김보연 김아람 김창연 김현미 나주용 박정규 오홍근 전호중 진영주 최주열	<b>83회</b> 김성은 김영은 김재연 김현정 박병건 박서영 박준홍 오현민 윤지욱 이광민 이승우 장병주 전종복 최승혁 하대룡	<b>타교</b> 김갑철 최교만		
<b>79회</b> 권오영 김도형 김명수 박경민 박아영 송승호 윤가영 최우곤 황승현	<b>84회</b> 고귀한 곽지혜 권재익 김일진 김정령 김주현 김태경 김현겸			
<b>80회</b> 권정은 김세훈 김정심 김홍년 박정화 박찬호 유병혁 윤덕근 이명숙 이유진 최연주 탁지영 황종문				

# 기수별 전체 기금 납부 현황

(단위:만 원)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b>전1회</b>		박언서	10	안형채	20	이한기	30	정환국	110
권상규	20	배치도	10	오성근	20	차승만	10	주영은	10
최익수	10	서정해	20	원병식	100	허탁	20	지종민	10
		최석덕	20	윤병문	14			채의업	10
<b>전3회</b>		이대부	20	<b>16회</b>		최경달	96		
김명한	10	<b>8회</b>		이상원	620	고태영	20		
		박노옥	20	이종수	20	곽영수	120	<b>18회</b>	
<b>1회</b>		오복수	20	정필수	10,122	김만재	640	김경배	10
배강흔	10	전도기	10	최기대	300	김익영	20	김방영	100
송명도	1,720	허동섭	100	한동섭	100	김집	420	김세진	10
						김판조	20	김영곤	30
<b>2회</b>		<b>9회</b>		<b>13회</b>		석영관	120	김윤준	320
신학진	500	권오기	10	박희명	2,706	송재식	100	김중명	210
이중구	20	권오성	120	서순봉	616	신동수	120	김진욱	120
		김정만	20	송윤규	10	양구열	20	김찬규	25
<b>3회</b>		남영소	100	이달희	20	이강백	200	김천수	20
배상우	20	박윤갑	10	최치상	100	정재홍	110	김형수	20
이규원	20	박정득	20	황남덕	10	홍선희	406	문시갑	520
임종철	100	석종수	20			홍순옥	120	민병훈	30
정덕용	50	안지열	20	<b>14회</b>		황기석	210	박동수	20
		육돈상	100	강호균	20			박재식	560
<b>4회</b>		이성관	200	김명호	230	<b>17회</b>		박종길	20
김경훈	120			김영적	120	김지영	120	박종근	100
		<b>10회</b>		김영진	20	남태현	220	손해룡	30
<b>5회</b>		김규성	10	서철성	120	박진규	120	신동우	1,210
김회규	10	김승태	20	이기창	10	배기환	20	양묘소	20
이영진	10	김중일	20	최칠권	20	배동직	120	오성호	20
이주길	400	김태수	20			백의태	220	윤능기	10
최효중	20	이동식	320	<b>15회</b>		서주익	20	윤정우	100
허균	20	최근유	100	곽수돈	20	서창석	20	이강수	817
		홍기윤	120	김성화	41	소인영	20	이근영	50
<b>6회</b>				김용복	20	안두홍	510	이동식	279
김기출	30	<b>11회</b>		김인현	10	오삼달	20	이명화	200
박하윤	20	김위상	120	김철희	20	오상진	120	이상재	37
배중호	20	김한수	100	김환룡	10	우원형	10	이성구	1,136
정환탁	100	신대식	20	남택승	10	이기영	300	이숙희	20
		이원기	120	박두복	10	이동경	20	이인희	20
<b>7회</b>				백병택	20	이삼영	120	이재근	20
김만달	4,510	<b>12회</b>		송조명	120	이상성	320	이철우	320
남궁균	20	박우순	10	이종탁	20	정재규	110	이태호	210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필우	100	빈남수	130	김중태	10	문세광	110	<b>26회</b>	
전기영	230	오창열	4,018	김희철	290	민병택	10	강두경	10
정동춘	20	이기영	20	오학근	451	박양규	20	강성규	320
조운해	25,501	이해관	30	오학술	121	박영관	10	곽각순	109
황남철	30	정병화	25	이상준	320	박영해	10	김강오	20
황훈	20	정우	126	장익주	100	박정열	306	김근주	24
		최보영	20	최호섭	21	박준식	2,230	김동락	96
<b>19회</b>				<b>24회</b>		박찬우	20	김병희	10
권재성	10	<b>21회</b>		김경환	3,400	변기수	510	김상하	210
김성중	25	권용환	10	김한빈	20	변동길	20	김원배	20
김성호	20	김동성	10	박무철	20	서성탁	400	김정훈	500
김영수	20	김성대	100	백성기	200	서영욱	10	김재수	176
김윤자	10	김종덕	120	서상하	20	서재주	10	김종대	20
김익동	1,019	박성열	120	송태중	210	소병국	20	김종환	1,220
김한동	276	송창화	117	손태관	100	송길수	20	김진원	100
김형근	20	유태기	20	신장근	100	신도관	20	김치익	20
류명하	82	이종일	10	양달선	10	신용달	100	김태환	20
박금자	11	장병국	145	이동영	150	안재원	20	김희덕	10
박상성	25	정창용	20	이진희	20	안차관	20	박노택	1,705
박성대	10	차충석	200	이현식	20	예훈해	100	박병기	20
박해수	10	최병욱	20	이흥기	20	오태환	20	박상빈	20
박흥열	20			전택준	220	윤병오	11	박성규	100
배수동	54	<b>22회</b>		정균용	225	유희웅	20	박영훈	11
서병도	10	강현식	10	조성래	142	이광호	20	박흥진	20
서휘수	20	곽외경	20	조준승	1,110	이달원	20	백충기	2,020
손장락	20	곽종원	20	최동익	10	이선규	20	변재욱	20
양학도	12	김영권	20	한경식	20	이수동	320	서동익	120
오상건	25	김태순	10	함덕상	121	이원순	5	서치균	100
유호열	330	박영훈	200			이정호	337	성창수	20
이광직	20	박종서	68	<b>25회</b>		이해영	20	손건	10
이상한	20	서영태	20	강중신	120	장경식	86	송경오	300
이시춘	20	서원수	20	곽석순	20	정상진	20	송준영	10
이종담	12	이동희	10	김경식	20	정일동	20	신종열	20
전동우	12	이열희	10	김광	20	정재훈	192	심재기	20
정기홍	20	이형수	20	김동한	20	조중환	10	엄영세	20
정훈모	10	임학권	520	김병태	20	차상호	100	윤건호	100
조현숙	100	정우섭	10	김상욱	10	최형곤	201	윤주식	10
주용환	20	정희곤	223	김영배	12	하용마	150	이성규	50
최지환	20	최현호	2,200	김원식	20	한덕기	20	이우환	388
황우익	20			김용희	10	한석문	20	이원순	20
황흥주	10	<b>23회</b>		김원수	20	허만하	10	이은화	20
		김경수	195	남용진	20	황규택	20	이재운	20
<b>20회</b>		김달수	20	노영하	10,120	황현규	120	이표진	220
김기협	10	김재하	100	도창기	20			임태규	100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정봉조	525	이상배	8	김형규	428	도시금	10	권득기	1,278
정승화	10	이승현	120	김희교	206	박무근	50	권영진	70
정원근	20	이영식	20	노수열	97	박병덕	198	권용주	169
정태호	195	이재범	20	문한규	20	박상근	73	금동혁	20
정희교	206	이재복	80	민종기	10	박성득	20	김규찬	70
조기환	25	이재양	226	박양화	60	박영춘	103	김규호	151
조태호	510	이재인	100	박진홍	20	박자근	87	김도상	1,148
진정환	20	이종길	20	배종호	20	박진상	93	김병화	378
최성구	10	이철상	3,596	서재관	100	백부기	20	김석구	124
최홍두	10,190	이학구	20	염우권	206	백영수	132	김세현	228
홍근식	20	이현우	110	오범희	20	백종흠	100	김영기	96
황문수	20	장경식	20	유광수	20	서보상	20	김영수	65
황일우	432	전열경	20	윤영길	1,296	설수길	20	김원훈	20
		정명국	20	이규원	20	송문원	1,177	김의원	176
<b>27회</b>		정승환	198	이덕희	200	송화복	108	김종휘	70
강신학	10	정창근	924	이상계	5,169	신수범	20	김태목	50
강진무	10	조병호	20	이재규	100	예민해	188	김판석	70
곽판달	20	조장제	44	이재창	278	유병철	308	노명호	50
권성진	120	조한제	104	이한철	20	윤성직	100	류동근	20
김경수	230	최성근	150	이화동	11	이강목	233	박수연	170
김성진	20	최성욱	20	정용국	1,208	이건화	108	박재석	70
김찬우	110	최성천	50	정준택	20	이경수	226	박한승	50
박갑석	20	최수년	302	조근제	20	이근후	200	박희인	70
박근수	82	최우진	24	천덕녕	20	이보근	20	배병원	178
박우춘	20	최창록	10	최세영	20	이상석	20	배성호	20
박재호	93	최치교	200	한근섭	223	이성렬	20	백정대	10
배광원	20	하근수	102	홍진권	14	이승도	87	서정욱	10
배효인	25	하재창	10	홍형식	30	이재춘	20	서찬수	70
서동룡	10	홍성달	23			이종수	128	석진길	20
서정구	20	황한은	10	<b>29회</b>		이진관	273	소원영	380
성창섭	102	황한호	77	강상원	10	임종수	20	송석호	170
손두목	165			강석지	200	장원익	20	송준철	70
신채범	20	<b>28회</b>		강진성	10	장태수	310	신은식	2,077
예학성	220	고재우	100	강태생	20	정덕재	30	안원호	118
오준섭	10	곽동수	208	김광덕	20	정일현	1,100	안종호	3,350
유대우	200	구종수	206	김광식	20	정준모	400	오장석	477
유우호	20	권달만	100	김두희	310	정호문	20	윤석하	160
윤수한	20	권세훈	20	김병권	310	조수호	20	이두현	20
윤익진	220	김병일	220	김병만	10	한용섭	20	이병철	120
이교연	9,020	김봉기	10	김성배	20	허태득	30	이병호	120
이규원	4,800	김석구	30	김인홍	10			이상원	168
이만선	37	김선홍	152	김홍웅	82	<b>30회</b>		이상화	126
이민환	20	김재식	11,528	나진훈	210	강석현	60	이승욱	370
이병채	190	김창배	100	남상하	20	강창수	611	이시래	10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영우	20	안재두	260	박정하	20	박문재	120	서무삼	10
이웅길	1,170	양성기	320	배정동	20	박양서	10	서상하	120
이정창	60	엄정섭	200	서만수	100	박용기	10	손위익	120
이종길	168	오정대	20	서석권	10	박원길	10	오상유	220
이종택	370	유동림	23	신기준	5	박재훈	100	오영성	20
이진영	51	유정식	100	신현국	160	박진웅	613	이규청	177
이학수	180	유환무	20	신현수	20	박청길	20	이두형	10
임상근	35	이동일	50	오지섭	2	배억두	100	이용준	40
전병석	237	이문규	20	유안언	20	배원길	100	이용태	20
전재규	560	이병철	10	유영선	10	서정목	20	이장박	20
정태수	70	이봉조	100	이규신	50	송달효	100	이태열	10
정해돈	20	이상원	698	이수영	10	신태규	10	전상훈	14
조세환	458	이양우	120	이종학	528	양익석	20	정상봉	10
최익수	10	이용권	200	이주원	20	이규보	980	정영식	120
최종태	20	이재호	20	장세국	1,210	이동훈	120	조수자	110
최창대	20	이재현	228	장수일	1,110	이석강	174	최용교	20
최형달	100	이희석	20	전종수	20	이죽내	810	최호섭	206
한홍달	20	정복수	20	정기준	20	이학용	91	편영식	10
		지성우	20	정인호	20	인주철	1,719	하길풍	20
<b>31회</b>		최규태	5	정일수	17	전명흠	20	한기창	10
곽달현	20	최동철	66	정재영	235	전상연	20		
구자훈	310	최영달	200	정철용	20	전상훈	100	<b>35회</b>	
권병배	260	최홍두	200	조대현	20	전재욱	20	강백현	10,000
권병연	11	추병근	20	조복래	20	정상립	710	고윤표	20
김광태	20	황규성	32	조태환	310	정재룡	320	김대조	105
김병호	20			채병식	300	정종학	310	김무현	128
김봉석	163	<b>32회</b>		최동하	588	정한진	100	김부년	20
김승래	10	고철언	260	최원환	20	정해명	20	김상도	146
김영명	400	구문근	30	최중명	20	조상래	100	김성환	20
김영창	200	권영신	5	한영기	20	최명부	119	김영희	107
김종모	20	권영엽	10	황인원	20	황보상	20	김용언	210
김준	150	김경남	140					김윤수	20
남재만	20	김동진	470	<b>33회</b>		<b>34회</b>		김장환	110
류동림	20	김동환	120	강재도	10	강행복	296	김태홍	20
류성하	400	김성룡	20	권광보	220	고경환	88	김현석	20
박경화	16	김승팔	10	권오석	720	김규성	20	김훈남	230
박승국	10	김정만	120	김상철	310	김세호	20	도종양	202
박시균	100	김창연	20	김수철	20	김수길	228	류창수	20
백봉수	1,828	김태한	20	김용배	1,020	김원재	120	민병삼	120
변달섭	20	김홍석	20	김이민	163	김유문	110	박동술	1,988
서구덕	70	김홍태	100	김이호	11	김종섭	120	박삼균	20
석재수	400	김희태	476	김정두	20	김충남	328	박영남	148
손승원	20	박노대	100	김종목	20	나우연	110	변승렬	220
심달보	70	박승보	10	김형우	398	남위현	20	서수지	10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손영주	20	최영인	100	정문화	20	정영복	81	<b>40회</b>	
송남원	10	허진철	10	정성수	1,020	지선득	20	강달삼	20
이두룡	100	황재욱	20	조남제	20	최두석	50	고재휴	49
이성일	147			조수호	110	최선길	20	곽재영	336
이원순	1,397	<b>37회</b>		최용환	206	최성협	96	권오극	5
이장백	220	강복수	115	최준영	10	최영창	100	김선우	100
이충일	100	권광우	302	최현만	10			김성호	108
장병희	20	권옥진	10	하청길	184	<b>39회</b>		김신근	5
장충광	110	김광수	20	황명주	40	강덕식	1,871	김영규	10
정계호	20	김명한	10			곽정식	590	김옥동	230
정기용	10	김신동	10	<b>38회</b>		곽평순	20	김완섭	422
정정길	10	김연택	20	곽용철	60	김건희	20	김은우	30
지창준	10	김정만	46	구본출	1,650	김난희	100	김일경	318
최서규	20	김종률	490	권정윤	1,410	김능수	10	김재승	210
최유근	100	남영근	20	김관식	83	김인식	120	김종환	477
		남팔수	10	김규태	1,113	김희택	180	김주열	113
<b>36회</b>		문원만	20	김민상	100	도분순	20	김징균	2,742
강병조	120	문종웅	122	김승명	10	문영길	20	김홍조	110
견일수	108	박기호	77	김수	310	문정웅	1,286	김희숙	120
권국현	120	박노선	278	김유탁	100	박건조	2	남재우	20
김무룡	20	박동성	287	김은상	20	박노삼	210	도영구	310
노관식	10	박성대	10	김춘택	20	박란규	100	도재욱	292
문시언	220	박영철	200	김태근	118	박순천	449	박병렬	158
박노춘	29	박익현	610	김태준	20	박연목	1,120	박병철	220
박도수	400	박홍진	10	김풍택	906	박진현	117	박복음	20
박형규	126	백인기	334	김흥대	20	서영호	20	박순록	20
백용현	530	성기태	200	박동춘	110	서인수	1,110	박영호	230
백철홍	20	신홍식	484	박무길	200	안종철	3	박종한	25
손건부	108	안영규	101	박복환	10	우성구	60	박준식	10
손영우	10	안진상	10	박정한	100	우원호	20	배정인	10
송풍호	10	오현수	56	서중우	100	이동민	10	서성룡	50
심청택	20	윤용삼	120	송달원	10	이종태	300	서정규	230
염덕준	5	윤재호	200	안성훈	10	전익식	76	서준수	20
윤정직	10	이귀란	50	윤성도	10	정용한	20	손승원	102
이동행	50	이동구	351	이성동	48	정재명	100	유병욱	110
이영하	510	이원기	38	이승정	100	정정표	20	윤병철	110
이정범	1,370	이원락	120	이승호	92	정태훈	820	이동화	50
이창수	151	이정우	100	이원기	322	정해건	105	이성환	100
임종선	120	이청혜	80	이일웅	35	조남근	1,286	이승기	199
장기용	10	이현용	100	이장환	50	조호철	520	이영현	570
장신형	120	이홍일	2	이정수	100	조희웅	20	이학서	55
정수광	20	전수한	1,007	이총길	10	최동수	100	이호연	10
정영기	490	정구용	20	장성익	10	허동은	133	장길동	110
정희자	30	정동일	470	전재복	10			장상식	204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전석길	120	서보양	15	서석주	210	김정도	91	조동규	1,002
전재은	748	서정희	400	석준호	15	남수현	60	조병권	732
정기환	10	손수상	10	송재권	132	민병문	60	조성재	114
정봉진	5	안기현	54	신내철	100	박광서	80	조영철	423
정재화	340	안성열	2,635	안치효	220	박노문	472	조원현	105
조규홍	107	여운재	74	유동명	40	박동철	156	지용철	13,947
조성룡	300	오상영	83	은종대	1,157	박병탁	60	최수영	60
주종윤	10	윤영국	1,510	이광열	204	박봉훈	90	최수한	91
채종욱	120	은총기	44	이규인	206	박상열	260	최시호	373
최수승	75	이건수	332	이병승	50	박승해	60	최종익	60
한경훈	180	이달우	100	이상호	1,113	박재식	136	추연수	60
한승세	142	이동수	38	이정근	412	박재우	259	하인선	135
		이상도	130	이철재	50	방용준	89	홍태근	90
<b>41회</b>		이상범	440	임해수	545	방인화	76	황보백	152
강임주	710	이상훈	2,770	전병길	5	배연수	120		
고복현	20	이재우	110	정무달	212	백태원	179	<b>44회</b>	
구자영	10	이태석	10	정제명	520	손경식	615	강신수	100
김경년	109	임만빈	10	정현수	50	송인달	60	곽규식	348
김곤홍	270	임태진	10	조동택	300	신경호	60	김경선	136
김문섭	5	장명익	200	조만석	100	안대덕	88	김광훈	260
김병현	25	장봉국	59	최병연	142	안무식	60	김권병	10
김석원	28	장한기	110	최원석	116	양원석	8	김법안	172
김성학	299	최광식	308	최홍교	26	오태원	160	김애라	10
김세환	70	최덕현	189	추연만	162	우성구	131	김옥배	10
김시열	608	최한용	64	추우홍	50	유용운	60	김인호	10
김영철	20	하지운	150	현성택	332	육순황	160	김재도	84
김원호	1	홍정길	620			윤덕구	446	김종훈	80
김준한	5	황규홍	79	<b>43회</b>		이광숙	169	김지홍	108
김진만	55			강승원	60	이광윤	150	김택훈	10
김현철	62	<b>42회</b>		강정훈	60	이규석	70	박광우	54
류영석	20	곽정재	10	권광인	60	이길모	60	박영석	14
박경동	109	권태찬	10	권오영	64	이상무	260	박영재	137
박근목	3,132	김성구	50	권종수	110	이진식	395	박완석	100
박우현	10	김성주	605	권창운	1,860	임윤규	160	박인규	10
박윤규	290	김용탁	89	김건우	120	임정근	109	배옥석	10
박일수	393	김의홍	153	김광록	60	장병준	202	배형일	206
박종인	30	김중식	108	김교완	60	장사상	428	백상현	226
박효천	200	김진모	10	김기주	135	장운하	104	백운이	324
배상도	15	김철규	140	김대석	95	전상식	426	변영수	20
배재기	431	김철수	721	김보완	1,610	전진근	1,213	심일청	1,090
배호근	110	남해수	30	김성한	60	정덕수	60	오천석	108
백명규	129	문덕균	287	김세동	60	정상범	60	이경화	101
백옥지	120	방필영	20	김수복	120	정수기	60	이상숙	10
변인수	91	변영우	11,224	김여희	70	정화선	602	이석균	512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웅렬	128	이석형	20	서성조	135	김영근	30	김원섭	238
이윤상	4,380	이원길	566	서일숙	50	김용신	116	김윤년	10
이재민	30	이종열	45	서재성	15	김인주	600	김인섭	180
이정권	112	이종태	106	성주경	238	김장희	120	김인호	167
이정규	105	이호성	105	손재경	1,100	김제형	49	김일환	303
이태성	10	전영준	10	송가이	3	김종호	1,228	김지성	136
임탕식	185	정기목	300	송홍식	10	남복동	220	김창윤	85
장태식	52	정만진	91	신세원	855	박성배	10	김항재	744
전명숙	76	정희영	30	오세진	260	박영복	30	김형진	100
정상호	200	채종민	800	윤태현	30	박종대	30	류수현	199
조영래	202	최영욱	1,470	이강일	50	백승인	92	문병천	208
조영호	100	하중섭	106	이병진	100	변진석	210	민영기	100
한건호	50	허정욱	116	이상도	10	송광순	10	박운정	100
함인석	1,606	허찬희	30	이상찬	30	신순희	558	박일형	1,029
홍승근	108	홍영기	31	이수정	20	유영구	451	박재복	30
		홍진교	3	이은기	20	윤경식	30	박정세	30
<b>45회</b>		황성규	323	이인걸	992	윤만모	20	박준호	231
고봉환	252			이장진	100	윤확	100	박창용	447
김광우	107	<b>46회</b>		이재백	487	이상길	30	서경진	270
김덕하	200	강동구	100	이재석	126	이숙형	30	서민호	10
김도원	2,413	강명석	100	이창	382	이재준	162	손계학	208
김성화	991	고병구	139	이창익	100	이준희	106	손동렬	15
김영욱	210	권건영	10	이탁	10	이지욱	10	손명원	30
김영준	1,045	김대환	1,120	장기호	13	장신민	30	손은익	10
김용순	48	김병준	50	장재국	30	전동석	10	손혜경	98
김정수	400	김석찬	196	정선권	60	전민	107	신명숙	93
김종훈	296	김세웅	123	정준현	106	정만홍	84	안문영	596
김행미	370	김인규	200	정철호	10	정성광	603	양승윤	1
김홍태	212	김인택	410	조시복	49	정영환	481	이경열	116
남상재	106	김일봉	30	차순도	10	정용재	30	이규원	66
박병규	300	김재룡	10	채광수	30	정지윤	112	이근대	100
박용일	20	김중구	136	최병희	30	조승호	200	이내호	138
박진석	1,780	김철래	100	한기환	10	조희중	315	이동진	68
배선익	100	김홍	10	황창하	200	최광호	100	이동철	15
백철운	206	김홍식	13			최규태	10	이동현	202
변영주	500	박승구	20	<b>47회</b>		최재동	30	이수동	100
신현주	102	박영모	50	강상대	892	최창필	100	이숙희	580
안도환	112	박우순	30	고순봉	60	허석	100	이연생	100
유병하	21	박익수	10	곽완섭	30			이왕복	161
유성호	95	박태정	274	권기영	10			이용수	43
유완식	800	반재율	40	김광수	10	<b>48회</b>		이용우	30
이기호	193	백승기	700	김교선	695	권영철	186	이우형	177
이달우	100	백승조	100	김성조	100	김기식	10	이윤순	318
이병수	1,176	백영일	150	김수용	50	김두환	500	이인환	10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장봉현	525	서병현	66	권영근	76	최재호	100	성후식	127
전종완	100	서상일	140	김영태	1,391	추동호	96	손희철	125
정능수	500	서상철	33	김규상	74	함희원	101	송광익	136
조영섭	96	서장수	892	김금주	84	황용순	98	양상호	143
조지호	300	손석수	230	김삼열	137			양원병	185
채성철	800	손찬락	212	김상유	145	<b>51회</b>		오동원	114
천병렬	15	송국현	113	김수천	100	강성희	86	유경재	95
최봉태	20	송원영	40	김재연	792	강수찬	930	윤여득	125
최성만	107	송재영	100	김재황	72	강인구	208	이경민	167
최세영	10	송중원	5,010	김정철	575	강재원	39	이경수	144
탁기식	154	신세중	100	김종윤	93	고삼규	1,294	이경영	94
하정상	95	신제균	124	김종홍	101	권귀권	30	이기만	144
한승욱	30	안욱	184	김준식	10	권석룡	30	이명우	202
홍순도	125	오성태	100	김호각	90	권오중	94	이병태	30
		오수희	742	남필훈	30	권일훈	94	이상복	39
<b>49회</b>		오영철	208	박관규	10	권중혁	20	이성희	239
강구봉	100	이관식	1,114	박귀동	1,350	권태우	94	이우녕	94
강명수	174	이관호	210	박문흠	642	김경수	30	이원석	96
강순병	160	이광열	200	서노교	503	김광만	139	이원태	20
강철형	510	이병기	100	서역수	85	김광석	92	이재구	210
고철우	387	이봉우	201	서정욱	106	김대연	94	이현수	144
권세일	398	이승철	600	석대식	100	김동석	814	이형중	100
김기산	503	이신하	102	손경락	30	김무원	147	임영미	1,226
김동규	50	이재경	202	손윤경	720	김병현	84	임청호	94
김영환	100	이재성	100	안기영	281	김병화	174	장기호	76
김인자	300	이정국	101	우영훈	10	김신윤	527	장내원	101
김정식	501	이형일	20	유빈서	81	김인영	86	장대성	451
김중서	2,413	임재양	310	이동길	96	김장락	114	장병원	95
김주호	110	임호덕	132	이만기	1,075	김재왕	544	정경동	20
김진우	136	전덕하	100	이상락	110	김태준	124	정수영	94
김현준	143	정경재	100	이성운	30	김현구	30	정연웅	30
김혜영	177	정상윤	70	이영환	90	문현창	13	정용표	94
김호준	1,837	조영수	600	이유철	718	박만규	99	정인권	300
김효석	130	조정현	400	이의효	108	박봉기	194	정철희	96
문신길	30	천만희	31	이인규	10	박상운	100	조총래	124
문충열	100	천중률	54	이재태	1,146	박성민	444	지성구	126
박기홍	100	천중율	50	이정철	23	박우상	7	최성근	94
박원대	182	최영철	1,643	이종근	200	박윤현	13	최연국	30
박장환	106	한창호	102	정병욱	76	박은미	35	하용수	100
박정태	67	홍상현	105	정병천	100	박태준	32	한금주	79
박철희	10			정현대	484	방종경	276	한상철	100
배경일	159	<b>50회</b>		조현숙	336	백승남	19	허달영	380
배한익	367	강동기	92	지동하	43	서순애	109	현명철	268
배홍갑	709	곽정호	98	최영택	81	성차경	15	홍성태	94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홍영애	136	박우용	82	함소희	243	손구현	5	홍주희	70
황영목	79	박일순	396	홍성권	82	손수준	3,161	황순구	13
<b>52회</b>		박재용	606	황윤진	282	손윤호	100	황준하	73
		박재율	246			손진호	306		
강민구	174	박창근	264	<b>53회</b>		송경은	210	<b>54회</b>	
강병직	2,180	배성일	164		강현구	105	송도영		30
곽동협	710	배양규	6	강희천	71	송정흠	70	강영모	240
곽시영	82	백승찬	2,444	권순학	200	신언성	74	경희수	1,425
곽철승	66	백원진	320	권영식	76	신창재	70	권삼	55
구본신	246	손구현	405	권종실	70	신현석	70	권영수	158
권경훈	410	송국평	500	금학조	70	안종걸	63	권영오	1,346
권순환	164	심원보	30	김경률	61	여성우	196	김건오	74
기세길	410	이기훈	254	김규태	83	오두중	98	김덕영	40
김경식	246	이무상	1,000	김도현	100	오연희	69	김덕윤	40
김기홍	82	이상평	81	김동욱	30	윤상열	69	김동철	200
김도수	90	이성원	174	김동찬	70	윤창섭	74	김문연	40
김동억	101	이순화	27	김명성	70	이경옥	70	김민수	30
김봉재	3,950	이우기	25	김세연	70	이구희	150	김병곤	158
김상근	101	이장철	164	김숙영	82	이대원	106	김수동	1,048
김성록	15	이재동	84	김시오	567	이명구	70	김승호	40
김순덕	199	이정안	82	김영호	101	이민석	236	김시균	40
김승일	73	이종명	306	김용림	500	이민재	108	김시열	99
김영두	130	이종오	99	김원태	80	이성구	96	김영진	114
김영조	164	이택후	688	김재선	60	이재동	5	김영환	248
김용선	50	장원표	2,864	김정란	70	이정기	170	김원엽	40
김인산	1,268	장해운	264	김정용	22	이종기	53	김윤수	40
김재홍	84	전상중	246	김중삼	50	이창영	88	김은배	40
김중일	82	전상훈	86	김중원	70	이철	32	김의현	40
김중호	364	전시열	96	김희진	46	이태규	108	김인겸	3,292
김준우	100	정경희	101	나병천	111	이한일	900	김재홍	146
김철규	102	정명희	82	류한업	15	이형욱	70	김준욱	150
김헌수	246	정용식	196	류형우	169	장유석	15	김태형	99
김효경	130	정종철	162	박매자	48	정순택	850	김형표	20,586
나건연	1,264	정태훈	45	박민하	101	정호영	338	김홍환	40
남문진	164	조병채	2,372	박병규	160	조현열	70	남윤성	148
남혜주	118	조완석	164	박세영	408	조희태	1,300	도용희	148
도은식	410	최병흔	132	박세협	76	차호	154	류성렬	40
마인열	21	최상호	392	박창순	59	채석수	50	류성훈	40
민병국	1,082	최석용	1	배재용	76	최석관	970	류춘욱	99
박동보	81	최일석	346	변정환	70	한승범	54	마도훈	179
박동우	1	최정규	382	서경란	94	한창희	1,452	마성대	80
박성파	400	추진신	162	서중환	439	현향숙	69	박상운	453
박승준	73	허정희	475	서창수	69	홍경순	601	박순우	99
박신영	1	한상철	50	손경호	89	홍기영	70	박순원	148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박정배	99	정상득	120	김숙희	139	양시강	39	조용근	139
박한배	40	정일경	148	김승업	119	양정선	39	조지희	39
백효종	128	정창수	131	김승태	39	오형호	140	조창호	39
서강석	127	정홍우	449	김신우	39	우대영	39	채민수	39
서창식	40	조근태	195	김은영	69	우병철	39	최경희	39
서희석	300	주대현	40	김인수	39	유국선	39	최귀애	39
성기영	1,288	주인수	40	김재우	39	유도환	39	최규석	195
성승모	198	지용대	122	김재철	39	유미경	39	최병호	341
성열오	523	채영수	277	김정수	140	유정우	39	최영근	39
손병우	148	천중욱	230	김정호	569	윤광명	140	최율제	156
손효돈	150	최경수	144	김종진	39	이남혁	39	최정현	39
신영철	128	최광진	74	김창호	112	이동석	39	최한철	39
심영보	140	최동원	100	김태상	140	이명기	39	한석	65
안영호	40	최동호	471	김하식	539	이석종	445	한동길	39
양완석	205	최진교	2,055	김한복	39	이성락	106	한수일	224
엄재화	40	최창혁	128	김홍달	39	이수형	69	한준열	39
여민희	125	편도철	100	김희경	39	이시동	39	허동명	39
오승열	246	허승우	619	남대희	39	이영환	39	허주희	39
오태윤	128	허용진	208	문성두	106	이원기	39	현명성	462
유병애	205	홍성범	125	박기호	39	이윤근	39	홍성표	39
유영수	132	황보근	149	박선후	39	이응천	39	홍승표	39
윤경철	450	황정한	15,685	박성근	1,199	이재혁	125	황은경	39
윤영팔	40			박승우	39	이정형	140	황종문	39
윤정수	222	<b>55회</b>		박영명	44	이종흔	151	황중하	39
이경호	317		강경훈	39	박영호	39	이충형	140	황진복
이동현	40	강도원	5	박위태	20	이태우	39	황형식	133
이미경	40	강래균	39	박윤정	39	임시영	39		
이상민	347	구본섭	113	박재기	39	임종섭	39	<b>56회</b>	
이상화	40	권영무	69	박철호	69	장재권	299		감신
이승재	99	권장구	139	박혜경	39	장제주	1	강창성	110
이영미	158	금종명	729	배도호	106	장필식	135	권태균	352
이영석	149	김송	39	백호길	39	전일훈	283	권태환	310
이은영	99	김건순	1,000	상영호	39	정대윤	39	금동윤	72
이재흠	171	김광원	39	서광휘	39	정복현	39	김범주	45
이현영	40	김귀란	39	성영호	146	정세주	76	김병철	67
이호성	40	김대현	39	손상균	139	정승필	39	김수균	1,760
장귀련	40	김동환	39	손형규	849	정우식	39	김영인	40
장금미	59	김명규	39	송소현	39	정유근	39	김익수	160
장인석	141	김문수	135	신동건	39	정태호	193	김인환	67
장태원	40	김범진	69	신왕식	39	정학명	39	김정국	156
장현정	92	김병용	171	신정애	39	정현주	1,789	김정수	100
정규식	60	김상훈	344	신준호	39	정후재	39	김창희	106
정동일	116	김성엽	91	신충곤	59	조성재	39	남창우	109
정두선	148	김성철	39	신현호	39	조영환	39	노명호	36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노선주	13	서경미	20	박정석	112	류영호	102	<b>60회</b>	
도황	120	서선교	499	박창열	106	문상웅	66	강천일	85
박완섭	120	서중수	139	배성곤	73	박미영	76	권대구	101
박윤엽	5	성이경	140	서영익	106	박용진	102	김경주	101
박재현	76	송준화	995	서울주	101	백승희	102	김기연	101
박정철	100	우언조	76	서효숙	76	백인화	103	김보미	101
박한식	190	이덕희	66	소형태	90	변창렬	22	김상걸	200
성준제	2,900	이병헌	327	신승호	450	서인경	59	김소희	86
오창욱	1,090	이승걸	159	신현수	75	서중산	102	김정구	109
이국형	572	이양일	60	안병철	640	서혁준	184	김정근	101
이양수	4,846	이양현	200	안승훈	434	손성대	101	김정연	101
이운기	239	이종민	210	양은경	415	손현호	90	김진수	667
이종근	94	이준호	13	오주현	15	신동규	90	김태권	148
임동건	508	정병화	30	윤봉호	200	안형수	112	김태석	178
전석구	100	정춘식	101	윤상흠	76	예미경	27	김항진	101
정성훈	130	조경제	100	이대원	112	유선오	94	문덕복	73
조경신	50	주성진	107	이상한	3,802	유진태	110	박재찬	119
천근수	71	천임순	85	이성원	60	윤길숙	58	박찬정	107
홍원표	300	최도희	62	이주형	108	윤준혁	225	배호상	360
황윤근	10	최성곤	117	이헌춘	65	이강경	71	백승혜	450
		최형경	30	정병룡	219	이강룡	76	사공미	42
<b>57회</b>		추성욱	30	최정일	50	이기준	94	서현주	101
김동희	92	탁원영	460	한영철	265	이명선	90	손봉준	95
김문규	458	허현준	159	황정현	208	이미정	102	신동필	101
김성기	500			황정환	500	이상미	76	신상훈	74
김성중	158	<b>58회</b>				이영삼	30	신재필	106
김성호	50	강영순	150	<b>59회</b>		이원호	61	양동렬	720
김수영	77	구기영	109	강원순	75	이원훈	13	오상호	90
김영애	176	구태분	340	강준형	102	이장규	104	오승훈	90
김용태	242	권오수	75	공현희	400	이준대	102	이경림	101
김용현	720	금민수	50	권성우	104	장지훈	94	이광자	101
김은숙	100	김문규	81	권혁만	900	전은주	102	이숙희	60
김정열	1,240	김문호	530	김경환	109	전홍배	74	이응배	157
김철진	100	김성기	315	김대현	60	정기하	43	이태현	102
동가진	30	김영대	130	김삼식	94	정정은	30	임시수	30
박동원	200	김준홍	60	김상현	910	조영미	101	정기재	101
박병준	160	김지화	200	김성우	74	조재현	6	정동휘	61
박성식	86	김탁관	67	김정규	60	조준용	100	정보우	101
박성진	46	류상건	85	김정민	93	지문종	39	정재호	1,051
박정철	2,800	마상혁	5	김종근	94	차승익	205	조성	15
박준구	126	박기수	30	김철현	408	최현곤	107	조유숙	101
박태인	431	박서정	76	김하균	67	한형수	218	한정훈	601
박형근	176	박영진	100	김학수	85			홍은희	180
배용철	10	박용주	67	노동우	102			황정욱	475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b>61회</b>		김경호	11	조재현	97	이상민	98	조영호	13
강지원	78	남근하	365	이선호	71	이수현	71	최윤석	13
강진영	26	문철준	100	이수현	6	이은호	38	하경아	13
강현욱	96	박성빈	110	이은호	38	장원욱	1	<b>67회</b>	
고영민	950	박진형	208	장원욱	1	정원욱	75	김은주	6
권도승	11	손희강	81	김여향	9	정진항	46	문성수	106
김광훈	101	안원일	108	김태엽	18	조준형	82	문준호	96
김기영	41	윤성민	15	민우기	218	조희준	67	송승훈	72
김병준	34	이건희	108	박선희	103	채포희	34	이승훈	67
김수지	74	이수형	30	박성현	77	최세호	9	이용직	72
김영탁	48	이응창	76	박재홍	67			이정은	90
김준홍	84	정진욱	820	반정민	107			전보영	92
김태현	50	정태균	72	서문정	96	<b>66회</b>		정운선	92
민복기	5,045	조병욱	65	신경순	67	강봉구	13	조지형	85
박선영	20	조진흠	90	신무철	107	권오경	545	차영창	180
박우상	39	한만식	20	신용환	18	김윤섭	13	황승욱	37
박진영	18	황성주	6,735	심삼도	90	김나경	100		
박현숙	21			여원욱	76	김상욱	70	<b>68회</b>	
변재호	89	<b>63회</b>		이규엽	101	김세영	112	남순영	65
서영진	450	곽경필	66	이덕현	38	김영은	1,071	성우진	65
송광수	111	구지영	98	이명권	62	김진덕	13	이경열	39
신동주	450	권소정	73	이영두	31	류현욱	72	이용범	90
신태현	53	김건엽	376	이우근	3,404	박지현	13	이원채	516
유길종	15	김광우	900	이은주	100	백승훈	979	이재일	23
유택규	19	김은경	97	이정호	172	변승득	103	정병진	60
윤종수	53	김종열	102	이창환	23	손준혁	13	하성조	66
이병욱	15	김찬덕	106	이헌주	450	송선희	13	황준경	900
이영실	105	나승찬	66	이호원	106	심진영	13		
이정훈	981	노현주	103	전성우	115	유충목	63	<b>69회</b>	
이종우	164	손재희	103	제갈양진	116	윤득현	13	권도엽	157
이준화	112	양근진	333	천재민	38	윤창호	105	김성욱	13
이재용	120	우창근	15	한창규	630	이동수	13	박신률	5
임동현	100	유은상	206			이상철	92	배영조	52
전영훈	126	윤영묵	103	<b>65회</b>		이성만	900	우고운	50
정진용	67	윤정보	38	곽경화	108	이수현	65	이학성	66
정호윤	300	이정미	98	김난희	500	이재혁	15	장윤환	515
제석준	168	이지인	90	김상기	174	이정래	90	정덕원	64
추호식	5	이창현	38	김주경	57	이정호	320	조민정	74
하영애	136	이창환	29	김찬중	76	이진우	75		
홍순만	107	임정훈	500	김태훈	16	이현정	13	<b>70회</b>	
		장우호	603	류정임	96	장재호	13	김유경	59
<b>62회</b>		전태형	9	박대홍	67	정보영	13	박남용	500
곽선영	555	정승희	14	박창영	90	정영원	950	신영아	74
권성희	125	정충일	100	이동규	67	조민현	106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임태규	30	배지혜	60	<b>75회</b>		이경규	80	김도형	56
조장희	9	배현석	25	이경민	54	이용훈	44	김명수	58
최희정	100	서관용	112	허은영	19	이정원	81	김재우	3
		서안나	112			이창현	6	김한나	20
<b>71회</b>		서원우	112	<b>76회</b>		이현정	80	박경민	58
김지호	450	서현애	26	강민지	77	정주영	1	박아영	58
남경훈	14	성수경	64	강종안	67	진윤미	1	송승호	58
성현철	1,800	손원수	37	공호련	19	홍채문	68	윤가영	58
오수훈	90	송재민	47	김민철	39			이은지	10
		신근영	37	김상화	17	<b>78회</b>		이현주	3
<b>72회</b>		신미선	112	김석찬	6	권영기	70	임장환	3
박선민	16	신수정	111	김성욱	46	김덕영	15	최선하	10
석양기	75	신지연	9	김효진	7	김도훈	70	최우곤	58
최원호	10	심민성	47	박기원	13	김병철	70	황승현	58
		안용철	64	박효민	46	김보연	70		
<b>73회</b>		오정은	37	송창현	90	김숙경	29	<b>80회</b>	
서창우	78	윤지원	97	신동욱	14	김아람	69	강동진	30
정홍대	90	이정훈	42	신영민	8	김정환	9	권정은	49
		이재윤	37	양동진	8	김지은	22	김기범	13
<b>74회</b>		이현철	16	이경민	94	김창균	9	김세훈	49
강경모	64	임재광	112	이준호	36	김창연	70	김세희	34
강진영	11	임현정	37	장세영	94	김현미	70	김승범	22
고해진	24	임혜원	32	정희연	27	나주용	70	김윤안	17
권문혁	112	장은정	57	채수열	19	박은희	22	김재환	15
권미정	8	장정식	56	황두미	76	박정규	70	김정심	49
김균희	37	전고운	27	황인아	7	박준	13	김종현	16
김동협	57	전범수	52			오홍근	69	김홍년	48
김미영	12	정윤경	15	<b>77회</b>		이숙희	41	박정화	49
김수정	112	조윤정	112	고경균	33	임정아	55	박찬호	49
김윤정	31	조인지	112	김동섭	1	전호종	69	안수현	11
김주희	53	지성근	112	김미선	81	정윤영	49	안정민	1
김한바로	22	진미경	37	김민지	82	정현철	41	양승윤	19
김현숙	20	차현욱	180	김성진	1	조효정	15	오효정	1
김혜원	71	최민혜	37	김세현	82	진영주	70	유병혁	48
김혜인	37	최연경	112	김영중	6	채상훈	39	윤덕근	48
김호찬	112	최재영	22	김준영	82	천혜진	13	윤현수	49
김홍식	78	최재혁	112	김지현	82	최영연	32	이명숙	49
김희준	55	최지영	55	노진	82	최주열	70	이유진	48
목정민	37	하미진	62	배상근	6	최진혁	62	이종인	10
문나연	8	허준	56	배수현	56	홍한표	270	이혜림	39
문유호	72	현효진	112	석준호	81			정승연	12
박가영	112	홍영기	81	송준혁	7	<b>79회</b>		정혜진	32
박동찬	64	황준현	9	안수현	24	권수현	7	최연주	49
배종덕	61			여인환	82	권오영	58	최우찬	1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최준설	20	이승우	4	제48회 동기회 일동					
탁지영	48	장병주	10	10,000					
한경구	11	전종복	9	제49회 동기회 일동					
황종문	48	최승혁	10	9,500					
		하대룡	10	제50회 동기회 일동					
				9,500					
<b>82회</b>		<b>타교</b>		제51회 동기회 일동					
권준현	4	김갑철	103	10,620					
김병준	4	계명익대 2회		제52회 동기회 일동					
김상원	20	오희중	1,000	13,500					
김재경	20	계명익대 8회		제53회 동기회 일동					
김제연	11	하성윤	500	13,500					
김현	21			제54회 동기회 일동					
나동희	21	<b>기타</b>		14,000					
박지은	20	제16회 동기회 일동		제55회 동기회 일동					
박현진	13	1,000		14,000					
서영진	21	제18회 동기회 일동		제56회 동기회 일동					
은효정	20	1,000		13,500					
이승환	1	제24회 동기회 일동		제57회 동기회 일동					
이주갑	21	570		9,000					
이지선	21	제32회 동기회 일동		제58회 동기회 일동					
이효재	21	1,395		9,000					
이효정	21	제33회 동기회 일동		제7회 동기회 일동					
임춘근	12	450		500					
정나리	21	제37회 동기회 일동		제78회 동기회 일동					
지찬희	21	3,900		180					
추윤주	21	제38회 동기회 일동		경북대병원 기금교수회					
홍원기	21	3,000		270					
		제39회 동기회 일동		경북대병원					
<b>83회</b>		4,000		성형외과 동문회					
김석민	5	제40회 동기회 일동		4,500					
김영은	10	4,000		경북대병원					
김익환	3	제41회 동기회 일동		외과 동문회					
김재연	10	4,000		1,260					
김진	2	제42회 동기회 일동		경북의대 신경과학교실					
김현정	10	3,600		3,522					
남은정	2	제44회 동기회 일동		경북의대 울산동창회					
노희윤	4	5,040		1,000					
박병건	10	제45회 동기회 일동		동문테니스회 1,680					
박서영	10	6,180							
박준홍	10	제46회 동기회 일동							
오현민	10	6,000							
윤지욱	6	제47회 동기회 일동							
이광민	10	15,800							



## 북미주지부 장학기금 납부 현황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b>17회</b>		여병택	\$500	지연숙	\$300	김경현	\$100	윤징자	\$ 4,600
김태훈	\$800	여웅연.강반(31회)	\$101,600+4,200,000	<b>31회</b>		김광환	\$500	이박무	\$1,100
<b>18회</b>		이상국	\$600	강반.여웅연(28회)	\$101,600+4,200,000	김성용	\$500	이수광	\$4,600
유춘식	\$300	이해성	\$100	김경수	\$1,400	김정환	\$1,100	이영화	\$600
윤주덕	\$400	임병우	\$100,400	김재찬	\$4,700	박재무	\$1,100	이용웅	\$12,600
지성해	\$20,400+1,000,000	최중식	\$500+3,000,000	김재철	\$300	박희도	\$500	이태량	\$1,000
허규숙	\$500	<b>29회</b>		김정식	\$500	서태준	\$7,000	임청	\$2,600
<b>19회</b>		고우련	\$100	김찬수	\$1,300	신영자	\$100	장문찬	\$1,200
서욱	\$600	곽연식	\$100	김창환	\$200	안영환	\$1,000+6,480,426	장성길	\$1,300
<b>22회</b>		곽현주	\$100	김태수	\$100	오상완	\$1,800	전무영	\$1,100
김연호	\$20,390+2,000,000	김수생	\$400	김학진	\$100	이성수	\$800	정광혜	\$1,000
김풍환	\$100	김진길	\$100	노인환	\$1,600	이승영	\$1,000	최대식	\$400
<b>25회</b>		김진대	\$600	박노종	\$1,500	이영남	\$600	탁원균	\$1,500
고석경	\$300	심재훈	\$600+1,000,000	백익학	\$900	이영식	\$600	홍래복	\$1,400
김규진	\$600	이만희	\$300	서구원	\$900	이장우	\$500	<b>34회</b>	
전성균	\$500	정병락	\$600	송계원	\$600	이재수	\$1,500	고충환	\$10,300
정낙진	\$600	조광재	\$550	신중덕	\$200	이정윤	\$1,500	권기호	\$6,200+2,000,000
허룡	\$200	조홍래	\$600	신현찬	\$1,200	이중두	\$1,100	권석찬	\$2,000
<b>26회</b>		<b>30회</b>		안태룡	\$600	이창윤	\$500	김기춘	\$1,500
김종구	\$600	강자구	\$800	유상호	\$10,400	홍창익	\$500	김덕영	\$700
이세영	\$100	김범주	\$1,100	이석윤	\$1,100	황해만	\$500	김동윤	\$1,100
조종수	\$100	노대식	\$1,100	이영해	\$10,600	<b>33회</b>		남상규	\$10,400
<b>27회</b>		노재문	\$100	이종만	\$1,500	강석봉	\$1,000	문정오	\$1,300
김재호	\$100	노태균	\$1,400	임병선	\$1,000	고광빈	\$1,300	박내홍	\$5,300
양남도	\$1,000	박현동	\$700	임정규\$1,100+994,054	\$200	구자권	\$200	박대선.정근영(34회)	\$5,000+3,000,000
유시홍	\$500	박희승	\$1,100	조명례	\$950	김부웅	\$1,100	박정태	\$5,600
<b>28회</b>		손대익	\$600	지용한	\$1,500	김수용	\$1,600+10,162,000	손룡교	\$800
강경훈	\$400	송수현	\$500	하영재	\$200	김영훈\$1,200+100,000	\$1,400	신인건	\$1,100
김상완	\$500	송희재	\$700	황기준	\$500	김유사\$700+100,000	\$1,400	신철야	\$1,400
김용명	\$100+2,200,000	신현원	\$400+550,000	황세환	\$2,400	김한주	\$1,400	안정홍	\$300
		강대명	\$600	김희훈	\$1,400	김홍	\$400	오동희	\$500
		강영창	\$700	김희훈	\$1,400	김희훈	\$1,400	육정혜	\$6,000
		강창근	\$800	서상무	\$1,000	서상무	\$1,000	육종윤	\$1,000
		고재명	\$900	서한규	\$1,600	서한규	\$1,600	이규청.이청혜(37회)	\$32,200+5,800,000
		구옥헌	\$1,100	손순천	\$1,400	손순천	\$1,400	이기녕	\$1,200
				신동수	\$600	신동수	\$600	이길부	\$1,200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영길	\$800	신건석	\$100	이정무	\$500	<b>60회</b>			
이영재	\$700	윤창환	\$100	정무흠	\$100	이영직	\$100		
이재철	\$700	장세찬	\$600	<b>40회</b>		<b>61회</b>			
이정두	\$2,300	장철광	\$100	김병수	\$400	조명호	\$400		
장춘식	\$700	최송자	\$100	김준기	\$350				
정국	\$800	최연일	\$100	김태우	\$1,600				
정근영.박대선(34회)	\$5,000+3,000,000	황성욱	\$100	윤문길	\$150				
정동하	\$500	<b>37회</b>		이종술	\$150				
정해진	\$1,600	노태영	\$400	이종희	\$350				
정호성	\$900	서영수	\$600	정영섭	\$400+10,000,000				
조남재	\$1,200	신기동	\$600	허재경	\$500				
최성정	\$600	유상박	\$2,100	<b>41회</b>					
최인식	\$700	이재욱	\$3,600+1,000,000	지용백	\$100				
최준혁	\$1,200	이정현	\$400	<b>42회</b>					
하재덕	\$1,000	이청혜.이규청(34회)	\$32,200+5,800,000	정인국	\$200				
<b>35회</b>		정윤기	\$1,300+3,367,200	<b>44회</b>					
강백현	\$300+100,000,000	<b>38회</b>		김정균	\$100				
김광준	\$500	구본철	\$6,000	<b>47회</b>					
김문양	\$500	권철기	\$500	권중호	\$100				
김성원	\$500	김명석	\$200	<b>49회</b>					
김승조	\$400	김상균	\$500	정환근	\$100				
김영길	\$600	김용소	\$300	<b>50회</b>					
김영철	\$400	김희한	\$500	류삼열	\$100				
노여주	\$600	배영천	\$100	<b>55회</b>					
박대원	\$100	백성욱	\$1,200	신재길	\$100				
박순호	\$500	손성준	\$300	<b>57회</b>					
육정자	\$300	윤광열	\$200	서정근	\$200				
이상준	\$700	정규용	\$600	<b>58회</b>					
임무웅	\$600	정병하	\$600	박소향	\$500				
정수진	\$4,800	정태진	\$500	<b>59회</b>					
정의일	\$100	정호용	\$200	김경미	\$400				
정태수	\$500	<b>39회</b>							
최임석	\$700	권오갑	\$400						
허련	\$400	김완조	\$600						
<b>36회</b>		나기도	\$1,500						
김병욱	\$400	윤동수	\$300						
김정휘	\$100	이광백	\$400						
김주록	\$500	이봉기	\$600						
문종천	\$300								
송수일	\$200								

# 2015년 동창회비 납부 현황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b>22회</b> 김영권	송준철 이용길 이정창	<b>35회</b> 김무현 김상도 김영희 김유문 김장환 박동술 박영남 이원순 최유근	박무길 박병기 안태수 이승정 이승호 최영창	<b>41회</b> 강임주 김원호 김징현 김현철 박영우 서정희 여운재 윤영국 이동수 이상범
<b>25회</b> 노영하 안차완	<b>31회</b> 구자훈 김영명 석재수 엄정섭 이봉조 이양우 이희석	<b>36회</b> 강병조 권국현 박도수 백용현 송풍호 심청택 정수광	<b>39회</b> 강덕식 곽평순 김약호 김희택 박난규 서영호 정병주 정재명 조호철 조희웅 채영석 최동수	<b>42회</b> 권태찬 김용주 김종식 서석주 송재권 은종대 이광열 이규인 이병승 이정근 정무달 최병연 추연만
<b>26회</b> 송준영	<b>32회</b> 김동환 김정만 김희태 배정동 신현수 유안언 유영선 이주원 정기준 최종명	<b>37회</b> 권광우 권욱진 김광수 김연택 김종울 박동성 박영철 박익현 성기태 신홍식 이동구	<b>40회</b> 곽재영 김선우 김옥동 김완섭 김중환 김징균 도영구 도재욱 박병철 박영호 박준식 서정규 이승기 이영현 채종욱 한승세	<b>43회</b> 권광인 권오영 김건우 김기주 김세동 남수현 박봉훈 박상열 박재식 방용준 백태원 손경식
<b>27회</b> 김경수 반수경 백태룡 이교연 정창근	<b>33회</b> 박문재 박원길 양익석 이규보 이죽내 이학용 인주철	<b>38회</b> 권정윤 김풍택 남봉우 노한기 박동열 박동춘	<b>44회</b> 권종국 김광훈 김권배 김법완 김봉일 김애라 김옥배 김인호 김홍진 박인규 배옥석 배충근 배형일 백상헌 서혜진 여형태 오천석 이균증 이상숙 이석균 이웅렬 이정규 이태성	<b>45회</b> 강은희 김도원 김문수 김성식 김성호 김성화 김중훈 김태현 김행미 김홍태 박용일 안도환 유완식 이병수 이석형 이상태 이원길 이원식 이종태 이현주 이호성 장의현 전영준 정만진 조건희 채종민 최영욱 허정욱 허찬희 황성규
<b>28회</b> 박진홍 오범희 윤영길 홍형식	<b>34회</b> 김원재 김충남 편영식			<b>46회</b> 권건영
<b>29회</b> 강진성 박상곤 박영춘 박진상 송문원 정호문				
<b>30회</b> 권득기 김도상 김병화 김세현 김영수 박재석 소원영 송석호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안대덕 우성구 유용운 윤덕구 이광숙 이규석 이진식 장병준 전상식 전진곤 정화선 조동규 조병권 조성경 조영철 조원현 지용철 최시호 황보백	임당식 정상호 조영채 조영호 최도영 한건호 한치동 함인석 홍승근	김대환 김석찬 김신향 김옥희 김재룡 김홍식 박영모 백영직 서재성 성주경 손익경 송홍석 안옥수 이길양 이두진 이병기 이은기 이탁 장재국 정문관 정성권 정성희 정철호 정해익 차순도 채유호 최병희 한기환 한대기	박중대 변진석 송광순 신순희 유영구 유창근 윤경식 이동훈 이준희 전동석 정성광 정용재	한승욱 <b>49회</b> 강순병 강철형 고철우 김기산 김영환 김정식 김종서 김현준 김혜영 박철희 배덕수 배한익 배홍갑 서창수 손석수 손종휘 손찬락 송종원 안기성 오수희 오영철 이관식 이관호 이봉우 이상욱 이승철 이신하 임재양 임효덕 정경재 조영수 최영철 하영수 한창호
			<b>48회</b> 강훈수 김기식 김두환 김복연 김시동 김원섭 김윤년 김인호 김지성 김창윤 김항재 남충희 류수현 문병천 박대환 박영식 박은호 박일형 박재복 박창용 서민호 손은익 이내호 이동철 이용우 이우형 정혜영 천병렬 최세영 하정상	<b>50회</b> 권영근 권오준 김영태 김기호 김상유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김우택	김재왕	남문진	송정흠	이정호
김재연	김현구	민병우	안홍남	이지연
김정범	박봉기	박성파	이구희	정두선
김정철	박성민	박성환	이민석	정홍우
김종윤	박은미	박재용	이민재	주대현
김종홍	방성혁	박재울	이성구	최경수
김준식	방종경	배성일	이성문	최동호
김형수	손희철	이경호	이수형	최창혁
김호각	신인석	이동국	임성이	하승우
박관규	윤병현	이무상	장유석	홍성범
박문흠	이경수	이성원	장한익	
박원균	이경영	이순화	정호영	<b>55회</b>
박재신	이상무	이장철	최성관	강도원
서노교	이상복	이종명	최정운	김광원
서정욱	이우녕	이택후	한승범	김귀란
석대식	이원석	장원표	허상명	김대현
안기영	이총기	정태훈	현향숙	김동환
안면중	임영미	조병채		김명규
우영훈	장내원	조진환	<b>54회</b>	김숙희
이만기	장대성	천동욱	경희수	김승업
이상락	장병원	최은경	권영수	김은영
이영만	정영식	추진신	김덕윤	김재우
이유철	정응표	하정희	김병곤	김재철
이정철	정진홍	홍성권	김수동	김정수
이종근	정혜리		김영진	김창호
이총렬	조재영	<b>53회</b>	김영환	김하식
장원삼	지성구	강궁모	김인겸	남대희
정현대	최관수	강현구	남윤성	박성근
조형곤	최재성	권순학	류춘욱	박승우
추동호	하용수	권영식	박상운	백승창
	한금주	권종설	박순우	상영호
<b>51회</b>	현명철	김경울	박순원	송소현
강구정		김상열	박한배	신정애
강수찬	<b>52회</b>	김세연	백효종	신현호
강인구	강민구	김숙영	성열오	윤광명
강재원	구본신	김시오	손병우	이남혁
고삼규	권경훈	김재석	손효돈	이상권
권석룡	김기홍	노기석	여민희	이석종
권중혁	김도수	박매자	오승열	이성락
김경수	김동억	박세영	유병애	이시동
김광석	김상운	박영호	윤경철	이영환
김동석	김용선	변정환	윤영팔	이원기
김무원	김철규	서경란	이상민	이윤근
김시환	나건연	손수준	이재흠	이정형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중훈	정용태	이병헌	권기범	황준구
이종형	정훈	이승민	권범찬	
이태우	조명래	이연희	권옥희	<b>60회</b>
장필식	조미경	이종민	권중구	권대구
정학영	조응래	전성호	권태훈	권우현
정현주	조재훈	정낙홍	김대영	김경호
조창호	최영환	조준현	김대현	김기연
최병호	최지용	주은희	김은남	김동훈
최정현	최희만	천임순	김정민	김보미
한동길	홍순만	최동락	김종근	김소희
허주희	홍원표	최성곤	김철현	김창수
		하미희	노동우	김채기
<b>56회</b>	<b>57회</b>	허현준	박건욱	김태석
감신	권혁진	현대성	박미영	김태형
강승완	김경숙		백승희	김태훈
구성모	김기범	<b>58회</b>	백인화	박범준
구양희	김동희	강래균	백종대	배호상
권윤정	김문규	강태경	서인경	백미영
권태환	김용현	금민수	손정애	백승혜
금동윤	김은숙	김문호	예미경	신동필
김대현	김정열	김성기	오현석	양동렬
김상경	김진경	김윤영	원승희	오상호
김승미	김철진	김준홍	유진태	윤혜정
김익수	노은석	김탁관	윤길숙	이경림
김인환	류재근	김학근	이기준	이원주
김지언	류형호	박경희	이동욱	이응배
류시일	박병준	박기수	이두기	이인수
박재경	박상익	서영익	이미정	이종현
박한식	박성식	신승호	이상미	이진근
백승종	박정철	오훈규	이원경	이태현
서만수	박주희	이상한	이원훈	장화영
성준제	박태규	이영헌	이장규	정기재
신승헌	박태인	이제철	이정우	정진원
심육택	배기열	이호영	이정우	정진태
안영	배용철	장덕진	이주영	한정훈
윤기성	백지령	정병용	이형주	한창욱
이섭	서상문	표동철	임현주	황종현
이종인	성미현	한병인	전홍배	
이창형	성이경	한주섭	정재근	<b>61회</b>
이호석	신상근	황정현	정주화	강유나
이홍규	염현규	황정환	조정아	강현욱
임동건	오성운		최기선	권영락
전석구	이경호	<b>59회</b>	최은진	권오대
정영석	이덕희	강창진	한형수	김성완

김영탁	도현우	홍찬	서준영	전영환	박형도	이윤희	이중욱	조충은	
김영환	류남희	<b>64회</b>	이승재	정대의	이상윤	정혜정	이준석	조태경	
김장오	박진형	고상봉	이영진	황승욱	이호철	<b>76회</b>	장병구	한자령	
김정일	손희강	권동수	주형돈	<b>68회</b>	<b>72회</b>	채수열	조성훈	<b>82회</b>	
김준홍	오창기	김경원	홍정현	강민규	김범수	최동호	함혜민	강준구	
도진국	이상호	김근직	<b>66회</b>	김형곤	김현지	황기하	<b>80회</b>	권정아	
민복기	이상희	김여향	구순정	남순영	김호연	<b>77회</b>	권정은	김기홍	
박경식	이수형	김재한	김영은	류태하	박경덕	김주영	김경덕	김병준	
박근홍	이응창	김종철	김은진	박동호	송인철	김지현	김재환	김상원	
박미애	이철희	김태일	김종연	박정엽	우정민	박미영	문선영	김아영	
박미영	정상원	김형섭	김주현	양종원	이승수	박신형	박종민	나동희	
박영하	정지영	노선주	김형기	양진훈	이영옥	심현보	우명진	박솔희	
박진영	정태균	민우기	김혜경	이경열	이준녕	이유미	유병혁	박지은	
서지영	천상욱	박선희	류현욱	이승수	정재훈	이현정	이규채	박초롱	
여동근	최병영	신경순	박만기	정상식	홍남수	조은미	이소희	서명철	
우상균	황위경	신상철	배기범	최혜진	황수경	한영민	이수정	우선진	
윤원찬	<b>63회</b>	신승철	백승훈	황준경	<b>73회</b>	<b>78회</b>	이유진	윤유니	
이기홍	권태정	심삼도	변승득	<b>69회</b>	강건우	김도훈	이주현	은동혁	
이동영	김건엽	양정덕	서준형	권도엽	김재훈	김상림	이혜림	이지선	
이동훈	김정규	오병민	손준혁	김건현	박숙현	김창곤	장철우	이현준	
이영학	김호균	이영두	윤성원	김광현	배성근	박경혜	정승연	임춘근	
이용환	김홍균	이우근	이경우	김이혁	배진영	장지훈	정한나	장혜민	
이정훈	박민식	이현주	이상철	김현태	오탁혁	최영연	최연주	정나리	
이종우	박영찬	이호원	이성만	이지혜	이현주	최재영	최우찬	정희제	
이종협	박준철	장효찬	이재혁	이창민	이화정	최진혁	탁지영	지찬희	
이재용	상동민	전병규	조민현	장선익	정지윤	<b>81회</b>		추윤주	
장병두	신동우	전성우	채익수	정덕원	<b>74회</b>	김경민	김성배	하상훈	
장형욱	여창기	정치영	최영준	정의윤	김진혁	김성배	김지혜	<b>83회</b>	
정규영	유성호	천재민	최완석	<b>70회</b>	김하정	권오영	노다은	김성민	
정진용	유은상	한창규	<b>67회</b>	김창현	류정훈	김미정	문성준	김영은	
정호윤	이동걸	황규하	권민경	배선영	배지혜	김솔지	문수영	장우석	
제석준	이신일	<b>65회</b>	김은수	신영아	설기호	김정은	민소윤		
최윤석	이예진	김병익	김지윤	이승정	임재광	김지우	박상진		
추호식	이정미	김성규	김진영	최희정	임현정	문정은	서이준		
홍지연	이중협	김양태	김현철	허준	전범수	박지혜	서효림		
<b>62회</b>	이준희	김종엽	남형곤	홍석진	조윤정	백희선	양재민		
권성희	임정훈	김찬중	신경식	<b>71회</b>	황준현	석효암	유은혜		
김건우	전태형	김태훈	윤혁진	김기홍	<b>75회</b>	송승호	이류경		
김미정	정충일	노재수	이상빈	김용원	박진성	안지영	이민아		
김영돈	조재현	박성원	이용직	김지민	윤상열	윤혜영	이호철		
김영희	조재현	박지영	이정은			이정구	전다솜		
김영희	천경아	서영진	임경훈						
남현철	최병렬								
도승경	홍성연								

기 별 동 기 회 장 단

회수	성명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6	홍선희		서울 서초구 방배로 43길 5 1동 1104호	02-535-0827
18	이동식		대구 수성구 수성로 412 107-503	053-741-5471
19	김익동		대구 수성구 상록로 69 105-1201	053-256-0066
19	서희수		대구 달서구 학산로 2길 10 102-406	053-634-0644
23	김희철	이현연합의원	대구 서구 북비산로 160 2층	053-555-3397
24	조준승		대구 중구 대봉로 260 센트로팰리스101-1601	053-745-1609
25	오태환		대구 수성구 동원로 109 209-1001	053-741-0510
26	황일우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320 12-202	053-761-5106
27	이철상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320 12-602	053-766-3666
27	김경수	낙타연합정형외과의원	대구 동구 국제보상로 867	053-756-3000
28	박진홍	박진홍정형외과의원	대구 중구 국제보상로 564-1	053-257-2135
29	송문원	효성병원 산부인과	대구 수성구 수성로 194	053-766-7070
29	박진상	성심요양병원	대구 남구 대명로 14	053-657-2111
30	이정창	이정창이비인후과의원	대구 중구 국제보상로 634	053-424-2600
30	전재규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83 106-401	053-591-5259
31	황규성	성심요양병원	대구 남구 대명로 14	053-657-2111
32	김홍태	바로본병원	대구 동구 국제보상로 769	1644-8575
33	박원길		대구 수성구 수성로 101	053-766-8235
33	인주철	울진군의료원	경북 울진군 현내항길 71	054-785-7000
34	김유문	동대구의원	대구 동구 국제보상로 865	053-755-1339
34	정영식		대구 수성구 교학로 11길 46, 116동 1505호	053-745-7575
35	김훈남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동구 아양로 99	053-940-7114
35	박영남	서대구대동병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77	053-662-1000
36	강병조	배성병원 신경정신과	대구 북구 검단로 140	053-383-2700
36	박도수	박도수정형외과의원	대구 서구 고성로 8-2	053-357-0426
37	박익현	박익현구심내과의원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208	053-252-1785
37	신홍식	신홍식신경정신과의원	대구 수성구 지범로 188 4층	053-781-2466
38	박무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1 105-1403	053-754-5561
38	박동춘		대구 수성구 수성로 71 116-502	010-2517-1096
39	김약호	김약호내과의원	대구 서구 달서로 159	053-555-6030
39	채희갑	건강백세내과의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01 3층	053-752-0141
40	김재승	대구임상병리과의원	대구 중구 공평로 103	053-423-6200
40	도영구	도외과의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48	053-581-7001
41	이상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053-650-3000
41	박영우	박영우정신건강의학과의원	대구 동구 아양로 51-1	053-942-8822
42	김용구	한울요양병원 정형외과	대구 동구 신암로 121	053-560-7271
42	송재권	송이비인후과의원	대구 동구 아양로 45	053-954-7575
43	조원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구 중구 달성로 56	053-250-7114
43	지용철	보강병원	대구 달서구 월배로 102	053-641-9200
44	배충근	배충근내과의원	대구 수성구 수성로 322	053-765-1999
44	오신열	오신열신경정신과의원	대구 남구 대명로 76 2층	053-623-0013
45	이성태	한신요양병원	대구 서구 서대구로 60	053-565-9200

45	이종룡	지노메디아성병원	대구 남구 대명로 144-2	053-757-2000
46	성주경	경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대구 중구 동덕로 130	053-420-5655
46	정선권	아세아정형외과의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260	053-582-5400
47	강상대	미래여성병원	대구 달서구 와룡로 207	053-608-7000
47	강동민	키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경북 경산시 경청로 1105	053-812-7588
48	박재복	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053-650-4155
48	박영식	박이비인후과의원	대구 남구 대명로 174	053-682-2315
49	이재경	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구 달서구 구마로 258	053-592-7119
49	이만진	코코플러스이비인후과의원	대구 서구 평리로 243	053-744-1407
50	김종윤	김종윤정형외과의원	대구 달서구 성서로 377	053-593-7575
50	이유철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미생물학교실	대구 중구 국제보상로 680	053-420-4843
51	손희철	시지합동내과의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69	053-792-5507
51	강인구	파티마여성병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19	053-794-9400
52	이무상	M성형외과의원	대구 중구 동성로 32-1 4층	053-422-5225
52	장해운	영천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경북 영천시 호국로 93 2층	054-331-8745
53	손수준	수경이비인후과의원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11 11층	053-743-8275
53	송도영	파티마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대구 동구 아양로 99	053-940-7269
54	손효돈	효경산부인과의원	대구 달서구 성서로 420 3층	053-588-9666
54	김건호	로즈마리병원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215	053-210-7777
55	최병호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대구 중구 동덕로 130	053-200-5114
55	이남혁	영남대학교의료원 소아외과	대구 남구 현충로 170	053-623-8001
56	백승중	광장신경외과의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6	053-624-7755
56	이중호	열린아동병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2	053-269-7000
57	조경제	사랑의이비인후과의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294 4층	053-794-4477
57	김기범	서부신세계영상의학과의원	대구 달서구 구마로 255	053-656-5566
58	박남일	박남일비뇨기과의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296	053-752-0220
58	이재정	이재정정신과의원	대구 수성구 지범로 181	053-783-7114
59	황동하	V(브이)성형외과	대구 중구 동성로 17	1577-2604
59	정재균	정재균내과의원	경북 경산시 중앙로 81 2층	053-812-6517
60	이태현	사랑모아마취통증의학과의원	대구 달서구 와룡로 218 3층	053-559-3535
60	정진원	늘푸른의원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22-1	053-425-4323
61	우상균	참중합내과의원	대구 서구 문화로49길 31	053-562-8003
61	이상호	우리이비인후과의원	경북 문경시 중앙로 133	054-554-5075
62	한만식	소피마르소여성의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5 3층	053-756-3006
62	박민식	월배내과의원	대구 달서구 월배로 133	053-631-1191
63	김영우	W(더블유)병원 정형외과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32	053-550-5000
63	김대한	효성병원	대구 수성구 수성로 194	053-766-7070
64	황규하	경대연합외과의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218 6층	053-793-0074
64	오영은	엘르산부인과의원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120	053-593-9000
65	김경찬	강남삼성내과의원	대구 남구 중앙대로48길 3	053-471-7580
65	이창재	에마바레산부인과의원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141	054-475-4500
66	이성만	군선병원 정형외과	대구 수성구 국제보상로 830	053-710-0500
66	변승득	척재활의학과의원	경북 경산시 중앙로 76 3층	053-811-9382

## 소통의 장(場)이며, 동문 여러분의 것인 안행지

동창회 간행이사로 처음 맡은 안행지 발간에 걱정이 많았지만 많은 동문의 헌신과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어 긴장이 풀리고 안심이 됩니다. 모교와 동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많은 동문들이 읽고 즐거워할 완성도가 높은 동문회지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지만 기대하실 수준만큼인지 확신이 서질 않아, 원고를 마감하고 교정도 끝이 난 지금에도 마음이 가볍지 않은 않습니다.

이 안행지 발간이 가능하도록, 바쁜신 가운데도 원고를 제출해 주신 선후배 동문 분들과 편집을 지도해 주신 전임 공보이사 김인겸 부회장님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투고된 여러 글을 최선의 동문회지로 엮어낸 이포럼 이어진 대표계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안행지 발간을 통해 경험한 성공과 실패를 거울삼아 더 충실한 동문회지를 제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문의 소통의 장이며 동문 여러분의 것인 안행지에 애정 어린 참여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여름 초입에  
**간행이사 안병철**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임원 명단

회장	송중원	49회	053-426-5151
감사	김원섭	48회	053-782-4008
감사	박문흠	50회	053-561-5665
부회장	이정철	50회	053-620-3882
부회장	권오춘	50회	053-650-3000
부회장	권중혁	51회	053-250-7114
부회장	박재용	52회	053-200-2114
부회장	조병채	52회	053-200-5114
부회장	허동명	55회	053-940-7251
부회장	이상락	50회	053-250-7114
부회장	강인구	51회	053-794-9400
부회장	고삼규	51회	053-609-3170
부회장	김용선	52회	053-200-5114
부회장	박재울	52회	053-423-2332
부회장	김숙영	53회	053-650-3000
부회장	손수준	53회	053-743-8275
부회장	이민석	53회	053-756-3006
부회장	김인겸	54회	053-420-4833
부회장	이상민	54회	053-256-1275
기획이사	최동호	54회	053-815-1088
총무이사	김문규	57회	053-420-4876
재무이사	제석준	61회	053-255-8333
간행이사	안병철	58회	053-200-5114
사업이사	이우근	64회	053-653-9030
조직이사	김성중	57회	053-550-5000
학술이사	김정민	59회	053-420-4845
홍보이사	민복기	61회	053-425-7582
정보이사	김경호	62회	053-742-0100
장학이사	정현주	55회	053-253-0707
정책이사	최귀애	55회	053-636-7587
정책이사	금동윤	56회	053-250-7114
정책이사	이응배	60회	053-200-2114
정책이사	이수형	62회	053-322-1901
정책이사	박선희	64회	053-200-5114
정책이사	이창재	65회	054-475-4500
정책이사	이성만	66회	053-710-0500
정책이사	이정엽	69회	1644-8575
정책이사	이용현	71회	053-200-4122
정책이사	장성만	서울의대	053-200-5114

### 동창회비 송금 안내

2016년도 경북의대 동창회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납부하신 동창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개원의, 봉직의 : 50,000원
- 전공의, 공보의 : 40,000원

### 경북의대 동창회비 온라인 송금

대구은행 : 508-11-718465-9 예금주 : 경북의대동창회(제석준)

문의처 : 경북의대 동창회 사무실

전화 : (053)422-5114, 420-4981

팩스 : (053)424-0799

송금하신 후 동창회 사무실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기금 송금

송금 온라인 계좌는 대구은행 149-04-000196-5

예금주는 경북의대동창회입니다.

장학기금 송금에 대한 문의는

동창회 사무실 (053)422-5114로 연락바랍니다.

### 회무 연락처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80 경북의대 본관 1층 동창회 사무실(우 : 41944)

담당 : 박은미 실장

☎ (053)422-5114, 420-4981 / FAX, (053)424-0799

휴대전화 : 010-8986-2550

e-mail : kpmedal@hanmail.net / medal@knu.ac.kr

### 경북의대 동창회 홈페이지 주소

www.kpmedal.co.kr

### 경북의대 동창회 '안행' 원고 모집

kpmedal77@hanmail.net

회원 활동사항 및 동문들의 근황을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주시시오.

→ 지부 또는 기별 홈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동창회 홈페이지에 링크하겠습니다.

정보이사 김경호 : gm2000@naver.com



“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경북의대 동창회는 선배님들께서는 후배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시고 후배들은 선배님들을 존경하며 따르는 진정한 명문 의대 동창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동창회 발전의 기본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모든 동창회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는 발전적이고 활기찬 동창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제28대 경북의대 동창회 임원이사 일동